

Shakespeare

MONO1198015986

21

Shak William 8295

하
문
레
지



Shakespeare

하
스
피
아
원
작

哲
譯
述



분류 822
번호 9299

등록
번호 105352

저자명 Shakespeare, William

서명 카를레드

| | | | | | |
|----|---|---|----|---|---|
| 소속 | 이 | 동 | 출판 | 판 | 판 |
| | | | | 제 | 년 |

請番 105352 登番
求號 錄號

著者

書名

最高會議圖書館
國會圖書館

국회도서관



00105352

822
77

하
문
레
트

登場人物

크로오대이야쓰 (덴마야크國王)

하문레트 (先王子、現王의姪)

포오틴플라쓰 (놀웨이王子)

센로오니아쓰 (待從長)

호테에시오 (하문레트信友)

하문레트

헝스피아
哲

原作
譯述

레에야아티이쓰 (선로오니아쓰외子)

보을티만드 (廷臣)

고오네티야즈 (廷臣)

로오켄크란쓰 (廷臣)

킬렌스다안 (廷臣)

오스리크 (廷臣)

紳士一人

僧侶一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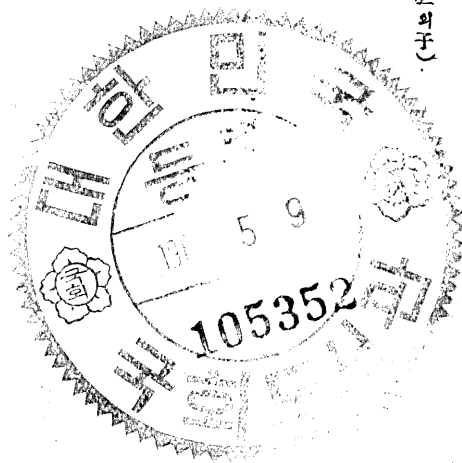
마아세라쓰 (士官)

싸아나아드어 (士官)

후란시쓰코오 (兵卒)

俳優若干人

레에날드어 (선로오니아쓰部下)



役軍二人 (葬役軍)

將校一人

英國使節數名

카아플우드 (덴마크王后, 하를네른의母)

오휘리아 (셀르오니아公主)

其他, 公卿, 女官, 吏員, 兵士, 水夫, 使者, 從者等

魂 靈 (하를네른父王의靈)

場 所

덴마크國都 엘시노오아

第一幕

第一場

엘시노오아

宮城前高臺

深 夜

兵卒「후란시 쓰코오」派守를 보고 있다

거기에士官「싸아나 드어」들어오더니

싸아。 거괴잇는것이 누구야?

후란。 아니。 거괴는 누구야? 내가 무를말이다。 速히姓名을 일러라。

싸아。 大元帥陛下萬歲!

후란。 「싸아나아 드어」氏의 行次십니까。

싸아。 으응。 내다。

후란。 一秒一刻의 어감이 업시 오셨습니까。

싸아。 時方이 倏열 두시이지。 물러가자게해라。

후란。 命令대로하겠습니까。 至毒한 추위로 心臟이 얼것가름니다。

싸아。 別로 異狀한 일은 업섯지?

후란。 아모일도 업섯습니다。 쥐새씨하나 먼뜻하지아니 하엿습니다。

싸아。 응응 물러가자게。 가다가나 하고가리 派守를 「호레에시오」나 「마아세라쓰」를

맞나거던速히오라고 일르게。

후란。 어대석 이래！ 발자취소리가들리니…………… 그제누구나 거괴잇서…………… 누구야？

青年學者「호레에시오」와將校「마아세라쓰」들이온다

호레。 이나라의 어진벗。

마아。 한가지陛下의赤子。

후란。 永遠히서로。

마아。 오오한가지서로。 누구와交代야。

후란。 싸아나아드氏가 오섯습니다。 인제는 물러잡니다。(退場)

마아。 아하！ 싸아나아드어氏！

싸아。 아하！ 아하…………… 누구야 「호레에시오」요？

호레。 그런듯하오

싸아。 잘 오셨소 「호레에시오」氏。 또 「마아세라쓰」氏도。

마아。 오늘저녁에도 또 그怪物이 날른지요?

싸아。 아즉은아모것도 보이지아니 하오。

마아。 「호데에시오」氏는 모든것이 우리들의 精神眩恍에서 나온것이라하여 우리들이

두번이나본 그怪物을 참것인줄밋지아니하니 어셔케。 그럼으로 오늘밤은 그怪物을 불랴고 한가지派守를하자고 勸誘하야 온것이지。 萬一이時刻에 그怪物이 나오거던 첫째는 우리들의눈이 바르다는것을 證明할것이요 둘째는 말을좁무리 불랴고 하는것이지。

호레。 그러한것이 나왓슬理致가잇나。

싸아。 그럴것이아이요。 죽음만 걸타안저계시오。 이를밤이나 보고는 우리들의 이악이를 참으로듯지아니하는 蠱堂이城廓을 찢 그귀를 陷落해봅시다。

호레。 그러면 우리들이 걸타안저서 「싸아나아드어」氏의 이악이를 들어볼가요。

싸아。 예는 이미 正 밤中이 나 되엿습니다。 北斗星이 西으로 기울어쳐 저기…………저별이

썩只속과가티 저거 머물어 燦爛한光彩로 天空에 피질썩 「마아세라쓰」와 한가지
이곳을 지키고있더니 멀리서 隱隱히들리는 한時를報하는외복소리……………」
쉬이! 가만이보시요。 저기나라난것이!

(先王하물레트와亡靈이出現)

썩아。 崩御하신先王의 玉體그대로!

마아。 「호래에시오」氏 당신은 學者시니 말을 좃하여보시요。

썩아。 先王과죽음도 다름이업지요? 말을 좃하여보시요。

호래。 썩가튼걸 怪異도하고 劫도나서 몸에는 슬음이 나는걸。

썩아。 무슨말을 할것가래보이는대。

마아。 무슨말이던지 무러보시요。「호래에시오」氏

호래。 네가 原來 어셔한것이건대 幽界를셔나 이가튼 深夜에 橫行을하느냐? 그썩만아

나라 崩御하신「렌마아크」先王陛下의 莊嚴한軍服을僭着하고 무슨일로 現出하
였나。 네게 命하노니 速히말을하라。

마아。 귀에 거슬리는 것가튼대。

싸아。 漸漸저쪽으로 가는걸!

호레。 거괴잇서! 가지말고 말을해라 말을해! 내네게命하노니 말을해라。

(亡靈이消盡)

마아。 엄서졌는걸。 아마 對答하기들 조하하지아니하는 모양이야。

싸아。 어섯십니까 「호레에시오」氏。당신은 별별설고 얼굴빛까지 해쓱해진것갓습니다。

그래도 우리말을 밋지아니하시고 神精眩恍에서나온것이라고 하겡습니까。 대판

질어써케 생각을하십니까。

호레。 한울에 盟誓하고 이肉眼의 正確한 證據가업스면 미들사람은 아마도 엄겡지...。

마아。 先王陛下와 갓지아니한가요?

호레。 그대가 그대와 갓듯이 그甲冑야말로 傲慢한 「늘웨이」의 王과 싸울적에 쓰시

던것과썩가튼데。 그뿐인가 성내신 그얼굴은 일즉이 談判이 破裂되어 「썩오란

드」氷판에서 썰매란敵兵을 두되력부스던 그얼굴과 다름이업는걸。 참異常스리

워.....

마아。 이와가타 두번재나 가튼時刻을라서 深夜에 우러들이 派守를 보고잇는 이사이

를 步調가 堂堂하게 지나갓습니다。

호례。 仔細히 그러하다고 斷定은 할수업스나 大體로말을하면 이것은 이나라에 무슨

怪變이 일어날兆朕이다。

마아。 그러면 거기중안지시요 들어볼말이 잇습니다。 近者에 알수업는일은 온國中을

들어 이가타 嚴重하게 밤에도 눈코뜰사이업시 警戒를하고 날마다 大砲를멘들

며 또外國에서 限量업시 武器를 사들일뿐만아니라 그우에다 배멘드는大木을 모

아서 싹날도 늘리지아니하고 이가타 苛酷한 賦役을 시키니 어셔한 大事件으로

晝夜兼行에 火速準備를 하는지? 아시는대로 가르쳐주셧스면。

호례。 그것은 내가말하지。 何如던 들은바는。 只今도나타나 보이는 先王陛下 御世時에

여 분도 다 아시는바와가타 前「늘웨이」王「포오린플라쓰」의 傲慢不遜한 말에

성이나서서 一打戰을 試合한바 이름과가트신 勇猛無雙한 先王陛下의 손의 「포

오린플라쓰」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업서졌지。 그런데 일즉이 國法騎士道の 所定한 法條에 依하여 締結한 契約으로 보면 「포오린플라쓰」는 그 목숨과 가리 國土까지도 일키로 된 것인 지。 이러한 條約에는 先王陛下에 속서도 相當한 領地를 걸고 萬一에 지는 날이면 그것을 「포오린플라쓰」에게 돌려보내기로 相約한 明文에 依支하여 敵의 領土를 빼앗기로 되었지요。 그런 것을 그 하나아들 가튼이 들을 가진 「포오린플라쓰」血氣에 못이기는 無謀한 젊은者가 이번 「늘웨이」의 邊境에서 일을 조하하고 먹을 것에 목을 매는, 生命도 모르는 無賴漢을 모아가지고 무슨 일을 計劃하는 模樣인데 이것이 아마 武力과 暴言으로써 그 아버지가 일허 버린 舊領土를 回復하라고 하는 것인 줄 우리나라 當局者들도 明白히 아는 事實이 나외。 내생각에는 아마 이것이 우리가 準備하고 있는 動機이요 警備의 原因인 듯 하오, 이러한 일이 國內上下를 騷擾케 하는 것이지요。

싸아。
아마도 거기 벗어나지 아니하겠지요。 그러면 그 怪物이 이번 싸움에는 因緣이 두려운 先王의 甲冑로 밤중에 나타난 것은 理致가 있는 일입니다。

포레)

눈에는 티끌가타이 족음아한 일이라도 마음의 눈을 괴롭게 하여서는 아니되
져날富貴榮華를 至極히한 羅馬에서도 大「시이샤」가 죽을족음前에는 墳墓가
모다 主人을일코 襟衣를입은 亡靈들이 羅馬의 街頭에서 어지러이 부르지지며
별은 火焰의 꼬리를쓰을의 피의 이슬이 나리고 白日은 빛을일허서 「너 프쑤」의 領
土되는 큰 바다를 支配한다고 하는 月魂까지도 病들어 마즈막날이 온것가타 사라
졌다고 한일이 잇지마는 그와가튼 變事의 前兆。運命에 먼저서는 不祥의 兆朕、
한가지 天地의 變象이 우리 國內의 同胞에게 보이는 것이지。아아! 가만이 잇
서저것보아 또 나왔다。

(亡靈이 다시 現出)

내가 막아보지。罰을 當티래도。………거괴잇서。怪異한 이 物件아。萬一에 내
가 소리를질러 말을할수가 잇거던 내게다 일러라。萬一에 말을 하여서 네 마음
을 便케하고 또 내게 恩惠될일이 잇거던 내게 말을하여라。다행이 먼저알아서
避할수잇는 國家의 運命을 알수만잇스면 사리지말고 일러라。그러치도 아니하면

모든사람이 이르는바와가리 네 生命이 있을때에 地中에 무덤 不義의 財寶가 世上에나 오지 못하여 魂魄이 된것인가 그어썌것을말하라。

(鷄鳴)

거귀잇석 말을하여.....

붓잡으시요 「마아새라쓰」。

마아。 이槍으로 씨를싸요。

호레。 머물지 아니하거던치시요。

싸아。 여귀다!

호레。 여귀다!

마아。 업섯졌다。

(亡靈消滅)

그와가리 氣稟이잇는것을 함부로 손을대이라고하는것이 잘못이지。空氣와가리 무슨잡을것도 업는것을 함부로친다는것은 조치못한작난에 不過하지요。

싸아。 말을 하랴고 하는 것을 남이 울기 때문이……

호레。 무서운 呼出을 당한 罪人과 가티 劫내어 쓰는 것 가랴다……。 傳說에 들은 바 새벽을

報하는 닭이라는 짐승이 활개를 치고 목을 뽑아서 한 울음에 크게 日輪을 부르면 海中이나 火中이나 空中이나 또는 쌍뿔으로 彷徨하는 精靈들이 두리워 숨는다더니 이제야 처음 證據를 보았다。

마아。 果然 닭의 소리에 업서 정습니다。 救世主의 誕辰을 祝賀하는 時節이 되며는 거룩한

威德을 바다 새벽을 報하는 닭이란 짐승이 밤을 걸쳐서 쉬지 안키에 亡靈도 두려워나 오지 못하여 陰鬱한 밤중도 災殃이 업시 平穩無事히 지나며 星辰의 變化도 幻弄이 업시 妖物도 또한 힘을 못쓰고 魔女도亦是 魅刀을 일러 맑고도 美妙한 때(時)가 된다나오。

호레。 그것은 나도 들어서 알지만 居半은 나도 참인 줄 믿소。 그러나 저것을 멀리 좀 보오

아침에 비치는 날이 곱고도 붉은 옷을 입고서 저편에 놓은 언덕 위에서 이슬더 되고 올라온다。 우리들의 派守도 설썩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생각과 가티 오늘저녁에

저녁열을 「하플케트」 「殿下에게 아뢰(奏)이 어셔할가! 우러들에게는 對答이 업는
亡靈도 王子를보면 말을할는지도모른다. 아뢰는대는 同意를할는지. 그것이 아
마도 王子를생각하는 우리의 眞情이요 忠義일듯하다.

마아。
우리는 그것을 願하는바입니다。多幸이 오늘아침 王子를拜謁할 便宜한場所를
압니다。

(退場)

|| (第一場終) ||

第一幕

第二場

同一한「엘시노오아」王城。城內의 큰殿閣

廳臥 소리가 나며 國王 「크로어데이야쓰」 먼저 섰고 뒤로王妃 「카아쉴루트」 설어서 王子 「하물레트」

侍從長 「썸로오니아쓰」 그아를 「레에야비쓰」 廷臣 「보올라만드」 「고오네러야즈」 其他公卿 侍者多

數入來。

國王。

骨肉을 相分한 親兄 「하물레트」 王이 崩御하신지 아즉도 달을 가지지 못하얏스니
우리들은 김히 悲歎에 저저 舉國이 한가지 愁眉를 펴지아니하는 것이 事理에 當然한
것이나 大變은 이미 當한일 空然히 悲哀노만 歲月을 보내는 것도 그처럼 어진 行動
이라고 할수업스즉 우리들은 事情으로써 抑制하여 人情과 다투어 김히故王을 翁
히하면서도 또 韓國主된 이 몸의 本分도 이룰수업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참기어려

은 悲歎을참고 悲喜哀歡을서로난후어 한눈으로는 눈물을흘리고 또한눈으로는 웃음을 먹음이 禮를가추어 因山을지나고 눈물을비저 新婚의式을 치른것이다。 卿等도아는바와가티 先皇의皇后 卽 朕의兄嫂인「카아쉴우드」를이제다시 皇后로定하여 이「덴마아크」의主權을 난후게된것은 일즉이 聰明한卿等과가티 씨하여 充分히 朝議를밧은것이 汲히滿足함으로 생각하는바이다。……………그러나이제다시 한마디할말은 卿等도 이미알거너와 年少輕薄者「포오틴플라쓰」朕을一 個庸主로알고 그러는지 또는 兄皇의崩御하심을듯고 國內가어지러운줄 臆測하여 傭가튼일을밧고서 구찬케使者를보내어 年前其父「포오틴플라쓰」가 契約한 明文에依支하야 우러勇敢하신 兄皇에게바친領土를 回復하라고 잠고대를하는 모양이다。그것은 그러하거너와……………오늘一同을 여기모이게한것은 이「포오틴플라쓰」의叔父「놀웨이」王이야말로 近年老病이 沈重하여 자라에일저못함으로 이와가튼陰謀가잇는줄은 알지못할뿐아니라 또한이번徵募에應하여 賦役하는 물이들은 모다 그部下인外狄에 이를막을힘이 應當없을것이다。여기에그理由를

記錄하여 둔 것이다. 「고오네리야쓰」 「불을 터만드」의 兩卿은 이번 일에 使者가 되어 老 「불해이」에게 단 여울지이다. 오즉 卿들에게 委任하는바는 다만 이글 가운데 記錄한 細目外에는 다른 權利를 맛기지아느니 아모쪼록 速히 復命하여 忠勤의 直心을 보일지이다.

고오.
보을.

國王。

如何한 嚴命일지라도 忠勤을 다할가 하옵나다.

朕도 또한 그것을 밋는바이다. 아모쪼록 無事이.

「고오네리야쓰」 「보을터만드」 나간다.

그런데 「레에야아티이쓰」야 네가 하고자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所願이 있나? 道理에 合當한 所願이면 「덴마아크」人君이 듯지 안홀 理致가 잇겠나? 「레에야아티이쓰」야 네가 請하는 일이면 請하기 前에 朕이 먼저 너의 願대로 할 것이다. 너의 아비와 이 「덴마아크」王座와는 그 情分이 머리(頭)와 마음보다도 가깝고 손과 입보다도 더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터이다. 「레에야아티이쓰」야 너의 願하는 바 이 두엇인가.

레에。

惶悚하나 佛蘭西國에 다시가는 勅許를 무르고자 하옵니다。陛下에 卽位大典을 奉祝하기爲하와 깃거움을 품고 돌아왔사오나 인제는 盛典도 거침없이 지내옵삽고 小臣의 公務도 이따마음을 다하은 以上에는 이제 다시 佛蘭西國에 가고자 하니 臣의 이衷情을 洞察하옵시기를 伏乞하옵니다。

國王。

그러면 卿의 父命은 라닷나? 「선로오니야쓰」 卿의 意向은?

선로。

惶恐하나 子息놈의 懇切하願望 여러가지로 問答을 마친 結果 하는수없이 다시 가기를 承諾하얏사오니 伏望陛下는 敕所願대로 勅教를 내리시게 하옵소서。

國王。

「레야아라이쓰」 그러면 吉日을 擇하여 써나게하라 時日은 卿의 物件이다。아모쪼록 滋味잇는 歲月을 보내게하라。…… 그런데 「하문레트」야 姪王이라고 한것은 前日에 불렀던말 只수는 나의 아들……

하문。

(엣솔보며) 外面으로 親戚以上이 지마는 內心으로는 親戚以下이다。

國王。

마음에 不平이 잇는지 眉間에 근심구름이 靨날이 업시니 무슨 外談인고?

하문。

근심구름은 커녕 념우 벗이들어 전디기어려울 地境이읍니다。

王后。아니 「하를래트」야 네眉間에 감춘근심구름을 거더버리고多情하신승上陛下를精誠으로삼겨라。어느때까지冥府에게신父君만思慕하면 쓸쓸잇는일이냐 삶이잇스면 죽음잇는것이아닌가 사람은이世上을지나서永劫의未來로가는것이다 이것이浮世의常事가아닌가。

하물。그러켓지요어머니。그것이常事이올시다。

王后。그러면 무슨일로네눈에常事롭지못한氣色이보이는가?

하물。氣色이보인다고요? 어머니。아니야요事實上『그런것』이올시다。그러케『보인다』고하시는것은알수업지요。眞寶로이몸이마음가운데먹음고잇는것을齟齬할것은이잉크빛의外套도아니요이定例의喪服도아니며일부러몸어내는한숨도아니고샘(泉)가타흘러내리는눈물도아니며이마에출음을치고눈귀를씻더리며입을비쭈어리는것아니은世上에모든愁嘆의儀式、禮節、外容도아입니다。다만그것은보이는것이요또누구라도홍내낼수잇는것이저마는이가슴가운데는눈에보이지아니하는것이잇습니다。只수이것은오죽悲哀의形式과衣服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國王。

「하물레트야」 그와 가리 들어가신 父王을 생각하고 悲嘆하는 것은 孝子の至極한 情理인 줄 알겠스나 그러나 한번 事理를 생각해 볼 것은 父王도 일즉이 그 父王을 잃었(失)고 그 父王도 또 그 父王을 잃었스나 다만 子息된 道理로 禮節을 가추어 哀悼를 表하는 것은 當然한 情義이지 마는 그러하고 님유 지나서 哀傷으로만 歲月을 보낸다면 이것은 첫째 神明에게 不敬한 것이요 둘째는 男子답지 못한 愁嘆이며 한울에 對한 非禮이요 마음에 信心업는 證據니 短慮無智, 愚昧한 表示라고 압홍수업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죽음은 이 必然으로 돌아오는 일이요 또 五官으로서 새달을 만한 一般의 常事인 줄 알면서도 무슨 外담으로 마음을 거슬리고 가슴에 새겨서 이를 嘆息만 하는가. 가장 穩當치 못한 일이다 이와 가튼 일은 한울을 거스르는 것이고 죽은 사람을 배반하는 것이며 自然을 어겨며 道理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은 道理에 가장 普通의 일이요 또 한『이것이 必然의事』이라고 부르짖는 것이다. 「하물레트야」 내가 願하는 바이다. 아모썬록 그러한 無益

의 悲嘆은 모다 쓸어버리고 나를 참으로 나 혼 아비 투 알아라。 그것은 온 世界로 하여금 내가 나의 가장 直接되는 王座의 繼續者이요 또 내가 慈父와 다르지 아니하는 恩愛로써 너를 撫育하는 출알아라。 그리고 그 빅덴 싸이크」의 大學에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장 깃거하지 않는 바이다。 願컨대 近親으로나 重臣으로나 나의 사랑으로써 나의 面前에 머물기를 바란다。

王后。

「하믈레트」야 어미의 바라는 마음을 저비리지 말아라。 응, 여기 있고 「빅덴 싸이크」에는 가지를 말아라。

하믈。

抑制하여 말씀대로 하지요。

國王。

그것은 참 특한 對答이다。 그러면 이 「던 마야크」에 머물러 우리들과 한가지 歲月을 보내자……王后안으로 「하믈레트」의 柔順한 對答은 나의 마음으로도 들어나오는 것분을 참지 못하겠다。 그것분을 祝賀하기爲하야 只속으로부터 祝賀하는 잔치를 열고 同時에 祝砲를 구름에 向하면 한울도 또한 王家의 萬歲를 깃버하여 地上的 霹靂과서 應하겠지 차아 저리로……

〔하블레트〕 만설어지고 그날야기 사람은 다들어간다○이때에空臆賦소리가난다)

하문。

아아 너를고 단단한 이고기덩이가 녹고 들어져서 이슬과가티 되었스면! 그러
 처안커든차라티 할우년이 自縊을큰罪라고하지나아니하였스면! 아아! 한우년
 ! 무슨일로 모든이世上의 萬가지의營造가 無聊하고도 空虛하며 平凡과 無益으
 로만보이는지! 아아 虛無한일도만타! 열매를매지라고하는 毒한풀이茂盛한
 거친들(荒蕪)에 내음새나고 더러운물건이 가득차있다○ 이가티될출은! 돌아
 가신지 오즉두달.....아니 두달도 다 못되어서 그와가티 顛에 드문國君을! 거기
 와여귀를 比較하면 太陽의 神明과 獸羊의 怪物 母后의 面上에 거흔바람한번쏘이지
 아니하라고하시던 父皇, 그가티 사랑하시던 父皇○ 거기서 天地가 變할가○ 아아생각
 지아니하면아니될것가!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스록 사랑과 貞操로써 繩從하라고
 하던 母后가 무슨일로한말이 겨우지날지말지하여.....아아, 그런일은생각을
 마라 저생각을.....弱한물건아, 계집이라고하는것이 너의별명이다○ 겨우한
 달.....「니오매」와가티 눈물을흘리고 靈樞를떨튼 그신의몬저도 험기前에...

..... 母后가, 母后까지도..... 아아!..... 五倫을 모르는 禽獸은지라도 아즉동
 안은 슬허할것인데..... 叔父되는 사람과 또 婚姻을하다니..... 父皇의 親同氣하
 고..... 이 「하물래트」가 「하아기유러이쓰」에 가른것만치도 갖지아니한 아우
 와 한달도지나지아니한사이에? 거짓말눈물이라도눈시울에 시치어 붉은자리가
 얼서지기도前。아아, 無慚! 非道! 姦邪하고 淫蕩할자리에서 가다리고 잇섯
 던것가티 그처럼急急히! 이것이반듯이 조흔狀腔은아니다 必然코凶惡한일의前兆
 이다。..... 아! 누가오는것갓다 으응, 이가슴이 터질대로!

「호래에시오」 「파아세라쓰」 「백아나아드어」 들어온다

호래。 殿下의 康寧을 비옵나이다。

하물。 그대도 無事한가 맞나니 란가웨。 아마 「호래에시오」가 른데 或내가 잘못보았나。

호래。 들님업시 臣 「호래에시오」이옵니다。

하물。 아아 나의兄아, 나는그대의 불은이름을 바꾼다 그런데 어찌케 「빅덴싸아크」에

서 예까지는?..... 아아 「파아세라쓰」가?

마아。殿下세옵서는……………

하물。잘왔다。(싸아나아드에게對하야) 아아 너도또한……………(호래에서오에게) 어찌한일로

「빅덴싸아크」에서 멀리예짜?

호래。懶惰한性質이되어서 그러합니다。

하물。그러한險談은 그대의怨讎가하더래도 고지들리지아니한다。하물며 自身이말하

는그것을 고지들을듯한가。그대가 어찌계를느다고하나。그러나 이 「엘시노오 아」에온일은? 잘못한다는 逗留할동안에 暴飲을배우기쉬울걸。

호래。實上은 先皇陛下의 因山에 參拜하라고왔읍니다。

하물。거짓말이지。아마도 母后의婚禮式을 보러온것이지。

호래。그러다고하시면 이어서큰慶事。

하물。그것이! 經濟! 節儉이라고하는지! 靈前에손던구은고기를 婚姻床에다 벌여
놓는 冷淡한響應이다。그러한숨흔날을 當하는것가트면 차라리 不共戴天之讎와
天國에서 맞나는것이 낫겠다!……………「호래에서오」? 先皇陛下가……………아버지

썩얼굴이 보이는것 같다。

호례。 에에, 어대계신가요?

하물。 나의 마음눈에。

호례。 臣도일즉이 謁見한일이 잇삽거니와 참으로 莊嚴하옵신 그 英姿。

하물。 어찌한곳에서 아모리 調査를하여도 다시볼수업는 그 氣質。

호례。 殿下? 어제밤에 先皇陛下를 謁見한듯합니다。

하물。 謁見을하다니 누구에게?

호례。 先父皇陛下께。

하물。 父皇陛下께

호례。 놀라지마시고 마음을 始定하셔서 들으시기를바랍니다。 只今말씀할야고 하는것

은 近來에업는 不可思議의한條件 그 證人은여과잇는이두사람이올시다。

하물。 어대좀仔細히들어보자。

호례。 이틀밤이나 連이어서여과잇는이두士官「마아세라쓰」「썩아나아드어」가 守直

을하고잇슬그때 草木도한가지 잠든正밤中 世上에도 異狀한 容姿를보았습니다。
그形體가 머리똥으로부터 발똥까지 甲冑투구를한것이 죽음을넘었지 先皇
陛下의 玉體로나타나서 凜然한步調로 戰戰兢兢한는 두사람의압으로 두서너자
나 사이를隔하여 徐徐이 지나가십니다。 두士官은놀란남아지에 肝膽이떨어져서
입을다물고 선체로 한마디말도못했다고 별별설면서 그런말을합니까。 臣이 이
두士官으로더불어 第二日밤에 守直을해본즉 들은바와 틀림없지 時刻과形體가
뉘똥마치도 어김이없시 나타나는 怪異한 幻影、先皇陛下의 玉體와갓기는姑捨하
고두손까지갓지안흔이업습니다。

하물, 그래서 그곳은?

마아, 저이들 守直하고잇는 高臺이옵니다。

하물, 무슨말을 못해보았나?

호레, 말은해보았지만은 答은하지안호시고 그레도 한번은머리를드시고 무슨말을하

시라고하실지음에 咄마춤을여나는 닭의소리에 소스러쳐 사라져업습니다。

하물。 참으로 怪異하군。

호례。 이일이 한을토盟誓하여 틀림이 없습니다。 잇는 그대로 본 그대로 奏達하는 것이

臣下의 本務인 줄 아옵니다。

하물。 그러타 쌓이겠나 그러타 쌓이겠나 마음에 쓰러 써는 異常한 일이다。 오늘저녁에도

守直을 할 터인가?

하겠습니까。

싸아。 甲冑투구를 하셨다지?

싸아。 그리셨습니까。

하물。 머리뿔에서 발톱뿔까지?

싸아。 틀림업시 머리로부터 발뿔까지。

하물。 그러면 얼굴은 보이랴 했겠지?

호례。 아니요, 얼굴이 보입니다。 遮面이 둘러서 있습니다。

하물。 성나신 얼굴이던가?

호례。성나신것보담도 숨혀하시는얼굴입더다。

하물。얼굴이해속하신던가 쏘는함으시던가?

호례。丁寧코해속한얼굴로。

하물。그대를 흘겨보시더라고했지?

호례。한참동안을。

하물。나도그째있더면。

호례。그랬스면 꺾놀라섯겜지요。

하물。그랬슬터이지 그랬슬터이지。그래서오래먼으르시던가?

호례。相當한間隔으로 百이나해야릴동안。

마아。아니요 아니요 그보담도 더오랫동안。

호례。내가볼때에는 그맛게되지아니하엿다。

하물。鬚髯은灰色이던가? ……그러치아니하던가。

호례。在卍하옵서 계실때 뽕하던것과가더 검은가운데도 銀빛이석겨계십더다。

하물. 나도 오를 저녁에 가리 守直을 해보자. 아마 또 나타나시겠지.

호래. 아마 또 남시겠지요.

하물. 父皇의 玉體로 나라난 以上에는 비록 地獄의 길이 발바닥미 데 열려서 말을 말라고

禁止를 하더라도 나는 盟誓코 말을 해보겠다. 아니 그대들에게 付托할 것이 있다 오
늘까지 지난 이 일을 秘密도 무더운 以上에는 此後에도 입을 다물고 오늘 밤에 如何
한일이 생겼는지 가슴가운데만 두고 決코 입밖게 내지를 말아라. 그대들의 誠意에는
早晚間 잠을 깨가 있을 것이니. 그러면 열한시나 열두시 사이에 守直하는 자리에서 맛
났달라이니.

三人. 삼가 이 말씀대로 奉行하오리다.

하물. 서로들 誠意를 다 하여. 잇다 맛나세.

(하물레트, 만치저잇고 三人은 다 들어간다)

父皇의 魂靈이 甲冑투구로서! 不祥의 前兆다. 아마 도숨은 惡行이 잇는 게로군. 아아
오는 밤을 기다리기가 멀다..... 그새까지 鎮靜을 해라고 내 마음아..... 惡行은 열

마야니가 나타나겠지 차모리天地로써 사람의 눈을가려다코하여도。

(하늘에 트들어간다)

—(幕)—

(第一幕二場終)……………)



第一幕

第三場

선로 오니아쓰邸宅의 一室

(때에야아비가 쓰가 妹弟 오취마아와가 들어온다.)

래에。 셔날準備도 이머다 되엇슨즉 인제는난호지안흐면 아니 되겠다。 누의야、 順風이를

써마다船便이잇슬써마다 조을고만잇지말고 消息을차조傳해라고。

오취。 그것은 念慮마르시오

래에。 하플레트氏의 그아름다운말씀은 青春의한씨 風情이요 젊은피귀(血氣)의 戲弄의
첫이다。 일측은봄날에피는 堇花다。 피기도速하고 지기도速하니 곱기는하고 조

키는하지만、 香氣나慰安은 오측 한씨、 뒤에는남을것이 업는클생각해라。

오취。 그러면그뿐이라고요……。

래에。

그뿐인 줄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른 일이다. 그理由は 사람의 成長이라고 하는 것이 筋肉이나 容姿뿐만 아니요 이 五體를 키우는 同時에 心神의 內部作用도 쌓아서 키지는 것이니 只수는 皇子의 態度가 너를 사랑하고 또 너의 마음의 眞操를 드림 兪惡意는 업는 것 같지마는 그래도 精神을 차리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 그 身分의 높은 것을 생각하면 自己의 意思까지 自己의 것이 아닌 것이다。 皇子의 身分이라고 하는 것은 皇統의 奴隸가 되기 때문에 一般臣民과 가리 무슨 일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니 國母의 選擇如何에 쌓아 一國의 安寧幸福이 달린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自身으로 支配하는바 庶民과 同一한 所望과 意見이 아니면 作定할 수 업는 일이다。 비록 殿下에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더라도 그것은 特別한 身分이 하는 範圍의 안에 말이지요 約條를 實行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덧는 것이 惻愴한 일이다。 그것은 어느 때라도 이 「덴마아크國」民이 可하다는 소리가 나기前에는 虛言에 돌아 가고 마는 것이다。 萬一에 輕率히 殿下의 사랑하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써져 함부로 그 말만 좃다가 들도 업는 眞操의 보배를 드립히는 날은 回復치 못할 陋名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것

은 겁히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업는 일이다。 누의 「오취러아」야。 그리고 愛
 情의 障後에 물러서서 情欲의 위대한 彈雨를 避하는 것이 第一이다。 操心이 만흔 處女
 는 그 얼굴을 달(月)의 계보는 것도 端正치 못한 行實이라고 한다。 淑德의 化身으로도
 世上의 誹謗은 免치 못하는 것이다。 열븐 봄어린 鬢봉오리는 퍼기도 前에 버레가 먹
 기 쉬운 것과 가티 사람도 青春의 첫 거름, 젊음이 이슬로 셀어질 때는 모진 바람에 부
 드치기 쉬운 것이다。 힘써 操心하라。 萬全은 慎重에 머무는 것이다。 젊을 때에는
 自己가 스스로 그릇들기 쉬운 것이다。 남이 썩지 아니하여도。

오취。

敎訓의 말씀은 이 물의 守護物으로써 잊지 아니하겠시오。 그러나 올라버니 世上에는
 남은 잘 가르키면서 自己는 實行하지 못하는 일이 허고 만습니다。 品行이 端正치 못한
 牧師들은 남들에게는 天堂에 가라고 勸하여 險惡한 가시길을 가르쳐 주면서도 自己
 는 放蕩한 사람의 본을 바다 아름답고 香氣도 운뜻 피는 自墮落의 길을 가는 것가
 리는 아니하시겠지요?

래에。

아아, 나 딸인가 내게 對한 걱정은 족음도 하지 마라。 아! 時間이 매우 느것지? 아!

아버지께서 오시는군。

(선로오니아 쓰들어온다)

二重의 祝福을 주신 것은 二重의 慈悲心이 올시다。 이것은八字조케 두번 재나 下直의 말을 들이게 된 것이 올시다。

선로。

여러여귀잇섯나 『래에야아타이쓰』 遑히래에가보아라베에, 우웨이러고잇나。 順風은너를브내라고 뜻에가득참고, 모든사람은 너를보라고 기다리고잇다。 네게 바라는바는 無事히지법을비는것이다。 그리고 네가이르는이말은 썩에사져잇지 마라라。…… 생각한마를함부도입맞재내지마라, 그리고時期에合當치아니한생각은하지를마라라。 親舊는 넓히사귀여라。 그러치마는친구에게알려지는마라라。 한번親한벗으로썩 마음을許諾할만한사람에게는 鋼鍊로테블매어 벗어지지안도록하여라。 그러나 갓外(艇)서 아즉 털도다나지아니한知面으로는 손을맞붙잡아 손바닥의感覺을魯鈍케하지마라。 喧嘩의門에발을너치마라라。 그러나 한번받이든以上에는 敵對者에게썩잇는것을 보이게하여라。 어썩한 사람의말이던지귀블

빌리기는 하여도 어찌 한 사람에 계던지 입은 할부로 열지 말아라。時任가許諾하는데
 까지는 몸에 돈들이는 것을 잊기지 말라。다만 쓸새업는 것은 하지 말 것이다。홀륭한 것
 은 조호나 華麗한 것은 조치 못 한 것이다。衣服은 세색으로 人物을 表現하는 것이니
 더구나 佛蘭西의 高貴한 上流에서는 이 길에 들어 모든 精粹의 極致를 가지고 있다。돈
 에 들어서 꾸어 주지도 말고 꾸어 쓰지도 말아라。貸金은 항용 元金과 가라。親舊까지
 일허버리는 것이요 借金은 節約의 鋒尖을 鑿鈍케 하는 것이다。그리고 最後한 마디 付
 托할 것은………自己에 對忠實하여라。그러면 밤이 낮과 이은 것까지 남에게도 忠實
 할 것이다。그러고야 모쪼록 잘 가거라。나의 바라는 마음을 가슴에 사겨 잊지 마라라
 삼가이 下直을 사 터옵너다。

레에。時刻이 되었다 어서 떠나가라。下人들이 기다리고 있다。

레에。『오휘리아』야 잘 잊거라 時方 付托할 말을 잊지 마라라。

오휘。제가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그 열쇠는 오라버니께 맡깁니다。

레에。잘 잊거라

(레에안아르어쓰나간다)

썸로。 『오휘리아야 오라법이 무어라고 하고가더냐

오휘。 다른것이아니라』하플래트 殿下말씀이야요

썸로。 응, 그것은잘생각한일이다。 들으니요사이皇子가 가끔가다가傲行으로네게오

시고너노매우自由로親切한말을交換하는모양이나 그것을注意하라고일러주는
사람이 없는것과가리 정말그럴것가트면 나는네게 한말아니할수가없다。 너는
勿論나의딸이고 또삼가하지아니치못할 處女의몸이라 는것을 잊고잇서서는아니
되겠다。皇子와서로 約條한것이무엇인지 기이지말고 말을해라。

오휘。 殿下께서는 上前부터 여러번情다운말씀으로約條를지키시겠다고 말씀을하셨서

썸로。 情다운말로! 하하! 사랑의길이 두려운출 뚝에도알지못하는處女의몸이다 너는

그約條를正말인줄밧느냐

오휘。 글세요, 어셔하는지。

썸로。 그러면 내가가르쳐주마。 네가 그런約條를正金과가터밧고서 어느때던지치러출

것인 줄 아는 것은 짓먹이 어린 아이와 같든 생각이다。 일로 부러는 모든 것을 精神을 차
려라 그러치 아니하면……弄談을 고치듯는……나를 남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다
그러치 마는 아버지? 殿下의 態度가 참 뜻으로 사랑하시는 것가튼 데요。

오취。 호응 態度를 보고 하는 말이나。 아니다。 틀렸다。

오취。 그리고 거짓말음이 아닌 證據로는 말슴을 다하여 모든 盟誓을 하시던 걸요。

오로。 으응。 그것이 눈 면세들잡으라는 그 물이다。 나도 겨겨 보왔거니와 靑春의 피가 활어

오를 때는 空然한 盟誓가 함부로 나오는데 것이다。 이애야 그라 오르는 것을 불인 줄 아지
마라라 빛나는 그것만 酷熱이 업시 넘치도록 約條하는 그 동안에 써져 업서 지는 것이
다。 爾後에는 處女의 몸으로 輕率히 男子와 석기는 것을 操心하여라。 設或 만나 시겠
다。 고 말슴이 내리시디래도 좀 境遇가 아니거던 對面을 하지 마라라。 『하틀레트』 殿下
로 말하면 써져 되었던지 아즉나도 젊으시고 少婦女子의 境遇와 달라서 尙自由로
이 무슨 일을 處理할 수가 잇는 줄만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그 盟誓를 참인 줄 알지 마라
라。 盟誓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기爲하여 더구나 神聖한 것이 經文을 읽는 姪僧

과가 더 또는 貞節 팔기를 勸하는 序 쟁이와 가른 것이니 그 창자와 衣服은 雲泥의 差
가 있는 것이다 ○ 알아 듯기 쉽게 들어내 노코 말하면 爾後로는 비록 暫時 동안이라
도 『하물레트』 殿下와는 은근히 맛나던지 입을 석거서 말을 마라라 精卿을 차려서 이
命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인제는 물러가지 오 휘 命令 대도 하겠습디다 ○

【두사림이 들어간다】

(幕)

(第一幕第三場終。………)



第一幕

第四場

高臺

하물매 트플싸라 호래에시오, 마야세라쓰 드러온다

하물。 살을미는것가튼바람이다。 잊지이가티추운가호레바늘로 썰르는것가튼 날카라운

바람이울시다。

하물。 只스멧시나 되었을가?

호래。 아즉열두시싸지는 되지아니하였지요

마아。 벌써첫습니다。

호래。 첫던가요。 나는뜻지못하였는데。 그러면 멀지아니하여 그亡靈이 나타날 時刻이 되었습니다

하물매 트

城內에서囉叭소리와 大砲의 소리가 들린다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요、殿下。

하물。

오늘저녁은 國王이 밤새는 酒宴을排設하고祝賀하는 盞을 들며 醉함이 뜻이 업도록
뛰고굴러어 限엄시 질겨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이라인 酒의 잔대를 들며 마당 銅
鼓를 울리며 囉叭을 불어 酒戰의 勝利를 祝賀하는 것이다。

호레。

그것이 慣例이옵니까。

하물。

응、 그것이 慣例이다、 그러나 이러한 慣例은 나가타 이나라에서 낮고 이나라
에서 커서 보고듯는 가운데서 자랐지만、 지키는 것보다도 깨달이는 것이 조흔출
생각한다。 이러한일이 東西遠近의 外國사람에게 들려서 酒酣軍이니 도야지니 하
는 唾罵와 嘲笑를 받는 것은 모다 이러한 亂酒와 慣習이 있는 外담이다。 우리 나라 사람
우 비록 이것이 우엄는 盛事라고 하지마는 이결로 因緣하여、 名譽의 精髓를 잃(失)
는 것이다。 이러한일은 한사람의 個人에게도 間間이 있는 일이다。 假令무엇이던지
배속에서가지고난(生) 버릇이잇스면、 곧그사람의 本性이 어셔니어셔니하지마

는..... 그것은 그 사람의 罪는 아니다。 出生은 天然이니 까..... 그러나 그 天然의 惡質이 자라나서 道理의 牆壁을 깨털이고나오던지 또는 어찌한 버릇이 限度에 넘어서, 世上에서 行하는 禮義와 廉恥에 어그러지는 때는 달리 如何한 美德이 있더라도 宿命으로 바다온 이 票跡, 造化가 임한 이 制服을 벗기 前에는..... 아모리 우업는 純潔이 있더라도..... 이 한 點의 欠타르하여 全部의 아름다운 것을 식혀 버리는 것이 다 이리 한 것이 世上의 嘲笑을 받는 것 아닌가。 다 못 分厘의 쓴맛이 들어 섞여나는 단맛(甘味)을 업세게 한다는 말이 이 틀 두 고 이 른 것이 기 내 가 스 스로 나를 毀치는 것이 世上에 常용 잇는 일 이 다。

호레。 저것 보십시요, 殿下。 나라 낫습니다。

(亡靈이 現出)

하물。 한울에게 인모든 善神, 降臨하옵소서..... 내가 비록 聖靈이라고 하던지, 또 惡鬼

라고 하던지 한울의 祥氣를 썩고 왔던지 地獄의 妖風을 가지고 왔던지, 마음이야 착하던지 惡하던지 그와가튼 疑心적은 形狀으로 나라 난 以上에는 무리 보지 아니 할 수 업

는일이있다。나는너를불러『하문례드』나 國王이나 또논아버지라고 부르겠다。아아「델마아크」의皇帝。對答을해주소서이가슴에매친 疑心을풀어주소서。神聖한儀式을다해서皇陵에되신御體가, 어찌하여 蠟으로粧飾한壽衣를벗어났으며 정성을다하여靈柩를奉置한御陵이, 무슨사담으로 무거운大理石의턱(顎)을열어서 父皇을이世上에 남시게하셨는지。어찌한事情이있어서 이미冥界다른父皇이 甲冑투구까지도 틈이안나게입으시고이와가티淒涼한달밤에 사람의智慧로 생각치못할不思議를나타내어 造化의侏儒되는人間을 두렵게하실생각이신가? 말씀을하시요。무슨사담인가。어찌케하면 조홀가……………

(亡靈이하문례드들물든다)

호레。저것보셔요。가티가자고불르시는것가름니다아마도 嚴勸하하실말씀이잇는것이
지요。

아마。보십시오。저처럼 손을들어서 다른곳으로 殿下를誘引하는것가름니다。그러나가
티가시지마셔요。

호레。 決코 가지 마셔요。

하물。 여기서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쌀아가야지

호레。 가지 마셔요

하물。 무엇... 怯날 것은 없다。 이러한 목숨은 바늘과 바둑어도 아깝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魂魄은 서와 가티 업서 지지 아니 할 것인즉 害를 바들싸담이 업다。 또 다시 나들 부
른다。 그러타。

호레。 아니! 殿下、 물가로 스을고 갈는지、 바다로 내던 絶壁에 가서 무셔운 形狀으로 變化

하여 사람의 理性을 빼앗아 마음을 어지럽게 하면 어찌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치 아니해도 千仞의 바다를 내려다 보고 뒤치는 怒濤의 소리만어도 이상히마음
이 어지러워지는 데。

하물。 또 부르신다。 가십시오。 쌀아가지요。

마아。 가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殿下。

하물。 손을 노하。

호례。 精神을 차립시요。 가셔서는 아니 되겡습니다。

하물。 나의運命이나를 부른다。 이 五體의 모든 動脈이 내 마야의 獅子의 筋肉과 가타구더 잇다

아즉 도불러 잇다。 노하라諸君。……

(칼을 썬다 두 사람의 손을 쓸 리 쳐 물리 친다)

妨害를 하면 이 칼로 容恕치 아니 할 것이야…… 물러가 물러…… 자아가 십시다, 쌀아가
겡습니다

(亡靈을 써라 하물네 든들어 간다)

호례。 妄想에 싹을려셔 우리들도 모르시는 모양이다。

마아。 뒤를 쏘츨시다。 命을 쌀아 行할 境遇가 아 납니다。

호례。 그러면「쌀아 갑시다, 나 중이야 어찌 되던지。

마아。 이것은 무슨 덴 따야크 國에 조치 못 할 일이 잇는 것입니다。

호례。 한울(天)이 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마아。 그것은 어찌 되었던지, 뒤를 쌀아 갑시다。

(들이 들어 간다)

幕

第一幕

第五章

高臺의 다른 一部

亡靈이 앉고 하를 데 트 뒤로 쓰라 들어 온다

하물。 어대로 다리고 가십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나는 어우에 더 갈 수 없습니다。

亡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하물。 예예, 들겠습니다。

亡靈。 피러 케타오르는 苛責의 불꽃이 나의 몸을 괴롭게 할찌가 벌성 가짜 위 왔다。

하물。 아아 무서운 일입니다。

亡靈。 暫間 동안 나를 불쌍히 만나기지 말고, 나의 하는 말을 仔細이 들어라。

하물。 말씀을 하십시오, 반듯이 들겠습니다。

亡靈。 들은 뒤에 는 탄 뜻 이 復讎 할 것 을 잊 지 말 아 라 。

하물。 무엇 이 요 !

亡靈。 나는 너 의 아 비 의 亡靈 이 다 。

김 혼 발 적 은 時間 을 타 서 이 러 케 彷徨 하 는 許可 들 어 든 것 이 다 。

褻 姿 에 서 지 는 罪業 이 살 아 서 업 서 지 기 前 에 는 하 로 라 도 火焰 속 에 스 올 러 나 가 지 안 는 때 가 업 다 。

萬 一 에 저 世 上 秘密 을 말 하 는 自由 가 있 스 면 나 의 입 에 서 나 오 는 一 言 半 辭 라 도 너 의 품 에 는 솔 을 어 날 것 이 요 。

너 의 피 스 출 은 얼 음 가 리 얼 것 이 며 두 눈 은 털 과 가 리 눈 자 위 에 서 쫓 어 나 올 것 이 요 。

곰 스 러 진 그 머 리 가 성 내 고 잇 는 고 솟 도 치 의 魂 과 가 리 낫 나 치 이 러 설 것 이 다 。

그러 나 冥府 의 行 事 는 人間 의 귀 에 傳 하 기 어 려 운 것 이 다 。

들 어 라 。

들 어 라 。

너 는 들 어 라 ！ 眞實 도 죽 은 아 비 를 생 각 하 는 마 음 이 懇切 하 거 던 。

.....

하물。 아 아 ! 아 아 !

亡靈。 背天無道の 弒逆 인 怨讎 를 감 하 라 。

하물 레 트 야 。

하 들 무 엇 ! 弒逆 이 요 !

亡靈。 大 武 弒逆 에 들 어 背天無道 가 아 님 이 업 지 마 는 。

이 번 가 트 悖天無道 의 弒逆 은 일 측 이 前

例가엄는것이다。

하물。

至急히仔細한것을말씀하셔요。一瀉千里하는冥想과戀愛하는마음의날개(翼)로 담도、더빨리날아가서復讐를하고말것입니다。

亡靈。

應當그러하겠지。이가티하여도感動이엄스면하잘것업는내사(川邊)에나서空然이살진雜草의鈍한것보다도더욱못할것이다。자아하물레트야仔細이들어라。庭園에서내가잠든동안에毒蛇가와서물어죽였다고말을巧妙하꾸며내어서全國을한가지속이고잇스나참으로이바비를물어죽인 모진毒蛇야말로 그머리우에黃金의冠을쓰고잇다。

하물。

아아!그러면이마음이斟酌함과가타저叔父가。

亡靈。

그러나、亂倫姦淫을이루다말할수업는사람의禽獸가……天賦로타고난姦惡한智慧의사람을惑하는才能을가지고……거트르貞操에돌도업시보이는王后를써여서디더어姦淫에써지게하였다!아아하물레트야이것은그어썬悖德이나!嘉禮의式場에서매진言約을秋毫半點의어김이업시김히사랑하는나를저버리고그가티醜하

고卑陋한대다 마음을옴기다니……아 모리하거나眞正한眞操에는 姦淫이 비록天使의 몸을 빌어 그 마음을誘引하여도 冥에 도움즉이는 일이 업는 것이요。淫婦는 아모리光彩잇는天使를 팔을 지라도 忽然이 淸淨의 臥床에 倦怠가 생겨서 드럽고 腐爛한肉層에 마음을 옴기는 것이다。……아! 벌서 뺨을 시치는 아츰바람。 말을 출여서 약이 하마。 나의 習慣인 正寢(晝)이 지나면 내가 庭園에 잠든 그새를 타서 발자취고 요히 숨어온 너의 叔父가 작은 瓶에서 내 귀에 부은 毒液은 水銀과 가티 五體의 모든血管에 퍼져서 피에 섞기는 그 効能이 譬하여 말하면 乳汁에 醋를 붓는 것가티 鮮血은 忽然 沌濁하여 부들엿고 미끌어운 나의 살이 瞥眼間 墜는 현대 자옥, 문둥병 든 사람과 가티 눈으로 못을醜하고 드러움。……이 가티 잠든 그 동안에 現在에 아우인 그 손에 걸려서 목숨과 王冠과 또 한 후妃까지 一時에 아긴 罪業으로, 罇다 운새에 聖禮도 못맞고 懺悔도 못하며 聖油의 칠도 바름이 업시 머리우에다 만흔 힘줄을 쓰고 判官의 압해신 을 려다니는 그 두려운 일!

하물。

아아!

다. 일술에는 웃음을 섞면서, 웃으면서도 오히려 이와가 른 큰 罪惡을 犯한者 이 이 世上에 있단니! 如何론이 덴따야 크에는 現在의 證據가 여대叔父라는 이가 이와가 른. 인제이 우에는, 貴重한 命을 응. 그러면, 그러면, 아아! 그러면, 나의 이른 말을 잊지 말아라! 벌서 한을에 盟誓하였다.

(이때 호레시오, 마야세라쓰의 소리가 들린다.)

호레. (안에서) 殿下, 殿下,

마아. (안에서) 하물레트 殿下,

호레. (안에서) 한우님우리 殿下를 도와 아줍소서!

마아. (안에서) 아모쪄독!

호레, (안에서) 호오호오! 殿下, 호이,

하물. 아아이! 이리오게, 하아하아!

(호레시오, 마야세라쓰들이 온다.)

마아. 어찌케 되셨습니까?

호레。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물。 참으로奇怪的한 일일세。

호레。 所經歷을 들려 주십시오。

하물。 아니。 그대들은 남에게 말을 할 터이니까。

호레。 저이들은 한을 맹꺾하고 남에게 말을 아니 할 것입니다。

마아。 저도 決코 입밖게 내지 아니 하겠습니다

하물。 그러면 무어라고 할가。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도 못할……그러나 秘密이니 決코 남에게는 말을 말아라。

호레。 한을 맹꺾하여 決코 입밖게 내지 않겠습니다

마아。 이덴마아크가 넓다고 하지만 거기에 말을 더 잇는 惡黨으로 世上에 두려운 大惡人 이 아닌놈이 업다。

호레。 그런 말을 하랴고 亡靈이 일부러 때속에서 나오지는 아니 하엿겠지요。

하물。 응그려타。 정말그려타。 서로疑心적은 일은 그려너 그려너 할 것이 아니라 서로掘

手나 하고 안호는 것이 第一 조흔 일이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찌나 하여도 各々 自己의 할 일과 慾望이 있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의 方向으로 나아가 힘쓸 것이요…… 또 나는 내 方面으로 가서 차야 들어가서 筋腦나 하지。

호례。 殿下의 뜻을 이가리 不信 하실 수가 있읍니까。

하물。 다 음에 설명 하 거던 容恕해 주게。 으응, 眞精으로 바라는 바이니。

호례。 무엇이 마음에 거러 쓰는 것이 있읍니까。

하물。 야니, 잊지 聖者께서 크도 내 덕나 보지 마는 그야 말로 至極히 두려운 일이 있다。 야 싸여 과거나 라 난 幻影은 正而한 亡靈이 있었다, …… 라고만 말해 두자,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나 하는 것은 듣고도 실지 마는 될 수 있는 대로 참아 다고。 이것은 선 말이 지 마는, 그대들은 나의 親友로써 한 사람은 學者, 또한 사람은 軍人이다。 그런대 한가지 나의 願을 들어 주지 안홀나가。

호례。 무슨 일인지요。 들려 주십시오。

하물。 오늘 저녁에 본 일을 누구에게던지 決코 입맞게 내지 말게。

호래() 殿下、決코입밧게내지안켓습니다。

하물。 아니盟誓를하계。

호래。 한우님을두고盟盟합니다。

마아。 저도한우님을두고誓盟합니다。

하물。 나의칼에전주어。

마아。 벌써盟誓하고잇습니다。

하물。 정말이칼에전주어서도。

亡靈。 (地下에서)盟誓해라。

하물。 아아, 그러치, 당신도그리케말슴을하시는가거귀에잇습니까。 正直하신이여。...

...그대들도地下에서한는소리를들엇는가...자아速히盟誓를하계。

호래。 그러던正文을 말습해주시오。

하물。 그대들이본바를決코입밧게내지안켓다고, 나의칼에전주어盟誓하계。

亡靈。 (地下에서)盟誓해라。

하물。

여기서 적과서인가, 그러면地面을 바꾸어보자이러오게。 그대들은 그러고 내칼에 손을대여서, …… 그대들이들은바를決코 임박게안된다고 나의칼에다견주어盟誓하게。

亡靈。

(地下에서)盟誓해라。

하물。

아아, 또난다, 土龍님! 당신은그처럼부히쌍속을단입니까。 훌륭한工兵이다그러면또한번자리를옮겨보자。

호래。

그것참이상도스럽습니다。

하물。

그러니하물느는척하고 들어만두는것이 조차호래에서오 아한울과쌍사이에는, 그대의哲學이 쓸에도생각못할것이있다。 그러나 또이러오게。 여기에서前과가터決코아니하겠다고……. 그러케하면幸福을맞겠지……. 그래서내가이상한性質로變할境遇에, 어색한奇怪妄想의질을하더래도, 그씨팔장을이러케쓰기도하고, 이러케머리를부리치더래도, 어색한疑心적은文句를짓거리더래도, 「을치을치 나는안다」라던지, 「말을하라면할수가있다」라던지, 「말이하고심호면」이라던지, 또는 「말

을 해서 조흔것가 트면 이라던지, 그럭한 腰膝한 말을 하여 노해서, 一身上 일을 말해
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러한 것만 아니 하면, 그대들이 緊迫한境遇에 반듯이 神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자아 盟誓해라.

亡靈。
(地下에서) 盟誓해라.

하물。
安心하시오 마음을 燥急히 마시고

(兩人이 칼자루에 接吻한다)

인제는 나도 眞情을 다 하여, 그대들에게 감동이 있을 것이다. 하물레트가든 凡夫라도
朋友의 信義를 다 할 수 있는대까지, 한우님이 許諾만 하면 반듯이 어김이 없을 것이다.
한가지 宮城으로 들어가지오. 응응. 입에 손을 대이고…… 밋는다(엎을 보고) 世上關節이
어거러졌다.……. 이어 兇惡한 因緣인고 나는 이 러한 일을 곳치라는 任務를 띄고 이世
에나왔다! (兩人을 對하여) 아니 자아 한가지가자.

(하물레트와 두사람 뒤를 따라 들어간다)

幕

— 第一幕第五章……… (終) —

(第一幕全部完了)

第二幕

第一場

쇼로 오니아쓰邸宅의 一室

쇼로 오니아쓰와 그部下에 두이난들어 온다。

쇼로。 이돈과이便紙를子息에게갓다주게。

레에。 命令대로하겟습니다。

쇼로。 子息능을 차자보기前에, 먼저 그行動을잘調查하여야하네。

레에。 처도그리케하랴고생각합니다。

쇼로。 으응, 그러치 그래야지. 알아잇나. 第一 먼저 파리에는 어찌한場다아크사람이

사나하는것을알아야한다. 어찌한곳에서 무엇을하고잇는지 어대뭇으로고잇는지
어찌한사람들과交際를하는지, 얼마나費用이드는지. 그런것을 直接으로 말고問

接으로 무려보치, 그럭서 말하는 사람이 子息놈을 아는줄알거던한층더仔細하게 「나는 그父親과 그친구들도알고 또 本人도죽음………」이라고해서 子息놈하고는 죽음顔面만잇는것처럼하지……알아잇서?

레에。 알겠습니다。

으로。 「대강은알지마는 仔細이는알지못하지요」하고「그러나, 내가말하는그사람은아주 난봉이지요, 이러케이러케하는것이 그사람의消日이지요」이런말을할부르도입에 서나오는대로삽어터는것도관계찬치。 그러나 그애의名譽를損傷할말한말은 注意하지아니하면 아니되네그러치마는 젊은青年의自由로운마음으로 一般이하는것 假令如干放蕩하다던지, 亂雜하다던지, 얹전치못한 그러한것은 關係치아니하니 假令雜技가튼것을하더래도……。

으로。 으응。 술을먹는다던지, 칼作亂을한다던지, 言論을한다던지, 싸움을한다던지, 또는계집질을한다던지, 그러한것은 죽음식하여도관계찬치。

레에。 그러한것은 不名譽가되지아니합니까。

셔로。

무엇, 不名譽될 것이야 있나。 그것이 자네의 手段如何에 있는 것일세。 그러니까 그렇게 欠談은 假令淫物이라던가 그러한 말은 決코하지 않게 그것은 나의 本意가 아닐세。 다 시 말하면 그애의 過失을, 들이어 自由이라는 名稱下에서 血氣方盛할 때 恒用하는 마음의 發動, 찬찬치 못한 젊은氣運의 북바치는 것, 누구나 다 認定할 만한 그러한 것은 鼓吹를 시켜주게。

레에。 그러치마는 大監。……

셔로。 어찌이런 말을 하는가고 내게 무슨 말인가?

레에。 그것을 듯고 자합니다。

셔로。 다른 것이 아닐세。 나는 스스로 天下의 妙計라고 생각한다 卽 比較하여 말하면 製作

中의 物品은 죽음식홀이 있는 것파가라 자네가 子息놈의 欠口만 하면, 으응, 알아
있서, 자네에게 말하는 사람은 신이나서 現在의 探問이라고 하는 사람의 압해서 말한
젊은귀운에 잘못을 犯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반듯이 자네에게 脾胃를 마추어, 아마
이러케 되겠지。 「아아여봐라」라던지 「여보」라던지 「여보십시오」라던지 그것은

身分이나 또는 그나과 風俗에 알으겠지。

데에。 고렸습니다。

선로。 그런데 그 着가 말이야。…… 그자가…… 내가 무어라고 꼭 하라고 하였는데……

우어…… 내가 무어라고 했던가?

데에 「반듯이 자네의 脾胃를 마츠어」…… 「여봐라」라던지, 「여보라던지, 여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선로。 어아, 울치 울치。 「바듯이 脾胃를 맞쳐서」라고 했지, 올라 말하는 사람이 이러케 하

겠지。 「그양반이면 압니다。 어저께 도 맞났습니다。 요전에 도……」 그리고 「이러

이러 한찌에도」라던지 이러이러한 사 람을 다 리고」라던지, 또는 자네가 말한 것 가 리

「雜技를 했다」던가, 「亂醉를 했다」던가, 「레니 쓰를 하다가 싸움을 했다」던지 또는

「어찌 한 賣店에 들어가 는 것을 보 왔다」던가…… 라고 하는 것은 賣淫女의 집 말 일

계…… 그런 말을 꼭 할 터 이지。 어찌 그 만 하면 알 겠지。 그것 미 씨로 참 잉어 틀 나

가 올린다는 말이 잇지。 이러케 우리 들이 智畧이 만코 遠謀가 잇는 者는 언 제 던 지 들너

대는 것이 말흔 것이다。 이것이 間道로 들어가 本城을 뺐다는 것이다。 자네도 내 말과 가타 그러한 方法으로 子息놈의 內情을 探問하게。 알겠나, 그만하면。

태에。 알았습니다。

쇼로。 그러면 無事하단여 오게。

태에。 大監께서도 안녕하게십시오。

쇼로。 자네의 눈으로도 子息놈의 經過를 잘 보고 오게。

태에。 그러케 하겠습니다。

쇼로。 그리고 그에게 제마음에 드는 形色을 내게 하게。

태에。 그러케 하겠습니다。

쇼로。 그러면 잘 단여 오게。

(태에 난드어 들의 잔다)

(오 꿍리야 들어 손다)

왜 오 꿍리야야? 무슨 일이 냐?

오회。 아아! 아버지! 아버지, 아무무셔워요!

선로。 왜 무슨일이냐?

오회。 아버지, 재방에서 밤느릴하고 잇스라니, 아하를레트殿下가 오셨는데, 저코리는

풀어허털여 가슴은 내노코, 帽子도 쓰지안코, 구두버신은 흠루성이고, 끈은 풀어져
발뒤굽치에 질질 싼을며, 얼굴은 사쓰, 빗과가티 해속하여서 무릎을 탁탁 마추치며, 사
람을 놀래라고 地獄에서 빠져나온것가티 가엾은 모양으로………: 제압호로。

선로。 아마내게 戀愛의 물김으로 發狂이 된것이ぢ。

오회。 어째 그런지 모르지요마는, 確實히 그러한지근심이 되어서요。

선로。 그래, 무어라고 하시더냐?

오회。 저의 손목을 꼭 쥐실채, 팔이 썩칠뻔까지 몸을 뒤로 두시고, 선손으로 이마에 언고
肖像이나 그리실것가티 재얼굴을 썩히 드려다 보시다가 나중에는 재손을 족음뿌리
치며, 머리를 일으켜 들었다속엿다하신티에, 몸이 부서지고 숨이 넘어갈것가티, 臂
髓에 매치는 깊은 嘆息을 하십디다。 그것이 지나니까, 겨우 재손을 노코어애넘어, 로이
쪽을 건너 보며, 보지아니하여 도길을 아시는것가티, 논의 도음을 빌지안코, 나가버

럽다나나 총까지 저를 보면서 그대로……

으로。

자아。나 하고 한 가지가서。陛下께 拜謁을 하지 안 하면 안 되겠다。이거야말로 정

말 사탕에 미친 것이다。大抵天下에 어찌 한情念이던지 人性을 損傷치 아니 하는 것은

엄지마는, 이 戀愛의 極激한 熱情은 몸만 亡칠뿐 아니라, 잘못하면 그 마음을 무서운

計劃에 스을 수가 있다。아아。가엾은 것이다。그런데 요지음에 무슨 無情한 말이 나

한일이 없나?

오회。

아니오, 아모 말도 한일이 없셔요。아머 지에서 하신 말씀대로, 온편지도 돌려보냈고, 또

맛나지 않다는 것도 拒絕한 일은 잊었셔요。

으로。

그것이 發狂된 原因이다。매우 注意하고 剝斷해서 그씨의 舉動을 잘 살피지 아니 한 것

이 잘못이다。暫間한 썸의 戲弄으로, 너를 썸이라 고하는 줄만 알고 염녀 한 것이……

아주 잘 못된 생각이 업섯다。아아 失敗다。어썸쩨지 Һ은 사람의 지나친 생각과。젊

은 사람의 分別업는 일은 이世上에 恒用잇는 일이다。자아 陛下에게 자아 것은 아모래

도 奏達치 안하면 안 되겠다。이냥 秘密로 두고 보면 奏達해서 밝는 미움보담도 감추

어 밝는 Һ음이 더 커질는지도 모르겠다。

(두사람이 들어간다)

第一幕

第二場

城中的一室

羅臥 소리와 한 가지 國王, 王妃 延臣 로 오 셴 크 란 스 다 안 及 侍臣 若干 이 나 온 다

國王。

아아, 잘왔다。 로 오 셴 크 란 스, 킬 렌 스 타 안! 以前부터 좁블야 고 도 하였것니와 그
외에付托할말도잇섯는外 닷이다。 암아 所聞을 들어서 도알겓지만, 近來하, 들레트
가發班을하여서 그外貌와內心이 以前가튼痕跡은 좃음도볼수가업다。 이, 와 가리
自己의 理智를일케된것은 그父王의들아간以外에는 무엇이쓰잇는지 내가夢想에
도알길이업다。 너이들에게付托하는것은 곳이일이다。 어릴적부터 거처자라났으
니그애의心情도잘알것이다。 얼마동안여기에 머물너 가外이相從을하여, 慰勞하
는말노 그애를달내어 朕이아득알지 못하는것을 알게하면治療할方便도업지아니

할 것이다。 그애의苦悶하는原因을, 탐이잇거던探知하여다고。

王妃。

오오, 그대들, 그대들을 하틀레트, 가 세세로 잇지안코이악이 하는것을보니싸그
대들과가리 王子와 마음이 맞는사람은 이세상에서들도업는것장다。 오래동안宮中
에머무러 우리들의바라는바를成就케하여 禮儀와精誠을다하면 이번參內는 國王
의感謝에相當한報酬를받게하리라。

로오。

兩陛下에올서는 臣等의우에臨하시사 無上의大權으로써, 御意에잇사오면 嚴命
의處分을내리오시는것이可하옵서겨를 付托이라는處分은 惶恐無地이옵나이다。

길덴。

惶恐하오나 臣等兩人이 處分을받차와 賤軀를바치고 誠力을다하와 陛下의天意
에 구김이업도록하겠삽나이다。

國王

朕은卿等에게 感謝의뜻을 表하는바이다。 로오, 션크란쓰, 길덴스다안。

王妃。

코마운말이다。 길덴스다안, 로오, 션크란쓰, 그러면只今이라도 變換그몸이뜻업는
王子를가보아라고 자아! 누구던져 이내들을 하틀레트에게 案內해드리라。

길덴。

한우님오, 願은대 우리들로하여곰 參進과忠勤이 王子陛下의嘉納이되어 復本의

一助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王妃。

아아, 한우님요。

로오센탄크스, 칼렌스다안, 數名の侍臣을 설야들이간다

선로오니아스, 들어온다。

선로。

아뢰옵내다。陛下께。使臣이 吉報를담아 노을워이로부러 歸國하엿습니다。

國王。

卿은언제던지 吉報만傳하는함이이다。

선로。

臣의말씀이오니아? 惶悚하오나 神明에盟誓코 臣은 神明에對한本心이나 陛下
께바치는本意이나 그職分을지키는衷心은 靈魂을지키는것과 죽음도 들림이업
습니다。그런외답에 探問해낼것습니다。……………그러치아니면 臣의이頭腦는별
서只今과가리 計策의痕跡을 마(嗅)라낼수가업게되엇습니다。……………아니確實히
하플레트殿下의氣狂하신理由를發見하엿습니다。

國王。

아아! 速히알려라고 그것을 들。라고 기다린지 오캐이다。

선로。

먼저 使臣을謁見하는處分을 내리옵소서 臣이奏達하라고하는것은 큰잔채뒤에나

오는 입가슴의 果實과 가튼 것입니다。

國王。

그러면 卿이 모든 節次를 차려 使臣을 이리 불러오게 하여라。

선로오니야쓰, 들어간다。

카아쓰루우드, 王子의 亂心의 源因을 모다 안 것가더。

王妃。

글세 오니外 疑心스럽습니다。老翁의 말이 라도 正녕코 그父王의 崩御하신 것이라

던지 쓰는 우리들의 急히 結婚한 外 닻이라고 하는 것이 아 마 큰 理由 것지요。

國王。

으음! 그런지 저런지 두루 보아야지。

선로오니야쓰, 불린만드, 고오내라야쓰, 의 두사람을 다 리고 들어온다。

卿等은 無事히 歸還하였나。 불린만드야, 그래서 저 노을뵈에 王의 回答이 무어라

고하던가?

선로。

鄭重하신 回答, 처음 陛見에 公使臣을 보느시사 姪王의 出軍準備을 中止케 하셨습니다

다。 그것은 또 오란드를 征伐하라는 出만 생각하셨던지 여러가지로 訊議하신 結

果 陛下에 反意를 가진 것인 줄 아시고 크게 놀라시며 老病이 自由가 업는 外 닻이라고

며 밤은 밤인지, 새벽은 새벽인지 하는 것을 論議함은 다 뜻밖이나 밤이나 새벽을 空然히 虛費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을시다. 그러함으로 簡潔이라고 하는 것은 智慧의 心髓요. 張皇이라고 하는 것은 手足 또는 外形을 虛飾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臣은 極히 簡潔하게 이 말씀을 奏達하라고 합니다. 王子殿下의 御狂氣는 果然 狂氣라고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오면 미려 狂氣의 定義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畢竟 狂氣와 가른 行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라고도.....

王后。 아니 말의 色彩를 꾸미는 것보다도。 必要한 事實을。

으로。 皇后陛下 唯 小臣이 虛辭와 空言을 아뢰오려까。 王子가 氣狂하신 것도 事實입니다 眞情으로 가엾은 일입니다。 가엾다는 것이 事實입니다。 아니 鈍한 文飾。 그것은 그 만두고라도 인제는 卒면다는 것은 除例하고요。 第一 氣狂하셨다고 假定하고, 남 아잇는 우리들이 그 結果의 原因을 發明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或은 그 缺陷의 原因이라고 하는 것이 當然이라고 하을는지요。 何故이냐고 處分을 내리시면

그가 틈缺陷만흔結果는 果然因原이 업고는 날것이 아니올시다。 이러한 것이 곧 아뢰(奏)고 남은 것으로。 곧 남아지의 한條件은 이러하옵내다。 特히 御賢察하옵소서。…… 臣에게 한말子息이 잇습니다。…… 그것은 手中에 잇슬때의 일……

그년이 孝順의 마음으로。 들어주시옵기를。 이 글을 臣에게 보이엇습니다。

바라옵건대 洞燭하옵소서。

라고 艷靨를 내어 의는다。

『天使와 가리 생각하는 나의 魂靈의 偶像 우업서 艷麗한 오휘리야요』…… 이것은 凶惡하다。 濁하다。 濁한 文句다。 『艷麗한』 이라고 한것은 략한글귀다。 何如 큰그 뒤를 들어 보십시오。 이러합니다。

라고 쓰입니다。

『그대의 보들어운힌 가슴에 이가튼 노래를 如斯如斯히』

王妃。 그것이 저어 하물레트가 오휘리야에게?

선로。 陛下 暫間만 잇는 그대도 아뢰(奏)겟습니다。

라고 쓰입니다。

별에 빛업다고 생각은하여도、

해는 맑은다고 생각은하여도、

참을거짓이라 생각은하여도、

내게慈愛업다 생각지말아라

可히어셔셔고 잊지 못할 오휘리야야 나는글字를모으는데才操가업고 字數를채워

노래부르는대長技가업다。그러나 그대를사랑하는마음이야말로 汲고汲고, 우업

시집흔술을더더다고그러면」

『이치지못하는 나의사랑에게 이形體가잇슬동안에는 永遠히 그몸에잇슬하
블레트』이글을 女息이 命令대로 臣에게 보이엇습니다。그뿐만아니라, 어
셔한때에 어썬곳에서 어셔한말을한것까지 죄다알고잇습니다。

國王。 그래 거기에對하여 오휘리야의行動은?

으로。 臣을어셔한人物로 洞燭하시는지요?

國王。 誠忠이 兩全한 名譽 있는 男兒로、

으로。

그러케 되고 싶습니다。 그러타고 어셔케 洞燭을 하옵시는지요。…… 臣이 激烈한戀 愛의 날애(翼)를 볼 때에…… 이것은 미리 奏達치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나…… 女 息에게 듯기 전에 特히 그러한 舉動을 보기는 하였사오나…… 어셔케 洞燭하실는 지 陛下께서나 皇后陛下께옵서。 그럴 때에 臣이 冊箱실합이나 帳簿와 가리 萬一 에 눈을 던 것이 감고 아 모 말 업시 보고 만 잇섯더면…… 어셔케 兩陛下께옵서는 생 각하시겠삽니까? 아니 臣은 窺着手 하엿습니다。 이 러한 말을 女息에게 일 렷습니 다。

『하를레트殿下는 王子이시다 너하고는 身分이다 르신이다。 그런일이 잇서서는 못될 일이다』라고 일러 듯기고 殿下가 出入하시는 곳에는 몸을避하고 使喚을 멀리 하 며 下賜品을 맞지 말라고 일는 結果 女息은 그 말을 알아 김 업시 지켜 왔습니다。 그 래서 殿下는 背反을 當하고…… 簡單히 아 되오면…… 悒鬱에 세졌섯고 떨어져서 斷 食、 不眠、 떨어져서 衰弱、 거기에다 또 傷心을 하신 外 님에 自然의 形勢로 漸漸 그것

이더하여 只今이러한 狂亂의 地境까지 이르러서 上下一同의 愁嘆의 餘려가 된 것이
옵니다。

國王。(妃를 보고) 거기도 그러케 생각하나요?

王妃。정말 그런 듯도 생각이 듭니다。

으로。臣이 自進하여 어찌한 일이던지「이렇라고」奏達한 것에 그 뒤에라도 그러치 아니 한
때가 한번이라도 있고만 보면 그것을 들려주시게 합소서

國王。그것은 나도 記憶치 못하겠는데。

으로。(自己의 머리와 어깨를 가리키며) 萬一를 믿어 잇삼거던 이것을 取하십시오 차질만한
方法만 잇삼거던 어대 眞理가 숨어 잇는지, 비록 地球中央에 잇더라도 차자내셔서
보이어 드리겠읍니다。

國王。그런 以上에는 어찌하였던지, 眞否를 試驗하여 보지 아니할 수가 업다。

으로。아시는 바와 가리 殿下께서는 卽때로 여러 時間을 거니십니다。

王妃。정말 그러케 단입니다。

셔로。 그럴때에 女息을 殿下압호로 보내옵시다, 그래서 陛下와 臣은 垂帳뒤에 숨어서 맛

나는 模樣을 보십시오。萬一에 女息과 戀愛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글로 因하여 그 마음
이 어지러이 되지 아니 하셨스면 臣은 이 職官을 辭免하고 農村에 들어가 百姓이라 도
되겠습니다。

國王。 如何 큰 試驗을 해보지。

王妃。 그런데 보십시오 저 거에 불상한 本人이 해속한 形體로 무슨 冊을 보면서 옵니다。

셔로。 저 쪽으로 나십시오。 곳말을 누려 보십시오。

國王 王后、從者等 들어간다

아아 容恕하십시오。 하, 들레, 트, 殿下 問安을 들입니다。

第二幕

第二場 (前號續)

하물。 아아、無事이 잘잊지

셔로。 臣을 아시엿습니까。

하물。 매우 잘 알지。 고기장수지。

셔로。 아닙니다 殿下 고기장수가 아닙니다。

하물。 그래! 그놈만치 正直한놈이 되고싶다。

셔로。 正直한놈!

하물。 그러타。 正直하다고 하는놈은 이世上에는 一萬사람가운대 하나뿐이다。

셔로。 그것은 참眞理입니다。

하물。 (쉬면서) 何故이냐하면 환늘에서 비치는 밝은 해나 빛이라도 실음업시 썩은

고기에接觸하면 죽은개고기에서 구덩이가나듯이……」그대에게는 쌀이있다。

선로。 잊습니다。

하물。 太陽뻘을쏘이지아니하는것이조타。事物을아는것은 조처만은 계집아들이라고

하는것은잘못하면 空然한쓸대없는일을 알게되니까그저注意하는것이 必要한일

이지。

선로。 (엷홀보고) 무슨말씀을그리케하시는지。 아직도쌀뉘를생각하고계시는것이로군。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시고 나를고기장수라고하셨다아니마음에 골돌하신모양이다。 그런데 처음은 나를모르시고 고기장수라고하셨다。 아니매우갑히 홀리셨다나도젊을적에 戀愛로 非常한苦楚를當한일이잇섯다。 아마도이와가뺏겼지。 한번더 말씀을해보겠다。 무엇을읽고 계십니까? 殿下。

하물。 말이다, 말이다, 말이다。

선로。 무슨일입니까?

하물。 무슨일이라니 누구와누구가。

으로. 아나殿下의 읽으시는 것이 어찌한 것인지요. 하는 것이 옳나다.

하물. 險談이다. 입버릇고약한 사나이나나 이아러께 말을 했다. 老人은 灰白色의鬚髯은

가지고그얼굴에는 주름살에다 눈으로부터 濃厚한琥珀色의 복숭아松진 흘린다

고런대智慧는夥多히缺乏이 되고, 또 무릅은 가장弱하다고 하였나. 이것은 다그른

것이이나 이 처럼正直하게 써두는 것은 안될이겠지. 왜그러냐하면 그대라도 게

(蟹) 모양으로 걸구로서면 나와가튼나이 되나와.

으로. (엽홀보고) 미친사람의 말이라도 理致에는合當하고. 殿下 이러한浮世를 좀

써나시는 것이 어쩔가요?

하물. 그러면 두덤속으로 가란말이지.

으로. 정말 그야말로 浮世를 써나는 것이겠지요. (엽홀보고) 가슴가다가 써써로神히한

對答을하는데. 或時は 미친사람이 훌륭한對答도하는일이있다. 生時나精神날때

는저처럼確實한말을하지못하는것이다. 인제는이자리를 써나서 意外로女息하고

맛나게할手段을들어야지. 殿下惶悚하오나 인제는들어가겠습니다.

하물。 음。 그처럼하고심히선 듯견덕는것은엿섯다……더욱이나의 목숨은뽕것이냐

숨은목숨은。

쇼로。 이제 물러갑니다。

(쇼로 오니아스 들쳐선다)

하물。 경치게추근추근한 자식이지

(로오천 크란츠와 켈렌스다들어온다)

쇼로。 하물레트殿下를차지시나? 저쪽에계시네。

로오。 (쇼로 오니아스를보고) 安寧하옵시니까。

(쇼로 오니아스들어간다)

엘렌。 殿下!

로오。 皇子殿下。

하물。 오오親友諸君。 이썬일인가 칼덴스다안, 로오천 크란츠, 들이다無事히잇섯던가?

로오。 그저世上사람과한가집니다。

엘덴。

幸福에 지나지 못한다는意味에서幸福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運命의神의帽子를 부
린단추는 아니올시다。

하물。

女神의신바닥은아닌가?

로오。

그런치도아니합니다。

하물。

그러면꼭女神의腰部에當하는 惠澤의中央이라고 할 수 있네그려。 무슨滋味스러운
이야기는업는가。

로오。

아모것도업습니다。 다맛世上이 正直해졌다는것뿐입니다。

하물。

그러면숫날이가짜와진것인가。 그러나그것은거짓말이다。 내게도더仔細하게들려
다고 大體무슨일을하기때문에 運命의神의손에서 이러한獄中에있게된것인가?

킬덴。

獄中이라니요 殿下!

하물。

덴마이크는監獄이다。

로오。

그러면이世界도。

하물。

홀륭한監獄이다。 거기에는收監所도있고 普通監獄도있고 또 구멍獄(穴獄)도있다。

덴마야크는 그中第一凶惡한것이 하나이다。

로오。 저이들은 그리케까지 생각하지아니합니다。

하물。 그러면 그대들은그러치아니한것이다。

로오。 그러면殿下의큰바람(大望)이 그러케생각을들게하시는것이올시다。 이곳은殿下

의마음에比해서넘우 좁은가합니다。

하물。 아아 한우님은 그惡한꿈만업섯스면 胡桃섬질속에 치박혀서라도 無限의空間을

支配한다고 생각할수도잇는것을)

킬덴。 그惡한꿈이곳 큰抱負이올시다。 라고하는抱負의實質이라는것이 實狀은單純한꿈

의그림자인外답이올시다。

하물。 꿈이라는것도 이미그림자가아닌가。

로오。 참그렇습니다。 저는크게바란다고하는것이기거의업시。 가벼운 그림자의또그림

자가리 생각합니다。

하물。 그러하면 저乞人들이、本體로 君主나멀러손을내미는英雄들은 乞人の그림자인

것이 지인 제宮中으로 도라가지 안호라는가。 나는 인제問答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면 되시고 가겠습니 다。

로 오。
킬 덴。

친만에。 나는 그대들을 나의 다른 臣僕과 가리 하기는 실라。 正直하게 말하면 나는 발

서 두려워할 만치 侍奉해 잇는 것이 過한 外 닻이다。 그러나 한 친구로 아라 體面 없시
못는 것이 니엘 시노 오아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로 오。

殿下 問候 하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 댕게는 아모 것도 없습니 다。

하 물。

나는 乞人의 身分이니 外 謝禮할 무엇은 없스나 그러치 마는 그대들 에게 感謝 한 뜻은 表

하지, 그리고 정녕 感謝 이 여기는 것은 족음 넘 칠는 지도 모른다。 그대들은, 마자 (迎
덴)은 일이 잇지 아나 한가。 조의 서 차 차 온 것인 가。 全然 이 任意 의 訪問 인 가。 자아 날

을 正直 하게 만드려 다고。 자아。 말을 해 다고。

킬 덴。

어 썩 케 말 습을 사 루면 조 홀 가 요。

하 물。

자아 아 모 러 커 나.....오 직 要 領 만 썩 서。 그대들은 불 러 온 것이 지。 그대들의 얼 굴 에

는 그 正直 한 形 跡 이 감 추 기 어 러 운 自 白 의 빛 이 나 라 난 다 兩 陛 下 에 서 사 람 을 보 낸 것 가

더 보인다.

로오。 무슨 외담에 그리합니까!

하물。 그것을 내가 뜻는 것이다。 여보게 로오센 크란쓰、 칼덴스 다다안! 빗된信義를 생각

하고 한가지자라난 이럴적부더의友義를 잊지말아 永遠이竹馬古友의情誼、雄辯
가가이말以上으로더말할수잇는信義를생각하거던 감춤이업서 그참된것을일너다
고。 마저(迎接)왔는지그러치아니한지。

로오。 (엽홀보며칼덴에게)무어라고하나。

하물。 (엽홀보며)아니그대들이그러한마음이잇거던……(칼덴에게)眞情이잇슬것가

트면 감추지말고。

칼덴。 殿下。 其實은마지러온사람이잇섯습니다。

하물。 仔細한것을내가말하지。 그러던그대들이白白한것도막을수가잇고 또兩陛下께

盟誓한義理도 秋毫나損失되지아니할것이다。 나는近來…… 무슨외담인지알수는

업스나…… 모든歡樂을일코 원강遊戯를廢해버렸다。 참으랴야참저못할憂愁가이

가슴에鬱結해서 地球라고하는이홀륭한큰組織도 내게는寂寞蕭條한無邊大海의섬
 모퉁이갓다。이한을이라고하는아름다운天蓋도 저어저를壯麗한穹窿도黃金의불
 쫓으로뿌린雄大無雙한碧空도…………果是나의눈에는 오직드립고추한毒瓦斯로
 채운場所로맞게보이지안는다。사람은이어쎌造化의妙工이고…………理智는優秀하고
 能力은限이없다。姿態라던지動作이라고하는것이이어쎌美妙며이어쎌崇高인
 가그行動은天使와갓고그理解는神人과갓다。세계의美粹萬物의靈長이더한
 人間이내게는오직되솔과갓다。깃불도업고반가움도업다。계집도그러하다。아
 나그대들은웃으면서계집이면…………하겠지마는…………。

로오。
 그러한생각은秋毫도업습니다。

하물。
 그러면내가「계집도그러하다」할적에왜우셨나。

로오。
 아니殿下께서는깃불도업고반가움도업다고하시면어쎌한가업는待接을俳優들

이바들은지모릅니다。저이들은길에서그네들을맞나보고왔습니다。殿下의부르
 심에應하여오는途中에서。

하물。

王의 따름을 잘하는者이 면 歡迎하지。 그 王國 俳優에게는 내가 貢物을 하지。 冒險을 조하하는 騎士의 俳優에는 갈과 말과 馬를 두르게 하고 人情 俳優에게는 無報酬로 울리지 아니하지。 險한 것을 맞는 俳優에게도 鎮靜하게 되도록은 시킬 것이다。 웃음 쓰러 俳優에게는 손가락만 흔들어 웃고 심흔녀석을 실컷 웃기지。 그리고 女形 俳優에게도 마음에 잇는대로 自由로 劇白을 하도록 할 터이야。 그러치 아니하면 劇白의 語調가 고르지 못할 것이니야。 그런데 그 俳優는?

로오。

以前부터 愛護하시던 都會의 悲劇 俳優입니다。 시골로 왜 갔던가? 都會地에 잇는 것

하물。

이 그 名譽上이나 利益上에 나홀 것인데。

로오。

近來의 이 改革으로 都會興行을 禁한 것 같습니다。

하물。

그네들의 評判은 내가 서을 잇을 썬 외가 더 다름이 업는가。 한가지 歡迎을 만히 바다。

로오。

아니요, 아주 달라졌습니 다。

하물。

어썬서 달라졌나。 말서 自暴心이 생겼나。

로오。

아니요, 努力은 언젠지 繼續하고 잇습니 다。

그러나 近者에는 兒童演劇이 一座가 일어나서 세 끼가 타 大膽한 劇白을 하기 때문에 더 질 것 같은 歷迎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이 只今の 流行이 되어 鵝筆로 치는 것을 두 려워하여 좀처럼 在來의 演劇에는 발을 드려 보지 아니합니다。

하 물.

무엇이야? 兒童俳優다。 누가 그 團體를 繼續하여 가나。 給料은 얼마나 되나。 그 者들은 은척소리 날때나 장사를 繼續하게 되겠지。 萬一에 別다른 무슨 方法이 업고 보면 그 者들도 普通俳優가 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걸……. 그러케 되는 날에는 남에게 하는 險談이 自己의 뒤를 짊을 것인데 作者들은 그들이 自己가 自己로 불친다고 말들을 하 지 않는 모양인가?

로 오.

정말로 雙方이다 爭論이 激甚하였습시다。 그것을 世上사람들은 그것을 滋味로 알고 여러 가지로 使噓하고 있습니다。 글로 된 하여 할때에는 作者와 俳優 사이에 論하는 一段이 업스면 그 作品이 팔이지 아니한다고 쓰지 하였습시다。

하 물.

실마그를 理가 잇슬라고。

켈 덴.

씩씩로는 서로 주먹질까지 날이 날적이 있습니다。

하물。少年들이이것나?

로오。네에, 이것습니다。하아, 쿠티쓰, 도所領과한가지降服하고말았습니다。

하물。그것도그처럼不可思議는아니다。叔王이덴, 마, 아, 크, 의, 왕이되니까。父王生存時에

는구지맴다고하던무리들도 叔父의分付한肖像畫들或은二十金、四十金。乃待五十金、百金까지도아찌지안코사가는者이全般이다。이야말로哲學으로서探知할수가잇스면 自然으로超越한무슨理由가잇는것이지。

(안에서盛大한囉臥소리)

칼텐。俳優들이올시다。

하물。아니그대들이엘시, 노, 오, 아, 에, 잘, 왔, 다。자아, 握手를。이歡迎하는대부러단이는流行

의것도되고 禮式도되는것이다。그대들과이리케해두지안으면 俳優들에게도行動이……이것은其實어찌던지情답게해두지안으면안될것이니까……그대들에게待遇하는것보다도 耐잘보이면아니될것이니까。아니, 잘, 왔, 다。그러나 叔父인父親, 母親인叔母도大端한誤解이다。

킬렌。 무엇이 그러십니까 殿下。

하물。 나의 狂症은 北西北風이다。 南風이 불어만 오면 매(鷹)와 해오라비(鷲)를 分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셔로 오니 야아 쓰들여 온다)

셔로。 아하 이 두분 無事히…………。

하물。 (셔로를 말니 보면서 두 사람에게) 아아 킬렌스다안。 너도, 로오켄크란스, 暫間 커를

벌여라 저기 잇는 큰어린 아이는 아주 襤褸를 썬나지 못했다。

로오。 아마 두 번째나 襤褸를 썬나지 못한 것이 저요。 늙으면 다시 어린 아이가 된다니까요。

하물。 정녕코 俳優가 왔다는 것을 通知 하러 온 출로 생각은 하나 들은 데만 태해………… (일부

로 無心한 態度로 두 사람을 다 리고) 올치, 그 말과 가타 月曜日 아침。 정말 그랬지。

셔로。 殿下。 사퇴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 殿下。 사퇴할 말씀입니다。 넷달, 롯슈우스가 羅馬의 俳優 되잇을 썬에…………。

셔로。 俳優들이 왔습니다。

하물。 썬스, 썬스, 1 썬스!

쇼로。假令……………。

하물。俳優가各各나귀를라고서와……………。

쇼로。世界의名優입니다。悲劇에도、喜劇에도、劇에도。牧的喜劇이나、史的牧劇이나

悲史劇이나、悲喜史牧劇이나、場面을變하지아니하는作品이나、制限이없는詩曲

에도 웃습니다。세네카의것이라도 무거운데저내지아니하고 푸라우라스의것

이라도 가벼운데치나지아니합니다。定型의것이나 耶興의것이나 열마동안 獨步

의一座입니다。

하물。오오, 쟈푸라, 이즈라을의判官座下。그대는참 훌륭한寶物을가지고있다。

쇼로。어려한寶物을제가가지고잇습니까?

하물。글세……………。

「웃가튼處를오즉하나。

世上에업는걸로사랑하지만」

쇼로。(엿흘向하여)또살년의이야기가나오느군。

하물。 썩푸타, ㅎ은이 정말 그러치?

썩로。 臣을 썩푸타, 라고 물렀습습니싸。 果然 제게는 썩子息 하나 이 잇습니다。 世上에 들도

업시 사랑하는 썩子息이 잇습니다。

하물。 아니 그러케는 아니 되지。

썩로。 그러면 어썩케 됩니싸。

하물。 두얼.....

「한울의 運命이나 鬼神이 알지。」

그다음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

그뒤는 저 노래의 첫句를 읽어 보아。 아아 저기에 나의 心氣를 變하게 할 것들이 왔다。

(四五人의 俳僂가 들어 온다)

참 잘 왔다。 先生들。 참 잘 왔다。 無事히 서로 만나 보는 것이 무엇 보담 반가운 일이다。

아아 넷 달친구들。 자네의 얼굴에는 眼前에 볼 썩 보담 大端히 鬚髯이 들었구나。 그래서

나를謙讓케 하라고。어떤, 마크에 왔는가。아아處女마름廉夫人마름인가。女神에게
 盟誓코。못본그동안에그技術이발도들한그키말콤 환술에가짜와졌다。자아精誠
 으로祈禱를올려서 그대들의소리가通用하지못하는金貨와가터。데안해치고 들
 지못하게하여야지。先生들。정말잘왔다。佛蘭西의매(鷹)산양군은아니나 보고
 야그저잇술수가잇나。무엇이던지 한마디들려라고。그技術을보여라고。자아悲
 壯한 한대문을。

하물。

어느예인가 그대에게舞臺에올리지아니한것으로 긴劇白을한번들은것이잇섯다。
 아니그것이 舞臺에올랐더라도 한번맞게더아니올랐을것이다。웨그러냐하면 俗
 人들은그것을모르는싸담이다。그네들에는牛耳誦經이잇섯다。그러나그것은……
 내가들은바 斯道에對해서 우리들은발급치도못싸라 專門家の評判에는……場
 面도매우整理가되고 穩健도하며, 巧妙도한脚本이라고한다。아즉도記憶에남아
 잇거니와 어련사람하는말이 일부러 맛을부치기爲하여 藥鹽을친節句도잇고 自

漫이 만흔作家라고非難할文章도업다。

다만 正直한마음으로선 그態度가 단맛도있고 이악이도된다。華麗하다고할수업
는 매우아름다운作品이라고할일이있다。 그가운데特히나의마음에드는劇白이있
섯다。 그것은에나아크가다이드오레御前에서한이악이다。

아즉도이저버리지아니하였거던 그節부터들려다고。 자아, 자아…………

「그래서 荒廢한싸루라스는 썰카니아라는 짐승을宛然히……………」
그러치안티………… 처음은 싸루라스」다。

그래서 荒廢한싸루라스는 마음도검고 손도검어 무겁게馬腹에업드려있서 아모
리 침침한漆夜이라도 얼굴과머리며 손톱뿔까지, 빈틈업지 무척(塗)잇는唐紅
빛은主君을殺害한無慚을비치는 京都의兵火에殘滅된 아버지어머니며 계집아
이 사나이의 피스덩이다。 이가타凝血을 덩허쓰고서눈은宛然히紅寶石가타, 猛
烈히썩썩이는鬼神싸루라스는 老王싸라이암을 차저단인다。

자아 이 뒤를대라。

坐長。

악아참 妙하신音聲、語調의高低 마음들이시는것……。

「얼마되지안해서그를맛났다。可憐타老衰한그몸에는손에익은칼자루도 마음대로안되고겨누기어려워서잇는그체에, 토싸들엿보는독수리가타싸루타스어데서다라온다。憤氣衝天몸을맛겨한번친것이겨냥이틀녀서큰칼바람에老王은하염엄시넘어졌다。可憐타無情한저城樓도이한번치는데늦긴이잇는가烈焰한불꽃은뿔짜지라올라臺下의柱礎와한가지설어져天地가써지는놀라운그소리에싸루타스도한참은귀가멀었다。보아라老王의白頭에비랴고건준그칼날은속절엄시空中에머무리잇서그립에그린勇者와가디비교도못하고도아도안추며오죽서서자적(縮少)질뿐이다。」

「그럴때 荒廢한저날빛에 大空은오래동안寂寞하여구름은고요하고바람은소리잇서下界도한가지죽음이큰때 霹靂이한을을깨친가타싸루타스또다시敵意를몰고괴스랄이흐르는大劍으로써老王을견주어내리칠적에 神人이살던넛날時節에, 사이크롭썩가不滅의甲冑를과이쓰외닭에鍊鍛하고鍊鍛한鎧槌이라도

無仁하게이에서 못지안는가!

「고약하고 패심하다 이淫神、運命의神아비나니 皇天后土모든鬼神님 한대모이
고한가지씨해서 그놈의가진힘을[뺏아]주시요 그놈이가진 작은 수래의 막귀태
와 바귀살을 산산이뚫어서, 남이지로남는 수래바탕을 與天地無窮의 한울인
덕으로부러서 鬼神이居接하는 奈落밧까지 비려주소서。」

셔로。 이것은좀넘우길다。

하를。 좀비여버리는것이조켓지 그鬚擡과한가지…………다라서해다고。 才談이나淫談이
들지아니하면 조으는사람이다。 자아자아해키유바의곳으로。

座長。 「그것은그러나 그누구가, 사교잇는皇后를보니까누고……………」

하를。 무엇…………「사교잇는皇后!」

셔로。 으응조타。 「사교잇는皇后」는매우조타。

座長。 「눈腫子를가리는 눈물비에 타오르는불샷도 사라질뿐。 어제까지 瓔珞으로부
린이마에 오늘날 이襤褸가웨인일인가。 만흔子女들나흔弱한그허리에 둘러잇

는 한 겹 毛織物、 맨발 벗고 이곳저곳 도라다니는 그 모양을 본이가 누구인가……

…… 毒에 沈은(浸) 허약을 함부로 들니 運命의 鬼神을 꾸지 짓는가? 天上에 神靈도 이것을 보면 咎, 루, 스의 不仁보다도 그 계집이 그 남편을 죽인 汚責, 늙은 皇后가 이것을 보고 슬피 부르짖는 그 音聲에는…… 人世의 悲痛이 神靈에게 達하면……

…… 한울눈에 불꽃도 저질 것이요 神靈의 그가슴도 응당 압흐리」。

선로。 저것 보십시오。 廳長의 그 얼굴에는 비척 이미 變했고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습니다。……。

(俳優를 向하야) 인제 그만 쓰쳐다 고。

하물。 매우 조다。 不遠 閩演劇을 해보자。…… 선로 오나냐 쓰야。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

俳優들을 힘써 待遇해 다 고。 응응? 그래 그네들에게 親切히 굴어 다 고 俳優들은 그 時代의 精粹를 簡單이 볼 수 잇는 活歷史이다。 死後에 碑文은 어찌 깨 쓰던지 춤이 아즉도 남아 잇슬 동안에는 그네들에게 險惡하게 써(寫)이지 아니하는 것이 수다。

선로。 相當히 待遇를 하겠습니 다。

하물。 아니야나。 그래서 될수가 있나 第一사람을相當히 待遇한다하면 嘛(答)를免할사람

도 없겠지。 그러니까 그네를을 자네의身分에相當하게 待接을해라고。 待接하는

것이相對者의身分에過하면 過할스득 그대의仁慈에價値를더하는것이다。 자아안

으로다리고가거라。

설로。 자아, 이터들。 여터분。

하물。 싸라가보지, 친구네들。 來日할演劇을보여다고。(설로으니야쓰를싸라座長外,

모도드러간다).....자네발춤보아。「몬사코죽임」을上演해주게나。

座長。 예예。 그러케하겠습니다。

하물。 來日저녁에 춤해라고。 여썬면十二行이나十六行可量의劇白은 내가적어서 느호

라고한다。 외울(誦)수있겠지?

座長。 예예, 그테케하겠습니다。

하물。 을치올치。 그러면저侍從長을싸라가게。 그러나 작판썬리로해서는아니되여。(座

長나간다).....자아諸君, 저녁이되거던또맛나세。 엘시노오아에 잘왔다。

로오○ 殿下○ 그러면 물너갑니다。

하물○ 으응, 잘가게。

(로오센크란쓰와컨덴스다안들어간다)

只수야야말로나혼자다○ 아야이런 天痴바보가있다! 내가 그런데 그것이奇怪하
지안혼가? 그것 그俳優들이 設或假作의哀傷이라도 나와나의마음까지가感動되
어글로因하야 열글빛은蒼白色이되고 눈에는눈물이고이어 불스룩땃친사람과가
터 말하는소리도連續이업고 一舉手一投足의뜻까지도 그사람에게適合이되는것
은? 그런데 그것이 무슨外道인가레카유바를爲할인가? …… 그가티悲嘆發狂하
는그에게對하야 레카유바가어떤사람인가. 또한레카유바에는 그네가어떤사람인
가? 그이에게 내가가진것만티大悲憤의因緣이잇고 然故가있다면 如何한일을하
고잇슬는지? 눈물로써舞臺를적시고 두려운劇白으로써 聽衆의귀를 쫓드리며記
憶잇는者는미치게하고 생각이업는者로두렵게하며 分別이업는者를惑하게하여
눈이나귀를騷撓케하지아니할것이다○ 그런데나는? 魯鈍하고愚昧한이天痴는바

보와가티 十二分의 理由를 알고 잇스면서 空然히 因循하여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한다。 王權과 生命을 奸賊으로 하여 일러바리신 現在의 父王、國父를 爲해서도 나는 怯匠인가? 나를 惡漢이라고 부르는 이가 누구인가? 나의 本 얼굴을 빼기고 나의 鬚髯을 잡아 쓰더 나의 面上에 부딪치고 나의 코 入등을 잡아 돌려 나를 그 짓말장이 큰 그 짓말장이 라고 꾸짖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대 어찌한놈인가?

아아!

念莫甚焉이다。 그러나 그러타고 아니 할 수가 없다。 果是나는 怯匠이다。 虐待를 받으면서도 性별만한 心柱를 가지지 못한 것이 分明타。 그러치 아니 했스면 저 사람아닌놈의 석은 고기로 온 國中의 술개로 하여금 그 칭자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 淫蕩無道한 惡漢! 殘忍暴惡하고 悖倫沒義한 惡漢!

나의 이 怨讎를.....

정말 나는 큰 天痴이다! 아아 흥흥하다。 奇特하다。 現在의 아 버지를 죽여서 환을 과상이 한가지 復讎하기를 責促하는데, 임추 등이 만 賣淫女가티 알신 거리는 言辭

만들어 노하憤하니 怨痛하니 충얼거리고 꾸짖씨만하는씩어 싸전 賤한계집가터……
 ……이 賤婢! 아아 하잘것업는 이 物件아 이 腦야 活動을하지안나……傳하는말
 을듯건대 어셔한 犯罪者가 일즉 이 演劇을보고 巧妙한 그 劇의 事實에 自己의 몸이
 물러서 罪를 그 자리에서 自由했다고하던가。 비록 殺人罪에 허가업데래도 어느
 씨던가 異常스럽게 暴露될 씨가 있는 것이이다。 俳優들에게 分付해서 叔父王의 面前
 에서 父王의 들아가신 事實과 가튼 것을 시켜 그 顔色을 살펴서 그이의 殊常한 行動을
 搜探해보자。 즉음만 어셔하면 나의 取할 道理는 定할 것이다。 目前에 本亡靈은 惡魔
 인지 도알수업다。 惡魔는 조하하는 形體를 꾸미고나온다고한다。 或時내가 이 近者
 에 心氣가 鬱結하고 精神이 衰敗하여 憂愁에 잠겨잇스니까……이런 때에는 어쩔
 선지 넘기가 쉽다고하니…… 씨더리는 內意가 아닌지도알수가업다。 確實한 證據
 를알고집다。 王의 本心을 搜探하는 手段은 演劇밖에다시업다。

(드러간다)

(幕)

……………(第二幕第二場終)……………
 (第一幕全部完了)

第三幕

第一場

城內의 一室

國王 王妃 王后 王后의 女弟, 오위리야, 로오센크란쓰及 킬넨스다안 들어온다

國王。

그래서, 아모리 말을 돌려두려 보아도 무슨 실패인지 平穩無事하지 않一身을 그가
타일부터 미쳐서 남도 危殆하게 하고 自己도 또한 괴롭게 하는지, 그 仔細한 것을 말
을 하지 아니하지。

로오。

殿下께서도 不例이라고 말씀은 하시나 무엇 실패이라고는 말씀이 없으셔요。

킬넨。

김허무르시는 것을 조하하지 아니하시는 실패인지 아모리 그 本心을 살피라고 하

외도 미친 사람의 말씀으로 쓴 말씀만 이리 저리 하시니 싸요。

王妃。

卿들에게 待遇하는 것은 어찌 하던가?

로오。 極히嚴然한거동이옵되다。

길덴。 그러하오나 덕우거복하신 모양으로도 보이옵되다。

로오。 말씀을하시기는 실려하시나 그래도臣等の 무름에는 充分히明快하신答을하십되다。

王妃。 무엇이던지 마슬부칠것을勸해보았는가?

로오。 그래본일아잇습니다。 臣들이올쎄에 偶然히어션俳優들을 맛나보았다는 말씀을 아되온즉매우것버하시느모양이옵되다。 아마도 그네들이온것이야요。 오늘취녀에는 무엇이던지 演劇을하라는 分付가게신것갓습니다。

로로。 그렇습니다。 兩陛下쎄옵서도 御覽하옵시기를바라신다는말씀이 게십되다。

國王。 우리들도보지。 제마음이 遊興에쏟힌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기썬운일이다。……

卿들도이우에더할쎄 그마음이 어저렵지안도록 겨레서 돌보아주게。

로오。 그대로하겠습니다。

(로오쎄크랑쓰와 길덴스다안들이간다)

國王。

카아쓰루우드, 이 자리를暫間하여 주었스면, 不意에 오휘리야를 만나게 하도록 하
물레트를 只속불으러 보냈스니 싸. 섰로 오니 야스는 나라고 法律이 許諾하는 諛者가
되어서 숨어 있다가 그들이 맛나는 舉動을 보코 그 煩悶이 戀愛의 病인가 또는 그러치
아니한가를 判斷하게.

王妃。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휘리야 兒子の 發狂이 너의 人物이 出衆한 까닭인 줄 안다。 아
모썸록, 너의 보들어운 마음으로 兒子の 마음이 돌리도록 하여 다고 그것이 너의 들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오휘,

그러케 되었스면 그우에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王妃를 어잔다)。

섰오,

오휘리야야 너는 이 近處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라。………惶恐하오나 陛下 例음서는
臣과 한가지 숨으 십시다。(또 오휘리야를 보고) 이冊을 보고 있거라。 그러케 하고 있
스면 이상스런게 보이지는 아니 할 것이다。………우리의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은 가다
가가다가 그러한 상석 들지 못한 일을 하는 수도 있다。………이것이 十二分의 證據이

다。……信心이 만흔 열빛과 敬虔한 行動으로 마음의 惡魔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다。

國王。

(엡힐同하야) 참그말과갓다! 只今한그말이나의良心에 銳敏한채썩질을했다。거트로우며서 아를답게보이는 賣春女의쌈이、臙脂와白粉보다。더드러운것가더나의行動은 내가極히彩色칠한말에比해서는 오히려뎡배나더드럽다。아아 무거운이罪!

셔로。

오시는것가름니다。이리로숨으십시다。

(國王과 셔오니아스 들어갓다。)

(하물매 드들어온다)

하물。

죽음인가 살인가 이것이 疑問이다。……可憐한運命의 矢石을받고도、오죽참기만하는것이 男子의뜻인가。或은바다와가리艱難을 마주쳐서、씩음으로그뿌리를업시하는것이 男子인가。죽음은……잡자는……내 지나지아니한다。잡들어마음의 압흔것을버리고、이고기스덩이에부터단이는千萬의苦痛을버서날수만있

스면..... 그 계야 말로 이후에 다시 업는 所願成就이지 마는..... 측은은.....
 잠들미다..... 자는 것이다! 아아 아마도 꿈을 꾸겠지..... 거기 에 魔障이 생긴다
 이 肉體에 煩惱를 모도 버서 버릴세, 어찌 한 꿈을 꿀는지 그것이 마음에 킨다. 浮
 世의 苦厄을 自己와 한가지 같게 스을게 하는 것도 畢竟은 이리 하얏다. 短刀의
 한번 움죽이는 스래 容易히 이 世上을 버릴 수가 잇는 것을, 누가 머뭇머뭇하여 이것을
 참고 잇는가? 世上에 虐待와 侮辱를..... 虐主의 非道와 驕輩의 橫權이 며 되지도 아
 니 한 戀愛의 哀切, 오래 스으는 裁判의 焦煩, 官吏의 尊大를 참기만 하면 조흔 일인 줄 알
 아서 君子大人을 虐待하는 小人들의 無禮한 짓을..... 죽어 罪만 되지 아니 할 것가 트
 면..... 누가 이리 한 險惡한 世上에 甞을 흘려 가며 呻吟하던서 이 가튼 무거운 짐을
 참고 잇겠는가? 일즉 이 한 사람의 旅客도 오지 아니하는 未知의 나라, 그것이 우리
 들의 마음을 綿纏케 하여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에 呻어 가는 것보다도 現在의 苦楚를
 참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가티 이 良心은 우리 들을 모도 怯장이 들만 들고 이와 가티 決
 心의 本色은 蒼白色의 憂慮에 히게 타서, 如何한 큰 일을 企圖하였더래도 이리 하얏

에 빛들어져서 〇래는實行이라 하는 이름을 이저 바련다。……(오휘리야 들보고) 게
잇서 暫間 동안! 오휘리야 지! ……(오휘리야 에게 對해서) 아아 少姐 나의 罪가 消
滅하 도록 祈禱하는 데 도 아 다 고。

오휘。 殿下 께 읍서는 요 사 이 萬康 하 읍시 니까?

하물。 고 마 운 말 이 다。 몸 에 는 별 탈 이 업 서。

오휘。 〇러 하 온 데 紀念品으로 내 리 신 物件을 別서 부 터 도 모 바 치 라 고 잇 습 니 다。 바 다 주
시 기 를 바 람 니 다。

하물。 아 니 나 는 못 바 트 겠 다。 나 는 아 모 物件도 寸 일 이 記憶 되 지 아 니 한 다。

오휘。 〇러 치 마 는 저 는 주 신 것 을 잘 記憶 하고 잇 습 니 다。 〇리고 그 物件 과 가 티 그 것이 더 아
를 답 게 빛 날 말 습 짜 지 添附 되어 잇 사 오 나, 그 香氣 가 이 디 사 라 저 업 서 적 사 오 니 아 모
더 貴重한 下賜物 이 라 도 내 리 신 그 어 른 참 마 음 이 부 터 단 이 지 아 니 하 면 貞操 잇 는 그
사 람 에 게 는 價値 가 업 는 출 암 니 다。

하물。 하 하 하 하。 너 는 貞節 을 지 키 나。

오휘。 예에?

하물。 美人인가?

오휘。 어찌그런말씀을하십니까?

하물。 아니, 네가貞節이잇고, 旣美人이면, 그貞女와美人하고는한대 交際를시키게하

지아니하도록한다든말이야。

오휘。 그러치마는 美人과貞女와는 그우에업는더조흔朋友가아닌가요?

하물。 아니千萬에。 워나도옛날에는너를사랑하였다。

오휘。 정말저도그러케 밋고잇습니라

하물。 그러케미든것은 너무틀림이다。 德은아모리接木을하더라도 그밋바탕남기 惡하면그毒氣는버릴수가업는것이다。 가엽시도 나는너에게戀愛한일은업섯다。

오휘。 그러면 大端히잘못된생각을하엿습니라。

하물。 너는僧房에가거라。 무슨까닭으로罪를짓는者를養育하라고하는가? 나는매우正直

한者이나그래도 나를나치아니하였더면 할만치怨望하게된 罪만흔몸이다。 高慢하

고, 復讎心이 整코 野心이 滿滿해서 自己로 許諾만 하면 如何한 惡한 이라도 할 수가 있
다. 오즉 그것을 調何할 思案과 形들을 저을 想像과 實行할 時期가 업을 쌓이다. 天地
間을 匍匐하는 나와 가튼 늑에게 무엇이 되겠나. 우리들은 모다 可恐할 惡漢이다. 누
구던지 미더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니 僧房에 가는 것이 조흔 일이다. 아
버지는 어대잇나?

오휘. 짐에 잇습니다.

하물. 그러면 처 너어 두는 것이 조타. 내 집도 아닌 데 공연한 짓을 하는 것보다. 그러면 또 맞
나지.

오휘. (엎흐르고) 오오한 우님이 어 皇子殿下를 도아 줍소서.

하물.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萬一에 네가 結婚할 것가 트면 신물代身에 이 呪咀를 보낼
것이다. 비록 네가 어름과 가티 淸淨할 지라도, 눈과 가티 潔白할 지라도 世上

의 辱說은 免하지 못할 것이다. 절로 가거라 절에. 그러면 또 맞나 자. (가
다가 또 돌아서서) 또는 어찌 했던지 왜 그러냐 하면 어 전사나 이들은 나이들이 그들

을어찌한 설도 천鬼神을 만들는지 그것을 잘 아는 까닭이다。 僧房으로 가거라 하로
라도 바세。 그러면 또 맛나자。

오휘。

오오한 우님요。 皇子殿下를 元氣도들게 하여 주소성。

하들。

나는 너 이들의 粉칠할 것을 모도 들어서 안다。 한우님은 너에게 한얼물을 주셨다。

그것을 너는 선결로 만들었다。 섰다。 品位를 짓는다。 달게 안다。 한우님이 만든 것
을 별명을 짓는다。 浮蕩한 것도 無知한 것이라고 평계를 한다。 이우에게 참을 수는
없다。 나는 그 까닭에 미쳐게 되었다。 인제는 結婚을 시키지 아니 할 것이다。 이미 結
婚한 자는 오즉한 사람만 짝 그 냥 들 것이다。 남아 지 것 들을 只 壽 考 가 티 一生을 보 내
게 할 것이다。 자아 절로 가거라。

(하 문 례 들이 잔다)

오휘。

比할대업는 저양반의, 가엽시 되신 그 몸! 아야 貴紳의 눈, 武士의 칼, 博士의 雄辯
을 가지시고, 國家의 希望, 뜻이라고 하던, 風流의 거울容儀의 型形, 萬人의 模範이
라고 하시던 양반이 인제 별서 絶望이다。 그런 데 일즉이 殿下의 音樂과 가튼 盟誓의 설을

뿐 대답에 나亦是女子中第一의不幸者。그氣品이高尚하신그마음、玲瓏하게울리는방울이 瞥眼間荒雜한소리를내는것과。가디節調를버서나서 달각거리리는것을보라。比할대엿는滿漣한雲의形狀이 미친바람에섞려저가는것을。아아 이것이무슨因果인가。예를본그눈으로 只수를보게된것은。

(國王과 서로 오니야 스들이온다)

國王。

戀愛라고? 아니戀愛는 아니다。只수까지한말은 조금條理에는 버서났을지라도미친사람갓지는 아니하다。무엇인지 그마음간운대는鬱念의몽치가영켜잇는것이다。그것이自然變化되는씨는容易치아니한일이생기겠지。그것을먼저 制止하기爲하야 只수咄嗟의생각으로、多年개를더해온貢物催促의使者로英吉利에 보내자、異國의山水風物、보는것과듯는것이 異常스러우면 彼我들이저버릴새까지 영킨悞惱도풀러겠지。卿의意見은?

설로。 그것도조겠습니다。 그러나病患의原因은 亦是이루지 못하는戀愛外담인출압니다。..... 어썸、오휘러야야! 아아아니殿下의하신말씀은 할것이업다。 하나싸지지아

니하고 다들었스니……階下의 분처와 가티 하셨스면 그러나異議를 하시지 아니하
실것가 트면、演劇을 끝낸 뒤에 皇后陛下와 皇子殿下가 서로對面하셔서 病患의 原因
을仔細히 무러보셨스면 어찌 하을는지요? 分처만기시면 小官도 그엽해서 드려보
겠습니다。皇后陛下의 恤。도 도미치지 못할것가 트면 그 때에는 英吉利에 로보내시
던지다시處分하셔서 幽閉를 시키시던지 어찌케던지 措處하옵시는것이 조갓습니다
그러케하는 수밖개업다。位者의 亂心은 그냥 버려들 수는 업스니까。

(모다들어간단)

— (幕) —

|| (第三幕第一場完了) ||

..... (第三幕未完)

第三幕

第二場

城內의 一室

(하물레트먼저서고 뒤로俳優들이 들어온다)

하물。

劇白은내가말한것과가리가범게슬슬내려가도록해다고。俳優들에게행용잇는것과가리일부러하는것가른劇白을들것가트면차라리廣告쟁이를불러것거리게하는것이났갓지그리고또손으로이러케空間을두어서는아니되갓다。모든動作을確實이하지아니하면아니되갓다。假令情에激動되어急波、暴風、或은되리마람과가리미쳐날뛰는境遇일지라도반듯이程度라는것을잊지마라서、節調라고하는것을생각지아니하면아니되갓다。나는그거침荒다른俳優들이번번치못한默劇이나것으로써드는맛게는賞鑑賞도못하는大衆의마음을식을기爲하야空然이야

단법석을치고 썩들고 돌아다니는 것을 볼새마다 참아볼수가 없다. 아다마칸트(暴風神) 넘우지내하기도 하고 해롯드(暴君)을 넘우過히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懲罰을 주고 싶다. 그러한것은 하지안도록하여주게.

座長。 그러케하겠습니까。

하물。

그러라고 넘우軟하게하여도 못할것이다. 그것은各各自己마음을스승으로삼아劇白에다動作을마추고 勳作에다劇白을마추어야할것이다. 그中에도注意할것은自然과符合하는것을틀리지안도록할것이다. 大抵演劇이라고하는것은 只今이나以前이나 랄하면 造化에거울을비추어 正邪美醜의容相과 當國當世의잇는그대로그려보여야할것임으로 그程度를지내서는本意에머서나는것이다. 더욱이過不及이라고하는것도 처음으로보는사람에게는 興味를도올는지모르겠스나 數千人の觀客보다도 오즉한사람이라도요사이 생각하 잇 아니하면아니될 그사람의心情에올리게하지아니하면아니되겠다. 그런데 가끔가다가 사람의마음을하다가도 基督敎를밧는사람의소리, 動作이라고생각지못할만치 아니異敎徒의土耳其사람

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을 만치 떠쳐서 뛰고 부르지 르니 아마 이것은 造化翁의 雇傭軍
이것다가 빗그러진人間이 아닌가도 생각할만한 俳優도 있다。 그것을 대종업시 稱讚
하는 것들도 있다。

座長。 그러한 곳은 매우 고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 그러면 그것은 모도 고치는 것이 조갯지。 그 다음滑稽俳優에게는 所定된 句外에는

아무 말도 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조다。 잘못하다는 根本을 기외지妨害하는 줄 알면서
無智한 觀客을 웃기爲하여 저부림도 쓸대업는 웃음을 웃는 무리도 있다。 참고 약한
버릇이다。 그러한 일을 자랑으로 아는 滑稽俳優는 웃음거리에 지내지 아니한다。 자
아 差備를 차리지

(座長들이 간바)

(또로 오리야스 암세코로 오켄코란조 필덴스다안 들이온다)

어찌케말씀했나? 陛下께서도 劇을 보실다던가

또로。 兩陛下께서 한가지 남신다고 하십디다。

하물。 俳優들을催促해 주게。

(성로 오니야스 들어간다)

그대들도 좀그들어서 速히하도록 해주지 아니 할터인가?

로오。 길덴。 그러케하겠습니까。

(로오젠느란쓰 길덴스다안 들어간다)

하물。 오오! 호레에시오!

(호레에시오 들어온다)

호레。 여기있습니다。

하물。 호레에시오 그대야말로 내가交際하는 사람가운대 第一君子다운사람이다。

호레。 惶恐한말씀입니다。

하물。 아니 追勢를한다고는생각하지아니하겠지。 高潔한魂靈받게는 무엇하나 衣食의資料

되는收인이 없는그대에게 무슨싸담으로 追勢를바라겠나。 貪者는追勢를하지아니 하는것이다。 砂糖에적신혀(舌)는驕慢한愚人을 할수있게하고 장식이自在한무릅은트

證하여 利로운곳에 굽흐리게 하는 것이 조켓지。 이러한 나의 이 마음이 物件을 分擘하
 는 주스대가 되고 人性을 判斷하게 된以後로는 그대를 우업는 사람이라고 判定을 하
 였다. 웨 그러냐 하면 그대는 運命의 賞罰을 한가지 달게 바다서 如何한境遇에 接觸하
 더래도 搖動하는 비치업다。 아아 저神에게 幻弄되어 마음에 도업는 소리를 내는 저(笛)
 스대 갖지도 아니하고、血氣와 分別을 等分으로 가추운 거기에 는 참幸福이다。 情에 奴
 隸되지 아니한 사나이를 내게 내려라 나의 가슴의 中央에 속속들이 그대와 가티安置
 하는 主神을 두게 하엿스면……………아니 쓸대업는 말을 만히 하엿다。……………오늘 저녁에
 國王의 御前에서 演劇을 開催할 터이다。 그 가운데 한場面은 父王의 最後를 마친
 貌樣과 가튼 것이 잇다。 慕이 열리거던 精神을 차려서 叔父王의 舉動을 살피라고 萬
 一에 그이의 隱匿이 어셔 한 가지 劇白에도 나타나지 아니하면 畢竟 그亡靈은 惡魔로
 써 우리들의 想像은 발칸의 鐵礎보다도 더 험 험할 것이다。 잘 精神 차려서 보아 주게나
 도 그이의 얼굴을 살피서 뜻이 난뒤에는 서로 본바를 綜合하여 事實을 判斷할 양으로。
 알아들었습니까 演劇을 한참하는데 眼을 살피면 그代價는 제가 하겠습니다。

호레。

하물。 아아 구경하러 오는 貌樣이다。 나는 미치고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겠다。 자아 자네도 어

대던지。

(덴마크의 進行曲과 한가지 驕賦 소련에 싸이어 國王, 王妃가 앉서고 셔로 오니아스 오귀티야, 로오센크란츠 쾰덴스다안及其他公卿, 쾰스블른衛兵等이 들어온다。)

國王。 하물레트야 어셔케지나나?

하물。 아모일업시튼튼하, 세씨끼니가, 메레카온 (鬼蜥蜴)과가티空氣만먹고잇습니다。

헛된約束이라고하겠지요 닭도가타는길이지아니하겠지요。

國王。 무슨말인지 내개는할말이아니다。

하물。 그러면제말도아닙니다。 ……(셔로 오니아스에게向하여) 卿은일즉이大學校에서演

劇을해본일이잇다지。

셔로。 그러습시다。 그런데 매우잘한다는評判까지잇습시다。

하물。 어셔한다음을했나?

셔로。 쉼리야스 시야샤아를했습시다。 카색틀 (神殿)에 殺害를當했습니다 쉼루우샤

스 가 죽었습니까。

하물。 아니, 물고쓰던? 사람의 목숨을 물고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호탕이가 뜬놈이이

닐가.....俳優들의準備는 다 되었다?

로오。 吩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王妃。 하물래트야 이리오나라 내겨데。

하물。 아니오 어머니 이곳金屬이引力이 션니다。

(라고 오휘리야 열해가 안는다)

으로。 (王에게對하여) 아! 저것을 보십시오。

하물。 暫間 동안 치다 웃을 줄 빌려라。

(라고 휘며 오휘리야의 치마 깃감계 비스듬이 늙는다)

오휘。 다! 殿下.....

하물。 아니 치마 신타 머리를 좀 기덜 뿐이다。

오휘。 그러케 하십시오。

하물。鄙劣한 것이나 할 줄 알았나?

오회。아니요 아무런 깨도 생각하지 아니 하였서요。

하물。美人의 다려삭이에 알는다는 것은 참조 혼謀策이다。

오회。무슨 그런 말들을。

하물。아니 아모 말도 아니야。

오회。大端이愉快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

하물。누가? 내가?

오회。예에 그렸습니다。

하물。그러코말고。정말이지 그대의 戲歌作者이니까。愉快치안코어찌하겠나。그런데

저것보야母后께서 무슨 일로 저처럼 깃버하시느 貌樣을 나타내시는가。父皇이崩御

하신지 惝惝時間이다。

오회。아니요 두달의二倍나 됩니다。

하물。아니! 그러케 되었석。그런편후라크(黑服)은鬼神에게 입히는 것이 조켓다。나는

세예를(貂皮)이나 입을 받게 아아! 두달 전에 돌아갔는데도 아직世上에서 이저버리지 아니하였다니. 그러던 權門豪族의 이름은 半存되나 혹은 뒤라도 保存되겠군. 그러나 정성코 잘이라도 세우지 아니하였던 假馬와 가터 되겠지. 그 者의 碑文은 이와 같을 것이다.」보아 라묘아 假馬도 언제인지 저버려졌다!」

(오오성이 木節을 들고 獸圖의 優劣을 이른다. 王으로扮裝한 者와 王妃로扮裝한 者가 매 우 협담해서 오세고 들어온다. 王妃는 무릎을 꿇고 무스 말이지 王에게 對하여 主張하는 科作, 王은 王妃를 붓들어 일으켜서 그 머리에 自己의 머리를 대인다. 얼마 안되어 花草가 亂發한 土堤우에 놓는다. 王妃는 王의 잠든 것을 보고 간다. 그리자 한 사람의 男子가 들어오더니 王의 金冠을 빼서 이끄다가 입을 맞추고 王의 귀에 다 毒液을 들어 붓는다. 王妃 돌아와서 王이 죽음을 보고 들러보러서 悲嘆하는 科作을 한다. 前에와 毒殺者——三人的 아래 마음을 다리고 들어와서 王妃와 한 가지 거짓 悲哀하는 舉動을 한다. 尸體를 매고 들어간다. 毒殺者는 무슨 선함을 주어 王妃를 댈인다. 王妃는 한참 동안 拒絶하는 科作을 하더니 드디어 그 마음을 조차 한 가지 깃거운 態度로 擁抱하고 들어간다.)

오회.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물。 하야、 저것이隱隱……惡한일이라고하는것이다。

오회。 只今科作이 演劇의출기일니까?

(序詞의俳優들이온다)

하물。 著者로써一切을다알것지。俳優라고하는것은秘密을감추지못하는것이다。모든것을

짓거리고만다

오회。只今科作의解說을함니까?

하물。 응응。如何한科作의說明이라고도하지。보는것을부스럽게 생각만하지아니하면如

何한일의說明이라도부스럽게생각하지안는者이다。

오회。 또그런無理한말씀만하십니다。저는演劇만보고잇습니다。

序詞俳優。 우리들을爲하야 또우리들의悲劇을爲하야。

寬仁한尊前에삼가이엿되어한참동안靜聽하시기를바라옵고돌아삼니다。

(들어간다)

하물。 이것이序詞인가、指環의名目인가?

(劇王)。아아, 나의 사랑하는王妃, 나는 그대를 두고 멀리 떠나 하역이世上을 떠날 것이다。나의 活力은 衰盡하여 그 動力은 멀지 아니하여 그칠 것이다 그대는 아름다운 이世上에 오래 잊어서 儼敬을 받고 사랑을 바나서。또한 머들만한 사랑을 골라서 後夫를...
 (劇妃)。祥瑞롭지 못한 그럴말씀을。그가 든 마음은, 두가지 마음。또 잊는 男便이야말로, 禍件! 처음 男便을 죽일만한 女子가 아니면은 뒤에 잊는 男便은 보이지도 아니할 것을。

하물。(엮을보고) 귀의 울린다, 귀에 울린다!

(劇王)。또 婚姻을 생각는 마음은 戀愛가 아니고 利慾의 卑劣한 마음。뒤스남편에 뜻을 두는 그날은 먼점남편을 다시 죽이는 그날일 것을。

(劇王)。그몸의 그말과 그마음은 變하지 않을 줄 알기는 하지만 快心を 깨친는 사랑의 常例, 所望은 記憶의 奴隸이니 나오는 힘은 猛烈하지마는 그나오는 것은 하는 수 없다。恰似히 익지 아니하면 果實과 가티 처음에는 빛그려 맨 것가티 남게부터 잊지마는 成熟이 되면 흔들지 아니하여도 쌍에 썬려 진다。나의 마음에 질머진 債務를 내가 잡을 것을 잊는 것과 가티 情에 激動되어 생각나는 일은 情이 마춤과 한가지 생각나는 것도 사라지고

만다。깃븐 그대로 슬흔 그대로 情에 실을려 定해 들을고 모더한가지스스로滅亡되
고만다。깃븐이至極한곳에 슬흔이至極하니 거기에 무는 不思議가 잇겠는가。愛
情과利慾어 쟈것이 먼점서고 어 쟈것이 뒤로 설는지 그것은 아즉도 解決치 못할疑
問이다。偉人이 죽으면 寵兒도 다라나고 貧者도世上에나오는수가잇고 冤讎도知
근가되는수가잇다。利慾은 압서고 愛情은 뒤선다。富할때에는 벗에게 일을缺하지
아니하여도 일을缺하고 벗을求하면 벗도 못敵이 된다。그러치마는 只수는 들어가
서 順序마르개 말을하면 뜻과運命은 違背되기 쉽고 事탐의謀畧은 깨여지는것이
常例이다우리의생각은 内物件이라도 그것이되어가는것은 内物件이 아니다。只
수는二夫로보이지아니한다고생각하여도 그대도내가죽으면스스로생각이 옮겨가
겠지。

(劇妃)。그런일이잇스면 쟈도먹을것을, 한술도光明을내리지안코 낮이나 밤이나 慰樂과休
息을나에게禁해라고。信賴와希望도 다盡해버리고獄中에잇는隱者의生活이 차라
리내몸에希望이되어라。것기운벗을셋는모든不幸은 온갖나의吉事를滅盡해라고。

이世上이나 쓰저世上에서도 이몸에災禍가 썩나지안케해라。萬一에내가 夫君을일
코 두번 남의안해가 될것가 트면

하물。

萬若그것을 咎덜이면!

(劇王)。 김히盟誓해라 나의親愛子야, 暫間동안저쪽으로。 매우疲倦하니 假宿으로써 긴날
을보내리라。

(王이잡는다)

(劇妃) 참으로마음을쉬시사, 夢에災禍야 마음업시우리들의우에오지안케해라。

(廻들어간다)

第三幕

第一場 (前月號)

繼續

(하물) 어머니의 마음에는 滋味가 있습니까?

王妃。劇妃의 딸이 恨을 過치 아니한가 하네。

하물。한말은 지킵시다。

國王。이事然을 아는가? 무슨 拘碍는 없겠지。

하물。아니요 죽을이라도。한갓 作亂셔리로。戲諧로 毒殺한 것을 한 것입니다。

國王。異狀도 한 表題이다。

하물。쥐잡는 듯。아니 比喻이다。예언나 人戾逆을 脚色한 것인데。코싸코그妃는 階下에서

다, 窺아서 갓지마는 무서운 凶計의 이야기... 나... 아무치도 아니한 것이야。階下에서
나 또 다른 사람이나 마음이 潔白한 이는, 關係가 없는 것이다. 두름에 傷處잇는 말은 새

지마는, 이脊骨은.....

(惡漢 두사나쓰를扮裝한佛殿은어오나)

저것이國王의 족하 루샤나쓰라는者이다。

오휘。殿下께서는 說明佛優가티 일갓것을 잘아십니다。

하물。그러쿠말고。거타에서석놀리는 산되만보야도 너와너의 사랑하는사람의 사이를

를범업식 일러듯기갓다。

오휘。입도넘우 싸프삼니다。

하물。이싸른입을 鈍하게하라면 웅웅거리고 알치안흐면 아니될것이다。

오휘。조항다가 글렀나가。

하물。그리고도 남편을맛지안흐면 아니되갓지.....

아니사람죽이는놈,始作해라,곰보짝지의醜한얼굴은 그만썩.그리고 速히始作해라

『凶報를모르는外막까지도 怨讎를잡흐라고 울고있다.....』

(루샤나쓰。마음도검고 밤도검으며。藥도毒하고 손도굿새다。뼈마춤 조흔시키고 사람도업네

너이는正발중어둠(暗)을타서、세번이나魔王의呪咀에들어져三度毒氣에적셔넌
물귀。두려울사天然의그魔力으로健全한生命을即時에빼아사。

(잡든王의귀에毒藥을붓는다)

(하늘) 저놈은王位를빼아스라고 독산에잡든王을毒殺하고있다。王의이름은 큰싸코라

하는者인데事實이잇는아악이다。그것은巧妙한伊太利말로記錄이되였다。그리
고저殺人者가王妃를빼여自己手中에너호라고한다。

오휘。 아아！陛下께서일어남신다。

하를。 무엇거짓불(火)을두려워하셔서！

王妃。 어대가거북하십니까？

으로。 演劇을中止해라、演劇을！

國王。 燭불들어라... 저리로！

衆人。 燭불을들어라！ 燭불을！ 燭불을！

(하늘데드와호해서오물두고남아저은다들어간다)

하래。

傷處 잇는 사슴은 울고 잇셔도

흠집업는 암사슴은 놀고 만 잇다。

잠든 이 와 잠 안 든 이 形形色色이,

이상타이人南浮世虛夢을。

어찌, 흐래시오。이 것으로 한줌의 깃(羽)으로 삼인 것과 썩, 로, 썩, 스, 의 薔薇의 두 個나

입피면……나의運命이 어찌 깨되든지……俳優들과 한목보겠지。

호래。

果然半목可量은。

하물。꼭한목이야

알지 못키라 그 대대에 몬요,

쫘오바 神의 御位도,

可憐타只수는 主人을 받구어,

나래치는 소리가, 喙호다……孔雀。

호래。

그러면 韻字를 부참시오。

하물。 오오호 레시, 오, 나는亡靈의 말을 十千萬兩이라도 사겠다。 보았나?

호레。 꼭 보았습니다。

하물。 毒殺이란 말이 날째에?

호레。 正히 보았습니다。

하물。 아아, 무언가! 자아音樂이다音樂이다! 저入대를 가져와저入대를……

人君이演劇을 실행하면,

아니! 그러켓지……실여함도理由가 있지자아자아音樂이다。

(로오센크란츠, 킬덴스다안다시들어온다)

킬덴。 殿下, 한마디 아릴말씀이 있습니다。

하물。 무어, 千萬言이라도 못지,

킬덴。 陛下께옵서는……

하물。 陛下께서는 무어라고?

킬덴。 內殿에 들신後 매우不快愉하옵신氣色으로계십니다。

하물。 술이過하신까닭인가?

킬덴。 아니。 怒氣를써신 까닭인가합니다。

하물。 그러면, 侍醫에게 通知를하는것이當然한일이겠지 나가든 서투른軍의配劑도는

들이여怒氣가增加할뿐이겠지。

킬덴。 殿下。 그러한空然한말씀은마시고 當面の公用만 들으시게하십시오。

하물。 그러면 順從만하지 말이나하계。

킬덴。 內殿, 御母后께서는 매우憂慮하셔서 臣들을派遣하셨습니다。

하물。 그것참잡았따。

킬덴。 그러한 弄談은마시고。 정말로回答을하시면 殿下의吩咐를 아뢰읍것고 그러

치아니하시면 그냥들아가겠습니다。

하물。 그것은안돼

킬덴。 예에。 엇지한處分입니까?

하물。 너이들에게바른對答을하라고하는것이。 나의마음이 健全치아니하니 健全한對

답은 나오지 아니하겠지。 그러나 내가 될만한對答이면 그대들이 命命하는대로 아니
母后께서 吩咐하시는대로 그런말은 그만두고 要緊한말만해라 那母后께서……
國母陛下에 오를차례 舉動에는 意外로놀라 시게하십시오이다。

하물。 무어야 現在의母后이신 어머니를놀라게하였다? 그것참놀랄만한子息이로곰! 오
즉그뿐인가 그놀라신 뒤入일은업는가?

로오。 그래서 寢所에들시기前에 秘密히內談이 내리시라는 吩咐입니다。

하물。 알았다。 母后께서 몇十倍의母后이시니까 命命대로 좃겠다고 아뢰게 그우에도
무슨말은업나。

로오。 殿下。 殿下께서는 일즉이 저이들에게 知友라는 말을하신일이잇습니다。
只今이라도 안그러치는아니하지 든손에겨누어서。

로오。 그러면 아뢰겠습니까마는 무슨사담으로 일생鬱懷을 품으십니까。

하물。 出世를못하겠스니까 다。

로오。 그럴리가잇겠습니까 現時陛下의御聲名으로이덴마아크의皇位를繼承하실身分이

아닙니까?

하물。 그것은 그러치만은 『물이 자랄새까지』 그러한俚諺은 다 썩어버렸다。

(佛僧들이 피티를가지고들어온다)

오오 저入대 이리가저와(라고킬덴스다안의엽흐로가더니) 무슨일로 그대들은 나
를휘둘르나 그물에얓는것가라。

킬덴。 아아—殿下。萬一의奉公이意外의것이잇거던 그것은殿下에 赤誠을다하는념
대말미얓은 無禮의것이올시다。

하물。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이것을아니불겠나?

킬덴。 臣은불지못합니다。

하물。 차아 한번만 불어보게。

킬덴。 到底히臣은 불지못합니다。

하물。 나의所願이 그러하니 한번만불게

킬덴。 그러치마는 全然이불줄모릅니다

하를。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엄지손가락과 다른손가락으로 이와가터 이구
녕을 막고 김을 이터 캐너호면 저절로 조흔音色이 自由自在하게 나오는 것이다。 자아
이것이 부는대다。

킬멘。

그러키는하오나 그것을 조흔音色이 나오도록 다울출은 알지 못합니다。 부는方法을
알지 못하니 싸오。

하를。

그래서 어쨌가? 그때그대들이 나를 한출기저대만도 못한 痴者로 생각하나! 아니
現在에나를 嘲弄하려고 하였。 나의 노래구녕을 調査하고 나의 心中秘密까지 차차
서本뜻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적은 한출기저 八대에도 훌륭하고 아름답다운
音樂이었다。 그것을 그대들은 能히 볼지 못한다고 하였지。 그러면 나를 저 八대보
다도 가적이고 놀기 쉬운 출생각한 것인가? 그래서 나를 樂器로 다루는 것은 隨意이지
마는 그러한手段에는 하는수 없시 音色은 나지 아니하겠지。…………

(선로이녀야스들이온다)

아! 無事한가!

선로。 아뢰옵니다。 內殿陛下의處分입니다。 只今코御對面의下命이계십니다。

하물。 아！ 저구름을보아 어찌駱駝장잔흔가？

선로。 참 果然駱駝가티 보입니다

하물。 어전지 족제비가티보이지？

선로。 등성이가 족제비가티 보입니다。

하물。 야니 고래장치가아니한가？

선로。 果然고래가티도보입니다。

하물。 그러면 조금잇다가 內殿으로가지。 (엮흔보코) 참을수업을만치 天痴로다루지。

：：：：： 조금잇다가 잔다고하계。

선로。 그리캐아되게습니다。

(선로오니아스틀어잔다)

하물。 엮으로 조금잇다가라고하기는 취운말이다。：：：：： 그대들도 물러가는것이조켓지。

(로오셀크란쓰 킬렌스다안등들이가고, 하물테트흔자남는다)

只속이야말로 夜半三更(夜)에(慕)는 일을 열고 地獄에서는 毒氣를 내뿜는다。 時方이면
 熱血을 먹음어, 낮(晝)에 보면은 戰慄할 만 한 일도 只속이면 할 수가 있다。 그러나
 間잇서! 먼점어 머 남께。..... 아아! 아음아! 너의 本性을 일치마라。네, 魂身
 을 決코 이 가슴에 너치마라라 殘忍한 子息이 될지언정 不孝의 子息은 되지마라。 허
 는 칼이 될지라도 손에는 칼을 쥐지마라라。 말과 行勳이 것과 속이라고 하지 마는。 말
 로는 아모리 睡罵할지라도 손으로 形跡은 내보이지마라。

(아름테트들의 잔다)

—(第三幕第二場完結)—

第三幕

第二章場

(城內의 一室)

國王이 앉서고 그 뒤로 오옌크란쓰와길덴스다안이

들어온다

國王。

마음에 穩當치만 못할뿐 아니라 그와가 듣미친症을 버려두면 우리들의 身上에 초
치 못한일이 잇슬것이니 그대들에게 맡겨서 英吉利로 보내라고 한다。急히 國書를 받
드리 出發할 準備를 해라 時時로 더 해가는 그애의 狂態는 國家를爲해서 하는수가
업다。

길덴。

곳 準備에 着手하겠읍니다。陛下의 威權앞에 예복숨을매단 國民의 安危를 下念하심
은 至極히 當然한處分인가 하읍니다。

로오。

匹夫일지라도禍厄을避하는대는 잇는智慧를다하거늘하물며億兆養生의生死에關連되신玉體로써그냥들수가업습니다。王者는單獨히亡하는法이업고큰물회리(水渦)가타모든周圍를쓰을고들어간다는比喻의말씀이잇습니다。또는高山絶頂에裝置한큰風車와가타그큰수래바퀴가에는幾萬이라는작은物件이附着해잇기때문에萬一에그것이문허칠썩에는어셔한작은附屬物일지라도반듯이破壞됨을免치못하는것입니다。聖上陛下의嘆息에는億兆의呻吟이떨하단이는것이올시다。

國王。

그러면아모조로速히出帆할準備를해다고님우自由로橫行하는이危險物을速히외사슬로벗들어매고싶다。

로오。
킬덴。

그러면急히措處를하겠습니다。

(로오엔크란즈킬덴스다와이들어간다)
(선로오니나스들온다)

선로。

아뢰옵니다。王子殿下께서는只今母后陛下의엄해계십니다。臣은帳幕그늘에승

어 始終을 뜻고잇겠습니다。母后陛下께서는 淸寧로 嚴格하신訓戒를내리실것가름
 니다。그리하옵고陛下께서 내리신말씀과가타 아모리어지신말씀이라도 두분이마
 주안스신 그자리에自然骨肉의關係가엄지아니신까닭에 愛護하시는말씀도엄지
 아니하실것이니 한사람더숨어듯게하시는것이便利하실것가름니다。그러면 玉體
 保重하옵소서。寢所에들시거前에尊前에서 仔細한動靜을아뢰겠습니다。

國王。

고마운말이다。

(씩, 르오니 누스들이간다)

아아 이것이 무슨 큰罪惡인고 그罪惡의냄새가 환을똥까지이르렀다。이世上이 열리
 어 그 처음에는 嘔呪가 멈추어있다。死을죽인嘔呪이다。祈禱들이라고하여도 들
 일수가 없다祈禱들이라고하는 마음은 가슴가운데로부터 불려나오지마는 罪惡이
 만흔것을생각하면그러한생각도슬어저엄서지고 한씨에두일을하는것가타 이것과
 저것이 석갈려 아모일도되지안는다。……設或이怨嗟의손에 兄任의 피가누러부터
 서 二倍나늘어나도 환을에서憐愍의비가내리면 눈보다도맑게되겠지! 罪人의 몸

에照臨이업스면 大慈悲도 쓸곳이업다。祈禱할때는墮落을免한다。墮落을할지라도
 救함을어듣가。이 두가지功德이업스면 祈禱의 効果가업다。올타이우에는 한우님
 에게 빌어볼수밖게업다。나의허물은過去의일이다。……그런데 무이라고 빌어볼
 가? 非道の毒害를容恕해줍소서? 아나이러케해서는아니되겠다 죽이고섹는王位、
 王冠、王妃를그냥두고서 罪惡만免할수있슬가? 어지러운世에서는罪를犯한손
 으로도黃金으로鍍金만하면正義와公道를굽혀서, 가다가는非道로어든財貨의힘으
 로도 國家의威權을買收할수가있다。그러나하울에잇는法庭에서는 모든일을내려
 다보고잇스니 려꽃마치라도 속일수는업다。그러면어썬케하여조를가? 改過에는
 如何한罪惡이라도업서진다고하엿다。올타올타 改過의精誠으로써 그러라고하지
 마는 참으로改過가되자아니하느씨는? 아아可憐타! 죽음에싸헌이가슴! 改心을
 하라고하여도다리에 실로맨 새새씨모양으로 부비대면 부비델스록 罪惡의실뜻
 에全身이감기는苦痛살려주소서 한우님! 정성으로받니다。불상히생각하셔서 願
 固한이무름이, 鋼鐵과가튼이마음이 어딘아이의筋肉과가타軟하게됨소서! 모든

願이成就하도록합소서。

(國王이한모퉁이에 물너안져서우름을뿔코빈다)

(하물레트들어온다)

하물。

只수이야말로 舉事할때가되었다。祈禱를울리고있는저때。나의冤讎들。……그
러면 前者는天國에가겠지。……나는冤讎를잡는다? 이것은생각할것이다。惡漢이
잇서서 父王을弑殺했다。그아들이 그報償으로 그惡漢을한울에보내! 한울에……
…果然이것은 품파리의일이다。復讎는아니다。父王께서 저놈으로하여 最後를
마치실때는 塵慾이야즉도가슴에찾고 罪惡은봄철의百花와가라 피여서자랑하고
잇을때이겠지。人事를미루어他世의일을想像하면 父王의허물도또한두점겠지!
그런데저것이무어야? 只수저者는後世를빌고있는中이다。只수즉이면極樂에가겠
지。이것이 復讎의法이아니다。……그러타 只수는죽일때가아니다。醉해서누
엇실때던지, 邪淫에빠질때던지 또는勝負를決하던지 거짓盟誓를하여 救함을바들
길이업슬만치 魂靈이드러워졌을機會를기다려 썩구러트려면 二者의발굽은한울

을차고 暗黑한地獄에 거꾸르썩러져 永劫의 苦責을 맞겠지. 母后께서 기다리시겠지. 曹閔등안 목숨을 살려두는 것은 다 病을 길게 두는 것이다.

(하물레트들이간다)

國王。

말은한울에올라가도 마음은쌍을썩어나지아니한다。마음에벗어나는말은한울에到達하지아니한다。

(國王들이간다)

幕

第三幕第三場完結

第四編

第四場

(王妃의 內殿)

王妃와 섯로오니야스들이 온다。

섯로。

時方곳들이 오십니다。알아들으시도록 訓戒를 하십시오。甚惡한 作亂에 크게 怒하신 陛下의 中間에 져셔서 여러가지 말슴으로 調停하셨다는 말슴을 特히 알아들으시도록 하십시오。아니 인제는 그만 잠자코 있겠습니다。

그러면 充分히 處置하시기를

하물。(안에서)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王妃。알아들었소, 걱정마루。차아 숨게。그에 가온 것가 트니。

(섯로오니야스 睡帳뒤로 들어가 숨는다。)

(하물레트들어온다)

하물。 아니 어머니 무슨일이잇습니까

王妃。 하물레트야 너는 너의아버지께 大端한罪를지엇다。

하물。 어머니 어머니야말로 아버지께 大端한罪를지엇습니다。

王妃。 너는 무슨그런대답을하고잇노?

하물。 어머니 어머니는 正當치못한말슴을 무르십니까그런。

王妃。 그계무슨말들이냐 하물레트야。

하물。 그계무슨일입니까。

王妃。 너는나를모르는말이냐。

하물。 아니요 十字架에盟誓하여 잊(忘)치아니하겠습니다。 당신은皇后이십니다。 당신의

남편되신이 동생의皇后이십니다。 그래서……………그러케아니되엇스면 조켓습니다
마는……………저의어머니올시다。

王妃。 그런말을하면 너하고 問答을할만한사람을 불러와서 代身으로두겠다。

하물。 아아아니야호 안지심시호。 일어나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속

까지 거울에 비추어 보여 들일때까지 이 자리를 썬나셔서는 아니 됩니다。

王妃。 이게 무슨 짓이야。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안나。 거기누구업니 사람살녀라。 사람……

으로。 (숨어서) 이에이애 거기누구업니 이리오나라。 이리오나라。

하물。 (칼을 썬여 들고) 무엇이 어썬타고。 쥐다。 쥐가 왔다。 정.벌코。

(칼로 帳幕을 건너 절문다。)

으로。 (帳裡에서) 아스! 아야!

(帳裡에서 넘어져 絶命)

王妃。 저게 무슨 짓이야 사람을!

하물。 아니호。 무엇인지 알수가 업습니다。 그제 國王이 십너호。

王妃。 저게 무슨 惡行이야。 사람을 죽이다니。

하물。 사람을 죽인다。 惡行이다。 참그렸습니다。 어머니 國王을 죽이고 그아우와 結婚하

는 것만치는 惡行이 아니겠지요。

王妃。國王을 죽여서。

하물。에 어머니 그러케 말씀을 했습시다。

(帷帳을 제치고 스스로 오니아스의尸體를發見한다。)

可憐한이爆急匠이야。이 못생긴놈아。그러면이다。나는너를좀더高尚한사람이라
고생각한것이잘못이다。이것이自作自棄이라는것이다。넘어나담비면危險하다
는것을 깨닫지못하였나。(王妃에게) 그러케손은부비지마셔요。가만이안지셔요
제게다 어머니의마음을그러케싸내주셔요。만일에그것이싸서나을物質로되어
있어서。거기에다呪咀하는習慣으로天性の感覺이업서지지아니하였스면정녕코
제가싸내갓습시다。

王妃。내가어쨌다고그처럼暴惡한소리를내게다하나?

하물。어떤것이아니야요。어머니、溫雅와廉恥에는진흙을받르고、德行을僞善이라고불

러淸淨한戀愛의아름다운덕으로부터濫薇의票跡을박혀서腫氣로代身하며。곳게

매진夫婦의約束을노름군의盟誓와가리한가지로써어버린行爲。하늘로더불어

盟誓한約條에서 그精神을 빼어버려。 고마운宗教까지도 참고대와가타아는行爲입니다。 하늘도 이것을보고는얼굴을붉힐것입니다。 이여문생덩이도 愀然이빛을일허世界가只수야말로滅亡하지안홀가 근심할만한行爲입니다。

王妃。 그것이 무슨行爲인가? 그自初之終을。

하물。 이것보십시오。 이그림의形狀과이肖像을。 피를난후는兄弟間이지마는 이어룬의

눙호신氣品、 훌륭한體格、 머리는太陽神의머리와가티 곱슬거렸고、 턱은썩오바神의턱과같습니다。 軍神과가튼이눈에는三軍이보기만하여도降服할만한이선體格은使神다아큐리아가구름에숨아난高峰에屹立하신風采。 容姿의美를모아서 모든人間의거울이라고할만한 그票跡을은가神이指定해둔것가됩니다。 이어룬이야말로당신의그前 남편되시는이을시다。 그런데이분을보십시오。 이분이只수당신의남편이을시다。 삼백이보러싸과가티健全한兄弟싸을고라지게하는非道の사람。 어머니당신은눈이얼습니까? 이와가튼아름다운山牧場에서 커나온몸으로써설마이와가튼진흙으로덕을것을차지라고하엿습니까? 당신은이래도눈이

잇는 줄 압니까? 설마 이것을 생각치 못한 戀愛의 結果라고도 할 수가 없겠지요. 나
 히도 무슨 일을 分別할 만치 되셨고 쓸허오르는 미친 피도 鎮靜할 만치 되어서 온갖 일
 을 辨明할 만한 處地에 잇서서 무슨 까닭으로 여귀에서 여귀로 마음이 옮겨옵니까?
 情慾이라고 하면 一定한 感覺은 잇겠는데 그 感覺이 癡痺하였습니까? 아모리 미친 感
 覺이라고 이 와 가 리 雲泥의 差가 잇는 것을 잘못 選擇한다는 미친 것은 업겠는데 여
 한 惡魔가 이 가 리 어 머니를 놀리게 하였나? 感覺은 업더라도 눈이 잇스면, 눈은 업더
 라도 感覺이 잇스면, 手足이 업더라도 귀가 잇스면, 아모것도 다 업더라도 코가 잇
 스면, 아나미친 感覺이라고 오즉 하나만 잇스면 이 가 리 는 반하지 아니 할 것을.
 ... 아아 羞恥心아! 世上에 너의 血統은 쓴 허것나. 邪淫에는 恨은 계집의 마음도 미
 치는데, 血氣方暢한 젊은 男女가 自己의 情炎에 謹慎도 초(蠟)로 녹아 버리며 몸
 을 버리는 것은 道理에 當然한 일 이 아닌가. 부끄러워 할 것은 업다. 事理를 알 만한 것
 도 邪淫을 勸하고, 서리가 온대 도 불이 붙는다.

王妃。

오오! 하틀레트, 인제 그만 해라! 너의 말을 듣고 비릇오본 이 魂靈의 苛責. 아모리

해도 설어지지 못할 만치 검게 물든 이 마음의 드러움

하물。

아니, 드러운 기름 싹내나는臥床에 누어 잠겨서 도야지가 든 그놈과 정다운 말……

王妃。

아아, 인제 아모 말도 하지 마라。 너의 말쑥은 칼과 가터 내 귀를 썰른다。 인제 아모 말도!

하물。

極重惡人、人非人、그前男便에 比하면 百分의 一도當치 못할놈、人君中에 도가장

웃가는 여성、나 라를 도적한攫徒 남의 눈을 속여 王冠을 自己 품속에 집어 너 혀다 …

王妃。

아아, 아모 말도!

하물。

繼樓로 맨든 거 어 지 인 군 ……………

(亡靈이 現出)

大空에 계신 한우님, 아모 쓰록 이 몸을擁護해 줍소서! …………… 무슨일로 尊靈이 또

이곳에?

王妃。

아아 가엾다。 마음이 미쳤다!

하물。

不肖한 이 몸이 魯鈍한 外답에 空然이 日月을 보내서 嚴命하신 큰 일을 遷延한 그 罪를

勇氣도 사라질서 눈물만설어 짙습입니다。

王妃。

그것은누구를보고하는말이냐?

하물。

당신은 그것이란로입니까?

王妃。

어디……아모것도 보이지안는다。

하물。

소리도 들리지아니합니까?

王妃。

우리들의 소리밖에는。

하물。

그것참, 자아, 저것을! 소리도입서 그럴자와가더! 저것보시오。父皇께서

素와다르지만은 服裝으로써! 저저것! 只속저쪽으로가십니다。아! 아아번서

問밖그로!

(亡靈이사라잔다。)

王妃。

그야말로 마음이홀란것이다。心亂이될때것있지도아니한物體를 일수마음으로것

는것이다。

하물。

무엇心亂이요! 이손의脈은이와가더 健全합니다。당신과比較를해도 脈搏의間

시요。그러면 주무시요。……叔父의 寢所에는 드시지 마시요。貞操는 업슬지라도 있는 것가디나 하시요。習慣이라고 하는 怪物은 惡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절로 잊(忘)게 하는 惡魔이지 마는 조흔 行動에도 癖(마추어) 웃을 일 해서 차차로 相當하게 하는 것입니다。오늘 저녁만 약 참으시요。그러면 그 다음 저녁은 조급하고 또 그 다음에는 한層 더 쉽습니다。習慣은 天符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惡魔를 壓迫하던지 또는 不可思議의 힘으로 써 그놈을 쫓아내는 것은 定한 일입니다。그러면 다시 주무시요。冥福을 빌새가 있게 되면 나도 힘써 빌어 보래겠습니다。이………老人을

(선로오나야스들보고)

不便한 일을 하였다。그러나 이것도 天意가 날로 하여금 懲誡하게 한 것이다。나를 한 器具로 만들어 이놈에게 罰을 내리게 한 것이다。尸體를 치어버려야지 제가 犯한 罪는 제가 저야지。그러면 주무시요。……(염을 보고) 다 못이러한 慘酷한 일을 한 것도 親切한 그마음에서 나왔다。조그마한 惡한놈은 치었스나 아즉도 크다면 惡한 놈이 남아있다。……어머니 모습만 마디더。

王妃。 무슨 일을 어찌라고?

하물.

아니요。 내가 한 말은 모도 버리고 아무러거나 하시오。 그루트딩 왕國王으로부터 寢所에 오는 대로 뾰도대보고 내사량이 라고 불려 보게도 하고 淫蕩한 입도 마추며 드러운 손으로 목도 안게 하여 원갓 말을 다 해 버리시오。 나의 미친 짓은 참으로 미친 것이 아니고 實狀은 誑略으로 미쳤다는 말까지 다 해 버리시오 嘿 그러냐 하면 정말 의淑女、貞女、賢女가 아니면 누가 이리 한 큰 일을, 두썽(蟾蜍)이에게 막 쥐에게 고양이에게 출갈수가 잇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갈추겠습니까。 寓語에 잇는 것과 가티 원숭이와 가티 집옹우에서 보금자리를 해치고 새를 털은 뒤에 試驗으로 그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체목을 세었다고 하는 것과 가티 하는 것도 조켓지。

王妃。

그런 걱정은 말아라 말이 숨으로 부터 나오고 숨이 목숨으로 부터 나오면 네가 오늘 저녁에 한 말은 다른 사람에 게 할 숨과 목숨을 가지지 아니 하엿다。

하물。

내가 英吉利에 가지 아니 하면 아니 되는 줄을 아 십니까?

王妃。

참 그러치, 이 것네, 꽃가기로 作定이 되엿지。

하를。

이미 國書에 至聖까지 썼다지요。어떻게부터 親舊이지 마는 구령이가튼 두놈이使臣으로 잔다지요。내가 가라고 하는 길을 손을 내치고 傭길로 引導을 하라고 하지요。아모거나 相關이 있나요。自己가 걸어 노흔 地雷砲에 自己가 왜에 지는 것을 보는 것도 한갓 滋味겠지요。저이들과 노흔 구녕보다도 석차나 더 내기 과서 달을 겨누어서 그자들을 깃글어 털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不可思議다。萬一에 나의 討略이 외나 무다 리에서 맛나게 되면 그야말로 第一等이다。……(선로오니야스외戶體를 보고) 정녕코 이녀석이 나 썩나는 것을 催促할 것이다。傭희방으로、五臟을 攄을고 가자。어머니 물너잡니다。정말이지 이 顧問官도 살아 있을 때는 경치게 썩들기를 조하 하더니 죽고 보니까 靜肅沈默한 늬이 되고 말았구나。……자아, 오나라 너의 處置를 내가 하겠다。……나는 잡니다。어머니

(하를네트선로오니야스의 尸體를 攄을고 들이各各退場한다)

第四章

第一場

(城內의 一室)

(國王이 앉서고 그 다음王妃, 로오켄크란츠, 길덴스다안 딸아들이 온다)

國王。 그 歎息은 例事일이 아니다。仔細한事情이 어찌하던가? 그事情을 말 좀 하오。王

子는只속어대?。

王妃。 鄉들은 暫間 동안 이 자리들。

(로오켄크란츠와 길덴스다안 들어간다)

아아 참 慘酷한 일을 보았습니다。

國王。 아니! 무슨일이!! 하물레트가 어찌했다고?

王妃。 모질바람과 굵센 불길의 싸우는 것과 가티 미쳐서 날뛰는 남어지힘으로 帳幕뒤에

무슨物件이 음적이는것을 보더니 칼을싸여들고 쫓아가서 쥐(鼠)다 쥐(鼠)다 하는말이 입에서 썩러지자 散亂한마음은 아모 分揀업시 帳幕그늘에 숨어있는 老人을 쫓너 죽였습시다。

國王。

아아! 可憐한惡行! 내가萬一 거기에잇섯더면간가지 그리한變을當했겠지。그애를 그양두다가는 여러사람의 身上에 그대의몸에나 나의몸에도 아니 어셔한사람의 몸에라도 危殆한일이야 危殆한일。가사이러한일을 어셔 國民에게알게할가? 나(齡)이차지아니한狂人은 미리取締하여 사람들과한가지 석기지안케하는것이 父君되는者의責任인데 내가非難을맞지아니하지못하게되었다。惡한病에 결된者가 남이아는것을 실여하여 治療할時期를일어서 空然히목숨을버이는것과가리사람에싸져서우러들이 할일을하지아니한 갑흡니다。그런대 어로가서?。

王妃。

尸體를홀싸서 어대인지。아모價値업는 바위틈에도 黃金의 礦脈이 셋적거리는것과가리 밋척지마는 죽인일을 甚히後悔하는것같대요。

國王。

차아, 카아쓰루우드, 어서안으로! 아흠날이山우에 오르거던뚝배(船)로그애

를보내자。 그리고 오늘저녁惡行은 나의權威와 智慧로써 잘 꾸며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다。……자아！ 자아！ 칼덴스다안！

(로오켈크란츠와길덴스다안들이온다)

여러사람을 모도이리불너오너카。 하를레트의甚한 미친病은 스스로 오니야스를殺害하고 內殿에서 어대로 가버렸다。 어대로갔는지 차자석말을穩和하게하고 스스로 오니야스의尸體는禮拜堂에安置하도록하여다고。 이길로至急히。

(로오켈크란츠와길덴스다안들이간다)

자아, 카아쓰루우드, 謀略이잇는 우리(輩)들을모와서 이리한變事를말도하고 우리의所懷도들이자。 世上의誹謗은 比較하면 火石의 살대(矢)와가티이썩웃으로부터 쪼쪽썩까지 雷同을하는것이 常例이지마는 이리케먼저 設計를해두면 標準은우리의 일흔을버서나서 毒彈은 빈空中을 따치고말것이다。 자아저리로！ 마음은 놀담의 스을여 어지러이 되고만다。

(國王과王后들이간다)

第四幕

第二章

(城內의 他一室)

(하믈레트드어은타)

하믈。 安전히 숨어버려라。

킬넨。 (안에서) 하믈레트殿下。 하믈레트殿下。

로오。 이게 무슨 소리야。 부르는 것이 누구이야。 아아 들어온다。

하믈。 尸體를 어찌케 하셨습니까?

로오。 親類의 土芥와 한가지 處置해버렸다。

하믈。 場所를 가르쳐 주십시오。 거기에서 禮拜堂으로 가져갈 터이니깐요。

로오。 그러케 생각해서는 잘못이다。

로오。 그러케 생각해서라니오。

하물。 아니야, 너이들의 秘密만 지키고 나의自身은 지키지 못하는줄아니까。 그런데海

綿들이하는말을듯고 所謂王子라고하는者의 對答이 어찌케갈출알고서。

로오。 그러면 저이들을 (海綿) 이라고하십니까。

하물。 그러구말구。 國王의寵愛녀 禮物이며 權威를살고있지아니한가。 그래서 結局 그

러한官人이 王에게는큰人物이지。 王은 兪송이가食物을 덕볼진대다 잡취두는것

과가더 그러한者들을 길러두어서 처음에는 口에너허두나 나중에는 그냥삼킨다

그저 그런것이야。 너이들의 鮮야모은 物件이 쓸대가잇스면 한번출라서 힘것짜

내는것이 最後의일이다。 海綿의너이들은 本來마른物件이다。

로오。 저이들은 무슨말씀인지 한마디도 모르겠습니다。

하물。 그것이 조흔일이다。 毒한말도 얼이싸진사람의 귀에는 쓰르지아니한다。

로오。 殿下、尸體의잇는곳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한가지 陛下의게신대로가십시오。

하물。 尸體는王과한가지지마는 王은尸體와한가지잇지아니한다。王이라고하는物件은…

칼민) 『物件』이라고요 殿下。

하플。 응응, 아무것도 아닌物件이저。 자아 王이있는곳으로 대리고가자。 여호들은 이
러한것이 다모도차저…………라。

(모도물어간단)

第四幕第二場完了

第四幕

第三場

(城內의 他一室)

(國王이 侍臣을 設하들어 온다)

國王。

나는 그애를 차져서 尸體를 차져라고 命令을 했다。그러한 人物을 그냥 내어 버려 두어서는 크게 危險한 일이다。그러라고 또 嚴刑에 處할 수 없는 일은 일이다。그는 愚昧한 民衆들이 그애를 사랑하는 모양이니라。愚衆이라고 하는 것은 自己의 마음의 判斷을 求하지 아니하고 오즉 눈으로만 細音을 하니라。그래서 이러할 境遇에는 罪人을 불상히 생각하는 便이 만하서 罪라는 것을 이저 버리는 일이 만타。萬事를 圓滿平穩히 하라 하면 至急히 海外에 差遣하라 하고 하는 것도 多年 蹣跚해 온 것가 터 보이지 아니 하지 못할 것이다。危篤한 病에 危險한 治療가 必要한 것이다。그러치 아니하면 到

底히餘望이업는것이다.....

(로오쨌크란쓰들어온다)

어쨌케나 어쨌되었나。

로오。尸體를어대다 감춰두셨는지 도모지 바른말씀을 들을수가업습니다。

國王。그애는어대잇나。

로오。室外에잇습니다。處分이내리실쎄까지 侍御를지키고서。

國王。이리로 대리고오너라。

로오。여보게킬덴스다안 殿下를 이리로。

(하물레트와킬덴스다안들어온다)

國王。그런데 하물레트 쟁로오니야스 어대잇나。

하물。저녁밤中이올시다。

國王。저녁밤中이다。어대서。

하물。어대서 먹는것이아니라。먹히고잇습니다。어쨌 구덩이會함이 眞수꼭 그자에게

서宴會를始作하고잇습니다。 그구덕이라고하는것이 正말會議의王입니다。 우리들은 먹어서 살지기爲해서 動物들을 살지게합니다。 그래서 구덕이를爲해서 우리들을 살지게하는것입니다。 살진王이나 여왕거지나 다만種類가 다른 床벌임으로 접시는 들이지마는 먹는임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뜻이올시다。

國王。 하하 그것참。

하물。 그럼으로 王을먹은 구덕이로 고기를막기도하고 구덕이로 기른 生鮮을먹기도합니다。

國王。 어쨌나닭으로 그런말을하나。

하물。 아모것도아니지요。 오즉國王이라도 거지의왕자를 巡幸하는일이잇다는것을 알려게할싸를입니다。

國王。 섯로오니아스는어대잇나。

하물。 한올에잇습니다。 보러보내십시오。 使者가찾지못하거던 다른곳을 御體自身으로 차차보십시오。 그런데 正말이지 이달中에 찾지못하거던 맛장 넓은 房層層臺를

라갈새에 그내음새를맛겠지요。

國王。

(侍者에게) 거기를차져오너라。

하물。

너이들갈새까지 다라나지는아니할것이다。

(侍臣二三人들이간다)

國王。

하물레트 네가이번에한일은 우리들이 非常히痛歎이너기는바이다。그러나 한層 더마음을수고로이한너에게 安全을圖謀하라면 至急히 海外로 派遣하지안할수가업는것이다。그럼으로 速히 準備하는것이 조라 매는다 準備가되었고 바람은 願하고 隨行員도다 作定이되었다。모든사람이 英國을向하여서날뿐이다。

하물。

英國에간다지요。

國王。

그러라。

하물。

조흔일입니다。

國王。

우리들의참뜻을알기만하면。그러케말하지 안할수가업겠지。

하물。

그것을 쓸코보는 天使가보입니다。그러나 가지 莫吉利에 잡니다。어머니。

國王。

아버지라고하라고 하는말인가。

하물。

어머님입니다。 아버지 외에 어머니는 夫婦, 夫婦는 一身, 그럼으로 어머니。 잡니다

자아잡니다가지 英國에。

(하물메 드들어간다)

國王。

너이들은 뒤를설아가서 鬪배를라게해라。 遲滯는 말아라 오늘저녁에 썬나게해라
가거라여기에對해서 모든일은 多다 準備가되어있다。 아모조로速히 가다고。

(로오셀크란스·퀸덴스·미안 들어간다)

그런데 英吉利王。 너의 面上에 남아있는 덴마야크의 칼자국은 아직도 生生하게
흠어있다。 마음으로부터 畏敬하고服從하는사담에 나의큰權威는 너를命命대로
할힘이 있는줄로생각한다。 적어도 나의사랑을 重히여기면 나의命命까지라도冷
待는아니할것이지。 仔細한것은 이글가운데에 적혀있는것이다。 곧 하물레트
의 죽음을願하는것이다。 그러켰다고 英吉利王그애는 도진熱病과가리 나의피가
운대에섞여놓고다닌다。 그것을 고치는것이 너의할일이나。 일이成就되는것을 들
을썬싸지는 어썬한일이있더라도 나는것거할수가없다。

(모도들이간다)

第四幕第二場完了

第 四 幕

第 四 場

(포오린폴아쓰、隊長 兵士等進軍中)

포오

隊長은가서 덴마야크國王에伺候하고 以前勅許대로 포오린폴아쓰가 契約과가리
領內를進軍하겠다고 아되라 會合할생은알지? 萬一陛下에서 勅敎하실일이계시
면 窺見하여서 任務를하겠다고 아되라。

隊長。

그러케하겠습나다

(포오린폴아쓰와兵卒들들어간다)

(하문레트, 로오쉴, 칼덴스다인其他들이은다)

하문。

여보이것이 어대軍師들이요。

隊長。

노오일의軍隊를시다。

하물。 무슨目的인가 들려주구려。

隊長。 폴란드를치러가는길이올시다。

하물。 누구가指揮하는가요。

隊長。 노오웰老王의족하 포오틴플아쓰閣下가指揮를하는것입니다。

하물。 포오란드의本國으로가는길인가 또는그邊境으로가는것인가？

隊長。 實狀을말씀하면정말말씀이저이를뿐이고아무實質업는하잘것업는地面을어드

라고하는것이올시다 金貨나첫일을치려도그적五분이라도빌리고십저아니한쌍
假畧판다고하면노오웰에나포오란드에그以上の金額은더들어오지아니할것이
올시다。

하물。 그러면포오란드사람도防戰은하지아니하겠지。

隊長。 아니요이미守備兵을두엇다고합니다。

하물。 二千의生命과二萬兩의金貨로는이結末이아니나겠지。 이야말로國富民安에지

나치는부스럼이다。 그것이것으로는볼수가없스나속으로는몹어터져서 목숨이

危殆할地境이다 넘우나 고마운일들이다。

隊長。 暫間 물러 갔다 오겠습니다。

(隊長이 간다)

로오。 인제 行次를 하시지요。

하블。 只수 곳 뒤를 조차 갈터이니 먼점들이 가자。

(모도를이 간다)

보는 일이나 듯는 일이 모도 나를 꾸지저 鈍磨된 宿志를 채스 축질하는 것이다。 사
 람이란 무엇인가 萬一에 먹고자는 것밖에 平生을 두고 아모 큰 일하는 것이 업스면 짐
 수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정녕코 압도보고 뒤도 보는 이 偉大한 智力을 賦與한 것은,
 神妙한 이 智慧와 힘을 쓰지 안코서 녹슬게 하는 것은 天意가 아니다。 本來 내라는 物
 件은 짐승과 가티 잇(忘)기쉬운 능인가? 또는 넘우생각이 지나쳐 멀리 가늘게 지
 내친 생각이 들이여 決斷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나의 마음을 네 쪽에 난 후면 智慧
 는 오죽한 쪽본이 오섯 쪽은 天性이 겁쟁이..... 하지만 호변 아니 理由도 잇고 意思

와力量과 手段까지잇스면사업으로「한다고」만하고말字를보내는것은 무슨싸담
 인가 大地와가치明白한先例가 몇번이나나를채入축질하였다。저軍士들을보아라
 人數라든지 費用이라든지 莫大한저軍士들을, 아즉도 軟弱한貴公子가 遠大한뜻
 을품은싸담에 이가티軍師를식고보이지안는귀일을 생각치도안코 有爲無常의
 一身을 運과죽음과 危險에 들어내어 鷄卵설질만도못한物件을가지고 다투고잇
 다 崑崙한理由업시 다루는것은 偉人의 할바이아니나 大義와名譽가결린곳에는오
 즉하나 현신씩이라도 다루(아니)치 못할것이다。그러면 나는어찌한가? 아버지
 를죽이고 어머니를辱보이어 理致로나 情理로 참지 못할것을 참고잇다는것은!
 眼前에二萬이라고하는壯丁이 나들보라는듯이 幻影과가타名譽를爲하여 寢所에가
 는것과가타 自己의죽을場所에가지안는가? 싸울사람의 數交도채우지 못할만한,
 戰死한兵卒을무들만치도못된 죽오마한 쌍덩이를爲하여! 아아오을以後부터는
 나의마음을 惡魔와가타, 그러치아니하면 寸毫의價値도업다。

(하를레트들이간다)

第五場

엘시노오아 城內의 一室

(王妃 언점서고호레에시오와한紳士들이은다)

王妃。

맛날必要가업지?

紳士。

귀여이講見을하겠다고합니다。미친마음은 참아불수가업습니다。

王妃。

무슨일로보랴고하나?

紳士。

어썬일인지 亡父의말을 가꿈합니다。이世上에는 여러가지 陰謀가있다는말을하면서기침을하고 가슴을뚜다리며석 반미침으로침(藥)을차서혈고 半밖에모를曖昧한소리하고잇습니다。하는말이한가지도 準信은할수가업스나 듯는사람의 마음으로써 이리케도생각하고저러케도 解釋할짜름이올시다。어찌되었든지 그눈瞳구라든지 손짓하는것이라든지고개짓하는것이 態度는曖昧하나마 들어보면容易치아니한 不祥事가잇는출생각이듭니다。

王妃。

불러들여라。(紳士를 向하여) 흠집잇는 마음에는些少한일이라도 큰變怪나난것갓
리야 단법석을하는것이치。죽으나한疑心을 품고만잇스면 그것을 감추라고하는
그行動에 들어어罪의證據가나타나는것이야。

(以前の紳士가 이친 오휘리야 불러다리고들어온다)

오휘。

덴마아크의皇后陛下는어대계신가?

王妃。

이리로, 오휘리야야

오휘。

(노래한다)

네가참뜻으로사랑하는사람과

무엇으로判斷하여알아낼가。

자개로꾸민샷갓미래

지팽이한쪽손에집신을신고。

王妃。

오휘리야야 그노래의뜻은?

오휘。

무어라하셨습니까? 아즉더들으십시오。

(노래)

只속이世上에 모든 사람들

말미래는地獄、머리우에는

언제든지 한삼풀이우 것것다네

호오우

王妃。 이에 오휘리야야 잠간멈추라

오휘。 아니 덕들어보셔요

(노래)

눈과가티보이는壽衣자락에

(國王이들어온다)

王妃。 보십시오저것을。

오휘。 (노래)

씻어싸헌눈물비엔

저것서가는길이穿壤터일세

國王。

오휘리야야 어찌냐 無事하냐?

오휘。

惶悚하옵니다! 을쌌이라고하는새는 광석집쌀이라고하지오。 오늘일은알아도내
일이어찌캐될는지。 玉體를保重하옵소서。

國王。

들어간아버지를생각하는것이로군。

오휘。

아모조록 그런말씀은마십시오。 그러치마는무슨일인지누구가뭇거든이러케말
씀하여주세요。

(노래)

來日은十四日나렌친祭日

門가에귀기울여먼동들썩에

님이야든말든그만두고서

보기가무섭게門을열고서

손잡아쓰으러방안으로

純潔한處女자랑업서첫네

國王。

可憐한오휘리야야

오휘。

아니 정말이지요 盟誓업시 족음더 노래나합시다。

(노래)

정말이지생각하면、생각하면정말이지

아모리王族의버릇이라도

그것은넘우도甚한일이다

사나히가하는말은

나도盟誓대로하자했더니

하로밤자고보니말이變했네

國王。

저러케된지가 오래인가?

오휘。

무슨일이든지 멀지아니하여서 解決이되겠지요。사람이라고하는것은 忍耐가 第一입니다。그러라고술고만잇슬것도아니다 추운곳에누어잇는것가티생각이들

어도 얼마 아니 되어 음바가 와서 가르쳐주시겠지。意味깊은訓誡 넘우나惶悚합니
다。……자아자아내馬車를……잡니다。여러분잡니다。잡니다잡니다。

(오휘리야들이간다)

國王。

그뒤를살아가서 돌보아주어라……

(호레에서오들어간다)

야야 이야말로 만흔숨흘의 毒害이다。적것이畢竟은 어버이를일흔原因으로 생
진것이다야야 카야쓰루우드야 도모지禍厄이라고하는것은 敵軍의間牒者와가티
하나로는오지아니하고 여럿이한대습해서 오는것이常事이다설로오니아스의意外
의慘死는 아모리自過라고하겠지마는 그아들이海外에流寓하여잇는것을 나도생
각치못하고 몰내尸體를무든사담에 愚民들이臆測으로騷擾들이르키고 오휘리야
도또저러케 미친病까지 생기었는데 그中에도 걱정되는것은 그오라벌되는 데에
야야치이스다 몰래 佛蘭西로부터돌아와서 閭巷의蜚語에激動되어 나를疑心하는
模樣아아카아쓰루우드야 이것저것모도 나의가슴은 矢石과暴彈에마친것갓다。

(목자한소리를린다)

王妃。

저게 무슨騒動이야?

國王。

스위쓰루의力士가只今어대잇나? 들어오는門을꼭잡그라고하여라……………

(한사람의臣下들이온다)

무슨일이야?

臣下。

急한이자리를 썬나시게하옵소서 성넨바다의물결넘치는것가터, 暴徒들이살고 레
에야아치이쓰가 宮中에亂入하여 官人을擊退하고只今當場이자리에들어오케되었
습니다。暴徒는그를王이라고불러서 世界가새로와진다고하며 古典과慣習을잇고
오죽그者들의말로써基柱를삼아「레에야아치이쓰를國王을삼기爲하야 우리들이
推戴한다」하며帽子를벗어던지면손벽을치며「레에야아치이쓰는國王이다」라고
우뢰와가터 썬드립니다。

王妃。

갈길을차저가지아지하고 무엇을좌탕으로 짓고(吠)잇는고! 아아道理에벗어나는
덴따이크의산양개들!

(안애 悽慘한 大聲)

國王。

아아! 門을 깨덜 었다。

(때에야 아드 甲胃로 칼을 손에 든 채로 들어 오고 그 뒤를 暴徒들이 쫓았다)

때에。

國王은 어대 잇는가……… 여럿은 아즉 동안 뒤로 물러가 잇게。

暴徒。

아니, 우리들 도들어 갈 터이야요。

때에。

아니, 여러분은 모든 일을 내게 맡기고 下回만 기다리오。

暴徒。

그러면 물러가 잇겠습시다……… 자아 물러들 갑시다。

(暴徒 門外로 들어간다)

때에。

내 말을 잘 服從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요 門이나 든 든히 잘 지키오……… 이 無道한 인군

우리 아버지 는 어찌 깨 하엿나。

王妃。

鎮定을 하게 때에야 아치이쓰。

때에。

鎮定을 해라。이 때에 이르러 한 방울이라도 鎮定할 피가 잇스면 이 때에야 아치이쓰

의 몸은 우리 아버지 의 뼈가 아니고 奸夫의 설어 털인 씨라고 淸淨潔白한 우리 어머니

의이마에다 淫婦라는火印을 찍을 것이다。

國王。

레이야아치이쓰 무슨사담으로 이러한것을하나。그냥내여버려두어라 카아쓰루
우드。나의몸에는죽음도 근심을말아라 國王의몸에는한을싸하노흔 牆壁이잇서
逆賊이엇보아도그것은다만 담으로터친들뿐이오 그뜻을到達하지못하는것이다
……레이야아치이쓰야웨이가티發狂을하나…… 카아쓰루우드 가만히내버려두
어……말을해라。

레이。

우리아버지는 어대잇나?

國王。

이세상의는업다。

레이。

그태도그것이 國王의리물아아니다。

國王。

그태하고십흔말은다해라。

레이。

무슨일로世上을터렛는가? 속일라고하여도속을내가아니다。君臣의盟約은 오늘
限해서地獄터렸다! 惡魔를유엇다! 良心과信仰이잇는줄아는가! 後世에도업고
現世에도업다! 자아이체는 地獄의글형에싸지더래도 생각대로 怨讎를잡고말터

이다。

國王。

어찌케하면 자네의 저狂病을抑制할고?

래에。

나의意志가許諾치를아니하면 온世上힘들다가저온다고하여도 抑制할수는업다。

나의힘에는限定이잇드래도 그限定잇는힘을 充當하게 充分히써보일터이야。

國王。

래에야아치이쓰야 先父의橫死한顛末을攷細하알라고하자마는 그것이復讎하는마

당에는彼我的分別업시 善惡一統으로 함부로치라고하지?

래에。

아니지。目標는 아버지의冤讎뿐。

國王。

그러면 冤讎가알고집다。

래에。

아버지의 조흔친구님에게는 이와가타 두팔을피서 子息을爲하여 목숨을아끼지

아니하는뻘리칸새와가타 나의피를싸서라도 響應을할터이야

國王。

그러케하여야만 孝子도되고 紳士도되는것이야。 先父의橫死에對해서는 내게는

조금도 잘못이업는것은勿論。 돌이어나도그대만치나悲嘆이생각하는것은 그대

가 判斷力이잇고보면 해를보는것보다도 더明白할것이다。

暴徒。

(안에서) 드가시게 해라 드가시게 해라。

레에。

무어야 저녀 드는 것이오?

(오휘리야 前보다 한층 더發狂의態度로 여러가지花草를 여러와목에 걸고 들어온다)

아아 뜨거운氣運아 나의腦漿을 말라엄세라여러번피로움에치인 이눈물엔 物狀
을보는함까지腐爛해졌다! 아니 누의야 내가밧치게된그冤讎는 이오라범되는내
가 하술에盟誓하고저술에달면 天秤접시가 뒤쳐질씨까지 報復을할것이다。씨뜻
한봄날씩薔薇! 아싸운내누의, 아리씨운處女, 可憐한오휘리야야……: 아아가엽
다! 폴씩가튼處女의마음도 老人의목숨과가티 힘업시죽으라하느냐? 性情은愛
慕에쌀하美妙하게되는것이다 그美妙한魂靈이 戀慕하는그늘뒤를쌀하서 돌아오
지못할씨에서 憧憬하는것인가?

오휘。

(노래)

얼굴도답지안코靈覺馬車에

하이논논네? 하이논네에

에墓터에설어지는눈들의비가.....

쓰블시다!

래에。 平陸의마음으로宛雛를감하달나고하여도 이가타는나의마음을 더음즉이지못할

것이다。

오회。 이러케 노래들하지 안흐면아니 되겠지。

(노래)

싸운, 나, 싸운。

萬一에싸운나라고부르면。

아아참 뜻갓다! 그계집아이들 도적질한不義의놈은 그집에잇는差人軍이다。

래에。 갈피업는말이 마음잇는이보다。 몇百倍나더하다。

오회。 자아 여귀에迷迭香이있다。 萬年토록變찬다는證據의紀念이다。 이것은 잊지마라

야하오그리고 이것이蝴蝶草, 잊지말고 생각하라는것이야。

래에。 미친症에도 가르감이있다。 잊고잇서도 事物을생각하하라는것은理致에當然한일

오휘。

자아(主我)가對하연() 당신에게는 苗香의 뜻과 小田菘草() (妃에게) 당신에게는 들
아오지 못하는 옛날을悔恨하는를, 나도하나 잔다 두지。 이것이 安息日의 恩惠의를
이 라고 하는것。 아야다시고 처 奴자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잔菊花。 당신에게
菊花를 줄라고 하였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後로 모도 물어아지고 말았다。 남들이 잘 죽
엇다고 한다。……………(노래)

사랑스런 한가운 로센氏여……………

래에。

근심과 苦痛과 艱難。 그보다 더 한 地獄의 苦責까지도 받갈고 아름다운 物件。로 變해
잇다。

오휘。

(노래)

또다시 그대는 오지 않는가?

그대는 또다시 오지 않는가?

돌아 오지 안노나 그대가 죽으면、

이 목숨이 부터 잇을 췌까지、

기다려도 그대는 아니 오겠지,

巖窟에는 白雪이 썩 썩 날리고

머리는 상늘가리 허트러 젖는데

이世上에 그대는 잊지 안코나

내가 비록 슬피 한들 할 일 업도다.

한우님오도으소서 그靈魂을

썰하서 여러분의靈魂도도으소서 잡니다 또 불시다.

(오 귀리야 들어간다)

國王。

례에야 치이 쓰야 너의 그 슬픔을 나에게도 논하다고, 그러치 아니하면 好意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케 된以上에는 내가 생각하는 有爲의 두려를 불니 모아서 是非曲直을 判斷해라. 假令그네들이 나에게 罪가 있다고 하면 이나라와 이冠과 이목숨과 모든나의 財寶를 그代償으로 그대에게 줄 것이다. 그리한대 萬一에 罪將가 업다 고 作定이 되겠거든 마음을 鎮定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드러라. 그러케 하면 나도 힘을 습

하여너의所願하는바를풀어주마。

래예。

그러케할수만잇스면 그러케합시다。先親의不意之變、可憐한埋葬式、遺을骨우
일紀念도업고 칼과勳章도걸지아니하고 아모儀式과節次업는葬式、한을로부터쌍
의똥까지怨痛한소리를걸러 이罪를밝히고말것이다。

國王。

果然그러케할것이다。罪釋가잇는곳에 罰의斧鉞을내려라。자아한가지안으로。

(王과한가지대세야아쇠이쓰들이간단)

.....(第五場畢).....

第四幕

第六場

城內의 他 一室

(호메에 시오란 侍者들이 온다)

호메。 나를 만나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야

侍者。 배사람입니다。 便紙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호메。 이리로 드려오라고 해라……………

(侍者들이 간다)

世界어찌한곳에서든지 내개消息을 보낼이는업다。 하플레트殿下가아니면。

(배사람들이 온다)

水夫。 問安을드립니다。

호레。 너도 잘 잊었나。

水夫。 惶悚하옵니다。 여기에 便紙 가져온 것이 잊습니다。 英國으로 썬 나실使臣에게서 보

내신 書簡이 잊습니다。

호레。

(읽는다)

『호레에서 소足下 이 便紙를 보신後에 이 무리로 하여곰 王에게 謁見하도록 하여 주시요。 그네들은 王께 올릴 글을 가져옵니다。 바다에 나서서 아득 사흘을 지나지 못하여 至極히 慄悍한 海賊의 一隊는 우리들을 襲擊하였습니다。 뜻대길 이 더됨을 發見한 우러들은 不得已하여 勇氣를 鼓吹하여 接戰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賊船으로 썬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이미 두배가 한가지 距離를 멀리 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나는 혼자 하는 수업시 捕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賊이나 義賊과 가리 待接함은 大概 뒤를 두어나를 利用코 자하는 것 같습니다。 國王께 나의 글을 올리고 足下는 죽을 만한 全速力으로 나에게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足下가 뜻기만 하면기가 막힌 奇聞이 잊지 마는 말은 뜻을 다 하기에 넘우나 가범은 嫌疑가 업지아

니 합니다 이善良한徒輩는 足下를 나에게까지 『갈案內할 줄 믿습니다。』 로 오썬크
판스, 쥘덴쓰다안 두손은 英國으로 갔습니다。 그네들이 약이는 限量엄시 가슴
에 품어 있습니다。 不備禮。

『足下의竹馬之友 하를레트』

자아 으니다 가저온 䟽狀을 陛下에 올릴 길을 講求해보자。 될수잇스면 速히일을마
치고 이줄을보낸사람에게 案內해다고。

第七章

城內의他 一室

(國王과레에야아치이쓰들어온다)

國王。

이운에는더나를疑心할것이엄지 그러면인제는나를 信友로밧지 아니하면 아니되
겟지 일의前後를仔細히들으면 君의父君을殺害한者가나외목숨까지 영본것인줄
알수가잇겟지。

레에。

果然그러하다고도 할수가잇습니다。 그러나무슨싸움으로그러한行動에對해서——

罪惡이 가득하고 生命에도關係되는 惡行爲에對해서——相當한處分을하지아니하
 십니까。一身의生命이달렸는데 智慧를다해서 모든그다른物件으로서도 첫째그
 냥들수업을만한暴行인데。

國王。

아아, 그것은 두가지의 理由가있다。그理由에對해서 그대는 그처럼重大히 생
 각을하지아니할는지 모르지만은 내게對해서는 매우有力한것이니 첫째는그어머
 니되는王妃가 그얼굴을보지못하면 견대지못할것갓고 그린우에 내게에는……
 德不德은舉論할것업시 王妃는 나의心身を붓들어매는노흔과가티 별이星座를써
 나지못하는것가티 나도王妃를싫어저서는 한時도잇슬수가업는것이다。그다음公
 共的罪過를論議치못하는第二의動機는 一般愚民이그를信愛하는外담이다。萬一
 에 그러한愚民의愛情 그過失을 적실것가트면 靈泉이나 무를들로變하게하는것과
 殃가티 重罪가化해서 美德이될것이다。그래서서 를리罰주랴고견준화살은 世論
 의逆風에 날려서 들우내게로 들어 마질는지도 모른다。

헤에。 그러면, 나는속절업지父君을일코누의동생하나를 絶望의狂症에빠지게한것인가

둘이어 그것을稱讚할것가트면 不足한것업는 古수를두고도 匹敵이업는
女子를 어대보자 이월수는 반듯이 잡고말것이다。

國王。

그런일은 걱정말게。鬚髯에불이 부를만한 危險에 興치내는 그러한 虛氣者로는
나를 생각치 아니할것이니까。? 不遠問다시 한번이약을하세。내가君의先父도
생각하는마음이懇切하지마는 나의自身도생각하는것이니까。 그틈만생각하고잇
게。.....

(疏狀을가친臣下들이온다)

무슨일이야。

臣下。

하믈레트殿下께서 보내신上疏을시다。 이것은陛下께 이것은內殿에。

國王。

하믈레트에게서라니。 누가 가져왔나?

臣下。

船人が른이라고하옵니다。小臣은 맛나외음지 못하고 크로데이오의손에서 바닷

사오나그는가저은사람으로 부터서 바든것이라고하옵니다。

國王。

래에야치이쓰어대보아보자。.....물러가거라

(臣下退去)

(외는다)

『至高至嚴한國王陛下가 살가百拜로 이글을올리나이다。臣이赤身으로 이邦土에 들어 오게 된 것을奏達하옵내다。來日아침에는天顔을咫尺에 밋들어 萬一賤願을許賜하실것이시면 寬大하신慈悲心에 歸依하여唐突히歸國한顛末을다시奏達하옵겠습니다』

하플레트』

이게엇진싸담인가。다른사람들도다돌아왔는지또영터리도없는지
엇말이나안
지?

레예。筆蹟을斟酌하시지못하십니까。

國王。確實한 하플레트의筆蹟은筆蹟이다。『赤身으로』……의改漆한것과 『혼자』라고 써있다。자네의意見에는?。

레예。도모지 싸담을모르겠습니다。그러나돌아온것은바라든바이올시다。그말을들。

니 업든勇氣가百倍나 더 납니다。王子께 面對하여 事實을 詰問할 것이 을시다。

國王。

레에야 치이쓰야 萬一에 歸國의 適實하거든 어찌케 하여 歸國을 하엿는지 何如間歸

國을 하엿는즉 모든 善後策을 나의 뜻대로 조출터인가?

레에。

뜻셋습니다。萬一에 武士의 名譽에 損失만 업스면。

國王。

名實을 完全하하 작고 하기 썩은이다。제가 따음을 잡지 못하고 中途에서 돌아와 다시

또 건너 갈마음이 업스면 내가 저를 타일려서 일즉이 計劃해둔 그 일을 試驗코자 한다

제가 글로 困하여 목숨이 업서지는 썩에는 아무도 하나 惡評한사관이 업고 現在에 제

어머니되는 사람도 計畧인 줄은 모르고 不意之 主變인 줄 알았 것이다。

레에。

그럴것가 트면 小官도 僥意를 좃겠습다。萬一 그 일을 小官으로 하여곰 擔當케 하시

면 더욱이 바라는 바이 을시다。

國王。

그것은 나도 願하는 바이다。君은 外遊以來로 여러 가지로 말거리가 된 일도 잇섯다。그

것이 하물레트 面前에서 내가 第一 詰問하는 그 관가지 재조에 對해서는 더욱이 이를

이 납혔다。君의 모든 재조를 다 모아 노터래도 그것한가지 말치 하물레트가 부러워하

저는 아녀하였다. 나의 눈으로 볼 것가 트면 그것은 君의 다른 계조에 비하면 하잘것
없는 것가 더 생각이 드는 것인데.....

데에. 그 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國王. 젊은 사람의 帽子 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 한 업지 못할 物件이다. 하여지면 健

壯과 品位를 主旨로 한 黑色衣服이 適合한 것가 더 젊은 사람에게는 輕快하고 活潑
한 衣服이 맞는 것이다. 두 달 전에 여기에 노루만대이 騎士들이 왔다. 나는 親이 보기
도 하고 싸워도 보았지만 佛蘭西사람들의 馬術에 巧妙한 것도 알지마는 이 武士들에게
는 그중에 또 神通力을 가지고 있었다. 안장에 들어부터서 神出鬼沒하게 돌아다니면
서도 駿馬와 合體가 되어 人獸姓을 分揀한 것가 더 아모리 想像을 하여도 하는 수 업서
그 實狀에는 미칠 수가 업었다.

데에. 놀루만 사람이 업섯습니까.

國王. 놀루만 사람이 엷섯다?

데에. 그러면 아마라도 이 엷섯지요.

國王。

그러타。

레에。

그 사람이면 저도 잘압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그나라의 한자랑 거러압니다。

國王。

그 사람이 투구 쓴을 쓸어 노코 君의 妙技를 자랑하고갓다。 君이 護身術을 鍛鍊한가 운데도 特別히 小刀 劔術에 이르러서는 그대를 對敵해낼 사람이 잇기만하면 그야 말로 불만한것이라 고하였고, 또 佛蘭西 劔客들은 그대가 썬듯거리기만하면 進退라든 지 守衛라든지 着眼이라고 하는것을 엄두도 낼수가업다고 盟誓하다 심히 하였스니 짜。 이 말이 第一하늘레트를 부러움게 刺戟을 주어서 잊지하였든지 君이 急히 歸國할機會가 잇서서 한번 試合하여 보기를 매우바라는 모양이다。 그러니 只수이것을가지고…………。

레에。

그것으로 因緣하여서?

國王。

레에야 아치쓰 정말로 아버지 생각이 懇切한가? 그러치 아니하면 눈물은 남보는

대뿐이고 마음과 가슴은 鮮관인가?

레에。

두손 緣故로 그러한 말슴을?

國王。

父君을 思慕하는 孝心이 君에게 업다 고 하지는 아니 하지 마는 모든 사람이 라고 하는 것은 어찌한 時機에 始作되고 또 어찌한 時機에는 弗 및 가라 旺盛함은 우리들의 親히 聞見하는 바이 아닌가。 타 오르는 사랑의 弗 및 가운대는 타지 아니 하는 어두운 燈心가든 것이 생기지 아니 하는 가 모든 物件은 오랫동안 善이 라고 하는 것이 업다。 왜 그러냐 하면 善도 오래지면 지내는 그 길로 亡하는 것이다。 하라고 생각 하는 일은 생각할 그 때에 곳 할 것이다。 그러치 아니 하면 생각한 그 일이 여러가지로 變化를 해서 허로 입으로 쓴으로 일로 世上에 잇는 대로 變遷해 가는 것이다。 어찌한 때에 하라고 하는 것도 放蕩者의 한술과 가라 한 때에 安心할 거라 생각으로 畢竟은 그 때에 外지 害가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잊지 되었는지 하를 때 트가 歸國한 一件은 그대로 하여금 어찌한 計劃으로 써 남의 子息된 道理를 지키라 고 하는가? 말쑥만 말고。

데에。

敎會堂의 복판에서 王子의 목을 버려 썰어 털이 겹습니다。

國王。

정말이지 如何한 靈場이라도 殺人의 大罪人을 弒혀 두지는 아니 할 터이지 復讎에는 아모런 境界가 업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야 아차이 쓰야이 復讐를 회하거던 열마 동안

집에 들어 나오지 말아라。 하플레트가 돌아오거던 자네가歸國하였다고 알려주고
일부러 사람을 보내여 자네의優秀한技量을 稱頌케 하여 佛蘭西사람들이 한말에 두
번 거덜漆을 올려서 結局은 雙方이다 내기로 試合을 하게 하자。計畧인 줄은 꿈에도 생
각치 못하는 바보의 正直者니까 칼날은 가다듬지 아니하겠지。그리고 보면 容易하게
죽으나 한 속임으로써 計畧과 가라 父君의 怨讎를 감홀 것이다。

레에。

處分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計畧대로 하는대는 臣의 칼에 발을 物件이 있습니다
일즉 香具師에게 서사서 둔기를 藥、이 藥을 한번 칼끝에 발르기만 하면 죽으나 만 한 흠
집만 생겨도 반듯이 목숨이 업서 집니다。月下에 모든 靈草로 調製한 名骨의 힘이라도
救해 낼 수가 업습니다 臣은 이 藥을 칼끝에 발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비록 가벼운 흠
집이 생기드래도 목숨을 썩앗기가 쉽겠지요。

國王。

이우에도 더욱이 深思熟慮하여 우리들의 目的을 達하도록 時機와 手段의 便宜를 旋
力해 보자 萬一에 이일이 破綻되어서 이러한 計畧이 틀어 날 것가 트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만 두는 것이 을 혼일이다。 그러므로 이計畧에는 처음 手段이 失敗를 하드래도 第

二의手段을고치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가만히있서……거기다무슨手段을 좀더너려야지……올치생각했다。試合을한참하여이겼다。정다할그때는몸에熱이나고목이과를것은定한일일것이니……아니꼭그럴것이야……일부러激烈하게挑戰을하게……그리면반듯이제가무엇이든지飲料를求할것이다。그때에나는酒盃를準備하여두었다가그것을먹이면毒刀를免할지언정여과서견뎌는選치 못할것이다。……누가오나?

(王妃惶惶히들어온다)

王妃。 발굽을잇단不幸과不幸。……테에야치이쓰야그대의누의등생이물에싸져죽었다。
레에。 무어요? 싸져서! 어대서요?

王妃。 휘어져갓드린버더나무가엽등(葉背)을琉璃가터미치운적은내가에、雛菊、尋麻毛蓑……空然히農夫들은淫亂하다고부르지만淸淨한處女들은죽은사람의손가락이라고부르고있는……芝蘭의뜻으로민든花環을손에다들고미쳐서憧憬하는그마음으로느러친버들가지에걸너갔다가無情한버들가지부러지는그들

에 솟과뭍이 한가지 물에 떨어져 처음에는衣裳에 걸려서 人魚와 가라 썩을라서 自己의不幸을 아지 못함인지 本來부터 물에서 사는 사람과 가라 노래를 몇마디 부르드니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디디어 衣服이 물을 먹음어 그 무게에 신을 려서 노래와 한가지 물 몇해가 란고 마랏다。

태에。
아아! 그러면 누이가 썩쳐 죽었나。

王妃。
썩쳐 죽었다 썩쳐 죽은 것이다。

태에。
불상한 누이야 너는 물을 만히 먹었겠지 나는 눈물을 흘리라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

나이것이 버릇이다。 눈물이 아니나 오고는 견디지 못한다。 웃으라거든 웃어라 習慣은 人力으로 어썩케 하는 수가 없다。 이것이 다 저 내 버리면 弱한性質도 다 하고 말겠지 물러잡나 다 陛下。 烈火로 타오르는 文句는 잊지 마는 이 愚鈍한 物件에 사라지고 말겠지。

(태에야 처이 쓰올며 드리갈다)

國王。
자아 우리는 저 뒤를 살아가자 카아 쓰루으드 그 성념을 鎮靜시키기에 얼마나 힘이 들

었는지 모른다。 이 내 이 일로 困하여 再發이 될는지 도 念慮이다。 우리들은 살아가 보자。

(國王과王妃들이 간다)

第五幕

第一場

墓 地

(甲乙兩人의 어리광대(穿壞軍) 풍이와 쌍과는器具를가지고들어온다)

甲人。 제마음대로 죽은女子를 正式葬禮를지내지아니하면아니되는것인지。

乙人。 아마그런것이지。 어서묘사자리나과계。 檢尸하는官人이檢査한結果、 正式으로지

내도關係찬라고했네。

甲人。 어더케正式으로葬式이되는것인가。 내몸을爲해서 投身한것도아닌데。

乙人。 무엇! 그러케되겠지。

甲人。 아모래도 그러케되라면 自身暴擧가아니면아니될것이다。 第一먼저眼目이如斯한

것이다。 나의自身으로도 合意한投身, 알아있서 그것이所行이라고하는것이다。

所行에는 세가지部分이 있는 것이니 첫째는行한다고 하는 것 둘째는 한다고 하는 것 셋째는 이론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저女子는 結局自己의知覺으로投身한 것 이라고 하지안할수업지。

乙人。 자아내말좀들어주시요……………

甲人。 말을하게 알아잇서, 여기에물이있다고하자알겠서 여기에는 사람이씨잇다。 萬若사람이물속에들어가서 빠져죽었다면 그것은조코인썬튼 自己가行한일이다。 …… 자아記憶해두어그러나萬一에물이와서 빠져죽었다고하면 그것은 投身이아 니다。 그리함으로 내가내목숨을縮少시키지아니한以上에는 自殺이라는 罪는當 할수가업는것이다。

乙人。 그것이 우入兩班의法律인가요。

甲人。 그러치, 그것이 檢尸하는法律이란다。

乙人。 정말바른말이지 이것이 지체높은貴婦人이아니엇섯드면 正式葬禮는 못지내는것 이다。

甲人。 그러라。 네말과갓다。 지체가높은사람일스록普通信者보담도 投身을하던지 목을

매는데便利한點이 많은것은 우스울일이다。 자아한참과보샤。 大體이世上에 들쌘
이느이와(庭式)개천과는이와 매와는이가터 오랜大家는업는것이다。 아담氏의職
業을 그대로바다 내려왔스니싸。

乙人。 아담氏는 身分이높으신 양반이던가요。

甲人。 第一먼점 우리의器具를잡으신이란다。

乙人。 무엇! 잡으셨겠나。

甲人。 호응! 자네는 異教徒인가。 그러면聖書를어써개解釋하나, 聖書에도『아담이파
시다』라고써있지안흔가。 器具가업고야 어써케과셨겠나。 그리고 또한마디무들
말이있다 그말에對答을못하거던 窶降服을해라……………。

乙人。 자아듯저。

甲人。 石手보담도, 木手보담도 또는 배짖는木手보담도 第一튼튼한것을 맨드는사람은
누구인줄아나。

乙人。絞首臺를 맨드는 사람이다。主人이 幾千이나 밧귀더라도 破壞되는일이 없는것이다。

甲人。그것참매우 滋味있는말이다。絞首臺란말이 조흔말이다。조키는 조흔나 무슨사담

에 조흔지? 낫본놈을懲治하는대는 조흔것이나 敎會堂보다堅固하다는말은 조치
못한일이다。結局자매가리 조치못한사람에게 合當한말이다。차아다시고쳐서말
해보자。

乙人。『石手보담도。木手보담도 또는 배치는木手보담도 第一튼튼한것을맨드는사람은

누구라고

甲人。얼핏對答을해서責任을免하게。

乙人。응응알았다。

甲人。그러면말해。

乙人。아니알수업서

(멀리서 하물메트와 호로메시오 들어온다)

甲人。天性이愚頓한 머리를짜내지마라라。病身당나귀는 아모리 매질을하더라도 더거

를 수는 업는 것이다。 그러니 짜인제 누가 그런 말을 못 거던 『穿壙軍』이라 고하게 穿壙軍이 멘드는 집을 審判日까지 繼續되는 것이다。 자아 요, 오, 앞에게 가서 술한잔바다 오너라。

(乙人이나 잔다。穿壙軍 혼자 노래한다)

나亦是 젊을적엔 戀愛個나 하엿지만,

色이란 元來가 작난꺼리,

歲月이 갈스 록이 품이 이러케

只속은 이것저것 우스운 일。

하물。

저녀석이 모를파 면서 소리 하는것을 보니 짜제가 하는그일에 興味를 못가지는 모양이

야?

호레。

習慣이 되어서 아모러치도 아니한 것이지요。

하물。

아마 그런 것이 지 적게 使用한 손에는 조그마한 것이라 感覺하는 것이야。

甲人。

(노래)

할자 최엄시오는 늙음

어느 때 별서 내게 도왔네

스래는 島中에 버린 것이

불수업시變(환이런物件

(라고 노래하며 頭蓋骨을 집어던진다)

하물。 저 髑髏에 도허가잇서서 일즉이 노래를부른일도잇섯것지 사람즉이는 元祖카인의

頭骨인것가타 저자가 던지고있다。只속이야말로匹夫에게 糶弄되지마는 根本은

한우님의 눈을 眩惶케하는 政治家의 머리뼈인지도 알수업지 그러찬켓나, 호메시오。

(甲이 所씨를 집어던진다)

호메。 그럴는지도모르지요。

하물。 그러치아니하면 廷臣의머리로 『問安을림니다。 陛下에。玉體萬寧하옵시니까』라

고하지아니하였는지도모르지。

호메。 참그러습니다。

하물。

아니 꼭 그러하다。 그러나 모습은 구덩이의 所有덕도 업시 일군의 호미스레씩 히
기만하지 그러나, 여기에 幽妙한有爲轉變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아아! 저러한白骨들이 호미숫작난씨가 되라고 養成된 것인가? 생각을 하면가
슴이 압하다。

甲人。

(노래)

호미에꼭땡이 꼭땡이호미

부터서단이는것「臘惟子」요。

과내여혹으로맨든이土室은,

이가튼손남에게相當하단나。

(라고하며欄欄을파넌다)

하물。

또하나이야。 이것이어셔한代言人의 骸骨이아닌지도모른다。 그의長技인 推脫,
詭辯, 裁判例, 所有權, 騙詐들은 다 어셔켓나? 웨이런農夫의 늑스땡이스데대
갈등을어더마지면서 가만히잇는가? 웨 歐打律의 訟訴을 일으키지안는가? 호

응! 或은이 者가 生存 하엿을 卞에 만한 土地를 買收 하여 律令인지, 承認인지. 或은 終結讓與, 二重證人, 返納讓與等이라고 卞들고 단 是는 놈들이 겠는데. 이가 頭 蓋骨을 들고 돌아 단 이는 것이 所謂 終結讓與의 終結로 返納讓與의 返報인지. 그 證人 도 別서 買收權에 有利의 證書를 주지 아니 하는가 二重證人 이라도 또한 交換 契約 書의 面積보담 족음 더 쓸대 가 업슬는지. 이 國中 에는 土地讓渡의 證書라 도 업겠지. 더구나 讓受한 本人 일지라도 이 模樣이 아니 되면 아니 되겠지?

호레. 果然 그러 합니다.

하물. 證書의 用紙는 염소 楮로 맨든 것인가?

호레. 예에, 송아지 楮로 맨든 것입니다.

하물. 그것을 바라 고 잇는 놈은 송아지나 염소 의 行爲이다. 厥者와 問答이 나하 여 보자.....

(甲人에 對하여) 그 穿牆軍은 누구인 가?

甲人. 예에 내을 시다.....(노래)

혹으로 잇슬 집을 맨들기 爲하여,

이가른손님이거귀에相當이。

하물。果然그럴듯하다。너는거귀에들어잇스니。

甲人。당신은이맛게서잇스니당신의것은아닙니다。날로말하면가운데에들어잇지는아

니하나、그래도내것이올시다。

하물。내가現在에들어잇스면서너의되라고하는것은그것이야말로그짓말로들어잇는

것이다。慕라고하는것은죽은者の것이요산 사람의것은아니다。그럼으로너는

거짓말을하는者이다。

甲人。果然말슴이지그것이야말로살아잇는거짓말이올시다。인제야才談應對는다되

잇습니다。

하물。어썸사나이를爲해서되들파나。

甲人。어썸사나이를爲하여파는되는아닙니다。

하물。그러면어썸한女子를爲하여파는되나？

甲人。女子를爲해서파는것도아닙니다。

하물。 그러면 누가 무척걸 것인가?

甲人。 살아잇슬새에는 女子이엇스나 불상히 죽어버렸습니다。

하물。 매우應口輒對를 잘하는놈이다。 말의使用法이라고보고서 하지아니하다가는 돌이

어 뒤잡히고말갓다。 썩그러кет지 호。 예시。 오。 이三年以來로 내가보는바이거니와정
말時勢가銳敏해지고말았다。 農夫의 발톱뭇이朝廷臣下의 발뒤꿈치에 대이어잇서
그凍瘡을문질느는것갓다。……너는인제부터 외파는사람이 되었다。

甲人。 一年三百六十日中에 내가이일을始作한날은先王하물레트께서 포오된플라스들이

기시던그날부럼입니다。

하물。 그러면 只수몇해나되나。

甲人。 그것을당신이 모르오 아모리天痴라도다 아는데 작은하물레트殿下에서 誕生하

시던날인데 狂症이나서英吉利에 보내신하물레트의。

하물。 아아 그런가? 무슨일로 英吉利에 보낸나?

甲人。 미쳤스니까, 거기예가면 狂症이나올가하고났지아니하여도關係찬호니까。

하물。 어찌해설。

甲人。 그곳에 잇스면 눈에 띄이지 아니 할 것이니 짜 모도가 다 미쳤스니까?

하물。 엇찌서 하물레르가 미쳤는지?

甲人。 그것이 大體 알수업다는 것입니다。

하물。 어찌케 알수업는가?

甲人。 正말로 미쳤다고 하니 짜?

하물。 무슨 일로 그러하고。

甲人。 무슨 일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덴, 마, 아, 크, 에, 요. 나는 여 귀에 어멈은 어릴적부터 三

十年까지。

하물。 사람이 쌍에 들어가 석을 빼 짜지 몇해나 걸리는지?

甲人。 글새요. 죽기前에 썩지 만 안니 하면……요사이는 마마로 죽은 송창이 산 때 마가 리 짜

히어서 그것은 到底히 백일수가 업스니까……大體 한 八九年은 걸리지요. 그 中에도

鞣皮工은 九年可量이나 견대지요.

하물。 鞣皮工은 九年이나 견대는지?

甲人。 하, 하, 여복시오. 그것도 營業的이 되어서 가족이 軟한故로 오래동안 물올라지아

니 합니다 大抵戶體를 썩게 하는 것은 물입니다. 자아 이것복시오 이러한 嚙體는 二十三年이나 土地에 파무치었든것입니다.

하물。 그것이 누구것인가?

甲人。 하잘것업는 미치고의 것이겠지요. 누구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물。 아니알수업저.

甲人。 정칠미친놈, 時疫에 걸려서. 이녀석은 내머리에다 라인의 葡萄酒를 한瓶 덥흐시
운일이잇습니다 이 骸骨은 國王의 侏儒인 요리크의 骸骨이잇습니다.

하물。 이것이말이지.

甲人。 예예그렇습너다.

하물。 어데보이어주어(嚙體를 짚면서) 아아可憐한요리 크야나는이것을안다. 흐레시오
나는 이者를안다. 戲謔에 이르러서는 다시들도업섯다. 아니拔群의 奇想에 特長을

가진녀석이다。 나를幾千番에 등애다업고단이엇섯다。 그것을 只今생각하면 친
절이가난다。 아나가슴이 미숙거린다。 거기에다。 몇번이나 입을마추엇는지 모른
다。……. 이애너희! 險口는 어대갓나。 웃으게춤은? 노래는? 滿座를웃음으로
顛覆시키든滑稽戲謔은다어셔켓나? 이틀들어낸 이얼굴을 누구한사람 相對하는
이가업다。 웃다웃음을웃지도못하느냐? 이에 只今宮女들의房에가서 如何히化
粧을두터이하드래도, 假令한치나 두렵드래도 畢竟은 이가티얼굴이 되지아니한
다고 웃고말것이다。……. 호레시오, 뜻고자하는말이있다?

호레, 무슨일이심나까?

하물, 알렉산드도 쌍속에 들어가면 亦是이와가타보이엇겟지?

호레, 그러켓지요。

하물, 그래서 이런내음새가났겟지? 페페!

(髑髏을걸어떨인다)

호레, 아마그러켓지요。

하물。

죽은 뒤에는 어찌할쓸대업는곳에 使用이 될는지 모르지호래시오。想像으로 머루
어 보면貴重한 알렉산드의 遺骨이라도 朽로化한 뒤에는 술등의 막에에 더쳐이지 못
하는지도 모르지。

호래。

그러케생각을하시면 님우도 穿鑿이 夥多하십니다。

하물。

아니꼭그럴것이다。거기에더를릴것이업슬것이다。아모리穩當하게생각을하더래
도 畢竟은 亦是거기에 지나지 아니할것이다。자아아러한것이다。알렉산드가죽지。
쌍에무치지。塵埃가되지。塵埃라고하는것은 흙이다。흙에서粘土가되는것이다。
即알렉산드가化한粘土는 麥酒桶의 막에가 되지말나는法도업지。萬乘의시이사도
粘土로化해서 空然히 風前에 罅隙을막는다。可憐타可憐타, 일즉이世上을震駭하
는흙도只수는오즉 嚴冬에 破壁을이들썩。쉬이。조용해 저쪽으로가자 저기에王이
온다。

(僧侶들이 行列을지어들어온다)

(말하셔오피리아의尸體 례에아비어쓰 及哀悼者 다음에는國王 皇后와그儀仗一等어짜든다)

皇后도 오시고 朝臣들도 온다。누구의 葬式인가。저런 不具의 儀式은 저것이야말로 葬事지내는 死者가 亂心の 남아지에 自殺을 했다고 하는 標章이다。身分이나 큰 사람은 아니다。暫間 숨어서 動靜을 보자。

(호택시오와가더름에 숨는다)

레에。 그 밧게는 式이라 는 것이 업는 것이지、

하를。 저 것이 레에야 타 이 쓰다。 훌륭한 壯年이다。

僧長。 妹氏의 葬式은 宗法이 許諾하는 안에는 鄭重하게 措處한 것입니다。最後가 疑心스럽

지 안흔바는 아니나 大命이 아니었스면 이 가 터 恒例를 굽히지도 아니하고 어찌한 式도 업시 무더서 審判의 남판이 들릴때까지 그냥 그대로 내어 버려 두어서 들맹이자 같 왜를 모야 後世를 願하는 祝願의 代身에 尸體우에다 싸하 들것을, 處女에게 相當한 花冠式과 가튼 Ausstattung, 鍾을 울려서 보내기까지 許諾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格外의 處分이 을시다。

레에。 그러면 이 우에는 또 다른 儀式이 업겠습니까?

僧長。

이우에는 더 할 수가 없지요。正當하게世上을 버린사람들과가터 亡者를爲하여 讚美를 불러서 安樂을願하는것은 葬儀의 神聖을 더럽히는것입니다。

레에。

흙속에尸體를너히라。……정하고아름다운 그肉體로부터 堇花가피도록 하여다
고。아니情을모르는僧侶들。너들이虛僞의經文을 지출동안에 누이는天使가될
것이다。

(僧侶한우려들어온다)

하물。

아니 그아름다운 오휘러야!

王妃。

(뜻을慕우에흐르면서) 사랑스러운사람에게 사랑스러운뜻을。잘가거라! 우리兒子

의 안해될날을기다려서새로운자리를 띠들랴고하엿더니 이제이慕우에 뜻을허
를줄이야 어찌똥인들생각을하엿겠는가

레에。

아아三重의災禍、十倍、三十倍나되어서 너의端正한마음을 顛倒케한 그놈의머
리우에 떨어지거라……가만히잇서、暫間만、한번더누의를안아보아야하겠다。

(라고窟穴에섞어든다)

자아 흠을 싸하라 生者와 死者를 區別할 것은 없다。 흠은 무어 흠을 싸하라 이 平地의 中央에, 싸라 온이 무엇이야 오, 띠, 섹스, 의 구름을 쓸는 큰 봉우리라도 눈알로 보일 수 을 지어라。

하물。

(암프로 나치며) 아아 어찌 한 자에 기에 그와 가디 誇張의 悲哀를發하는가? 네가 哀悼의 부르짖지는 말은 間斷업시들아 단이는 한을 애 잇는 별도 귀를 놀래여 停止를 할 것이 다。 네야말로 덴, 마, 아, 크, 의 王子하 불렉트다。

(라고 墓穴에 싸여 듣다)

데에。

惡魔가 너의 魂을 싸앗사라。

(홀이 서로 魂을 찢다)

하물。 그와 첫말을 하다가는 조치 못 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 목을 노하라。 나는 性을 내 고집 지도 아니하다。 또 그처럼 粗雜한 사람도 아니다。 萬一에 危險한 일이 잇스면 準備를 하는 것이 恰愼한 일이다。 손을 노하라。

國王。

두사람을 갈라 노하라。

王妃。하물레트야, 하물레트야.....

衆人。둘이다.....

호레。자아 참으시오。

(僂臣들이 들을 다 말린다 들이 墓穴에서 나오는다)

하물。아니 이 일에 對해서는 나의 눈腫子가 움죽일 썬 짜지는 저놈과 싸우지 안 할 수 업는 것이다。

王妃。아아 하물레트야 그 개두슨 말고?

하물。오 휘터야를 사랑하는 이 내 마음 이 四萬人의 오라비가 사랑한다는 거기에 比할 것이 아니다..... 아니 너는 오 휘터야를 爲하야 어 썬 할 일을 할 作定인가。

國王。이에 誰에야 리야 쓰야 저이는 狂人이다。

王妃。아니 들 참아라 참아。

하물。자아 하고 심흔대 로해보와, 술든지, 싸우든지, 밥을 굶든지, 몸을 썬든지, 초를 먹

던서, 鱷魚를 먹던지。나亦是 해보 일 리야야 너는 지즈라고 이곳에 왔나 墓穴에 들어

가서 나의 얼굴에 뽕칠을 하라고 하였는가。 저女子하고 한가지로 생부참이 되라고 하였는가。 그러면 나도 그러케 되지。 산뽕이가 든 장담을 할 것가 트면 우리들의 이우에 다 몇萬坪의 흙이라 도 싸하라。 싸한 그 흙이 山이 되어서 불쑥가튼 太陽에 峯오리가 타 지고 옷사의 山이 사마귀가 티보이게…………다。 아니 무엇 장담을 하려면 나도 배개는 지지 아니한다。

王妃。

저것이 쏠려 精神이 온전치 못한 따름이다。 한참 동안 저러케 두면 얼마아니 가서 어미비들이가 黃金의 색기를 쓸새와 가티 저절로 鎮靜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물。

에에, 레에야 타이스, 웨그대는 나들이 가티 待遇를 하는가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섯는데…………그러나 關係할 것은 업저 하큐리스의 모든 힘을 다 하더래도 고양이는 고

양이 개는 개이다。

(라 고려를 데트들이간다)

國王。

수고롭지만은 호레에서 오 저어左右에…………

(호레서 오들이간다)

(레다야티의 쓰에게 할해선) 어것게 한말을 잇지 말고 얼마동안만 참고 잇게。 멀지 아니하여서 그일을 試驗하여 보자。 … 카아쓰루우드, 그에게 操心을 시켜 다고……
이墓地에 不朽의 紀念碑를 세워서 그러기만 하면 天下는 自然이 泰平해 질 것이다。
모든것을 그예까지 참고 참아야지。

(모도들이간다)

第五幕

第一場終

第五幕

第二場

(場內의 大廣室)

(하물레트와 호레에서 오드러온다)

하물。 그일은 그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선달이지만은 자내는 다 事情을記憶하겠지?

호레。 기억하겠지라니은?

하물。 안이 나의 마음가운데에 苦悶이잇서서 아모리하야도 잠들기어렵고 鐵架에呻吟

하는暴徒보다 못지안이하는境遇라고 嘆息할새에 이상스럽게 압흔해아르지안고
생각난것이……………아아 이것이 눈면功德이라고하겠지……………김히씨한일이 失敗
가될境遇에 도모지分別업시한일이 도모혀 큰功을세우는일도 잇는수가있다。 첫
손질은 사람이하엿을저라도 뜻마담은 하늘이하고마는것이다。

호레。 그것도 理致업는 말씀은안임니다。

하물。 가만이 船室에서 이러나서 船人이입는 外套를억게에다걸고 어두은가온대 손을더

듬어서 차질라고한 그뚱치가 다행이뜻과가티 손에돌어와서 곳내방으로 도라와
이몸을생각하는 남아지에儀式과禮節을돌아볼 겨를도업시 大膽이 그내들이 뱃
들어가는 大命의글을 띄고보니 참으로 호레에서오, 놀랄만한 國王의奸計……………
렌마아크를爲해서던지 英吉利를爲해서던지 호오! 날을살여두었다는 至極히危
險한일이니 이글을 보는即時에 寸陰의猶豫를말며 독귀(斧)를 갈겨를도두지말
고 卽刻에나의머리를썬러트리라 고 여러가지로 口實을만드러낸嚴命이다。

호레。 그럴수가있을가요。

하물。 그書狀은여기에있다。 뒤에천천히읽어보게。 그런데 그다음에는 내가엇더켓는지

말을할가?

호레。 아모조록。

하물。 그래서 그와가튼 惡漢에게 싸이여 絶對絶命인것씨……………! 아직腦가운대서는 序曲

도쓰기전에 말서活劇이始作되었다。…… 그것은 내가곳자리에안자서 새로운國書를案出한것이다。筆蹟도들넘이엄섯지。일즉이나도이나라政治家와가티글씨 잘쓰는것을賤하게보와 한때에는 배운글씨를 도로이출야고도 하였지만은 그것 이이番에는 忠僕노릇을하였지 그런대 무엇이라고 쓴것이알고싶다?

호레。 그것을좀아랏스면요。

國王으로브터 英吉利王에게보낸 懇切한依賴狀…… 大抵英吉利는 忠誠無二한 屬國이라나 兩國의信義는 常綠樹와가티繁榮한다나 平和의天神은 恒常小麥의花 冠을 머리에안고 兩國의好議를媒介한다나…… 이러한 負擔만은 驚馬를列記하 였고 書中一覽後에는 早速寸分の躊躇업시 懺悔 決코許치말고 이書狀을持參 한兩人을立地에 誅戮하라고 써두었지。

호레。 그래서 國璽는어셔케하였나요?

하들。 그것이 또하늘의도움이다。 내가平生에가지고단이는 隱囊가운대는 父主의御印 을감추어두엇는대 그것이 덴마야크 國璽의模型 卽내가쓴 그命書를式대로적

어 署名도 하고 捺印도 하여 安全하게 上前했던 곳에 너어 두었지 그것이 박귀인을
은 누가 아라스리。 그래서 그 잊은 날이 海上의 戰鬪。 그 뒤 사 일들은 임의 仔細이 아
는 리이지。

호레。 그래서 칼덴스다안과 로오젠크란쓰는 그 케케품을 망쳤습시다 그러。

하물。 果然이지 이 러한 因果를 제가 求한 그놈들이니 滅亡은 自得自取이지。 勇士가 서
로 奮激해서 火花를 亂撥하는 그름에 匹夫庸漢이 參例한다는 것은 아모래도 危殆
한 일이다。

호레。 참으로 말할 못 할 國王의 所爲!

하물。 안이 이 러한 以上에는 當然한 일이다 안인가……우리 父王을 弑殺하고 우리 母后를 讎
弄하며 나의 登極의 길까지 막고서 무엇이 남았다고 이 러한 奸惡한 手段을 써서 나의
목숨까지 다 갈아는 그놈……이 가른놈을 誅戮하는 것의 하늘이 命命하는 바이안인
가? 이 가른 人間의 螫賊을 살여 두어서 다시 그 毒害를 길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地
獄에 떨어지는 大罪惡이 안인가?

호레。

멀지안이하여 英吉利에서 事件의 顛末을 國王에게 通知하지안은지요?

하를。

안이멀지안이하여 알게되겠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物件이다。 사람의복수는

『忘』이라 할만한 그사도 업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치말 호레에서 오 나는 레에야, 아치이쓰에게 날을잇(忘)고 無禮한行動을한것이 後悔된다。 내물에잇추어 보와서 그心情을생각하고싶다。 하위하자고일너다고。 그러나 넘어 도激痛하는 悲嘆의行動에 생각지안은 憤激이 높아서。

호오。

시이! 잠깐고기세요 누가오는것같습니다。(廷臣 오스릿크 들어온다)

오스。

殿下에서 安寧이 濼啓하심을 겁버하옵니다。

하를。

안이고마운말일세。(호레에서 오에게만) 이 물파터놈을아는가。

호오。

(하를레트에게만) 안이모름니다。

하를。

호레에서 오에게만) 그러면참幸福이다。 저자를아는것은惡德이다。 저자는 조

후土地를 그중에도만이가지고있다。牛馬라고牛馬의王이되면 그마소(牛馬)축桶을國王의食卓에 버려놓키가되는것이다。 저자는 등신새(鳥)라도 아까말한것

과가티 泥土를가진것은말라。

오스。 殿下。萬一에무슨閑暇하실것가트면國王陛下의吩咐를아르고자합니다。

하물。 삼가받드려듯저。그러나그帽子를正當이使用하지。그것은머리에안는것이지。

오스。 吩咐는慚感하오나大端더운이싸요。

하물。 안이그를理가잇나大端이추운대北風이부니싸。

오스。 참果然흡습니다。

하물。 그러나매우씨니까나가튼體質에는더울것이다。

오스。 참그것도그렇습니다。大端이심니다。……무어라고하는지알지못할것가티……

그리하온대殿下。陛下의處分이라고하는것은殿下에莫大한대기를하섯다는그말
음을하라시는것입니다。그事件이라고하는것은……

하물。 안이只속한말을……

(하물레트는오스렛크에게帽子를쓰라고손으로가러킨다)

오스。 안이정말。정말재마음을올시다。그런대殿下。이런에歸國하신레에야치이스氏

는 참으로 그 사람이야말로 두엇하나 缺點은 名士로써 여럿에서 缺여나는 長所를 가지고서 應接하는 態度도 嫻雅하고 動靜風采도 훌륭할뿐아니라 안이함으로 適切이 論評을 하려면 山禮儀의 早見表라던지 또는 儀節의 目錄이라고 할는지요 假令에 士君子 되고자 하는 者의 바랄바의 모든 美德을 그 사람이 다 갖추어 잇읍니다。

하물。

批評해 말하자면 遺憾이 없는 바이다。 더욱이 그의 長所와 才能을 一々히 分析하자면 넘어도 數가 많아서 記憶力이 狼狽를 볼 것이다。 아모리 砒라 가랴도 그의 배入(船) 거룩이 넘어 速해서 必竟은 타기를 썰 들 것이다。 안이 淸정 말이지 나는 그 사람을 才器量의 사람이 라고 밋는 바이다。 그 사람의 天質은 限量 없시 貴重함으로 物件에 化해서 評定을 할야고 하여도 갖다 고하는 것은 거울의 빗치는 그 사람의 自身의 그림자 뿐이다。 하물며 그 사람의 模倣을 할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의 그림자에 지나지 못할 것이다。

스스。 殿下의 評論하시는 바는 周到하시고 適切하옵신 것입니다。

하물。 그래서 理由는? 아이 그 갖든 拔群의 君子를 왜 蕪辭로써 推讚하겠는가?

스스。 예예?

오래。 다른 입으로 말습하면 모를는지요。 알듯한 것인데。

하물。 그 사람의 風說을 말하는 것은 무슨 싸닭인가요。

오스。 레에야 치이스의 風說 말입니까?

오래。 (하물레트에게만) 돈주머니가 발서 텅 비었읍니다。 金言을 다 써버렸습으로。

하물。 (오스에게對하야) 그 사람의 風說을。

오스。 前부터 아시는 일이지만은………。

물하。 으응。 나도 그러케 되었으면 정말이지 그러케 되더라도 그 처름 名譽라고는 하지안

겟시。 그른대。

오스。 일즉이 아시는 바와가터 레에야 치이스氏의 優秀한 長所에 對해서………。

하물。 구태여 안다고 하지는 안이하지。 아 래서 心中으로 그와 優劣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것

이 실은 나싸。 그러나 남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自己를 안다고 하는 그것이다。

오스。 제가 말습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武器에 對하여서이지만은 衆人의 評價에 依하면 이

技術에 對해서는 天下無雙이라고 한담니다。

하물。 武器는 무엇이야

오스。 細刀와短劍으로。

하물。 그것은武器中에 들어다 그래서…………。

오스。 그른대 陛下께서는 그이에게 싸아싸리스말 (馬) 大頭를거섯는데 거기에對해서

그이가 볼부(質)한것을 들은바에依하면 佛蘭西制의 細刀와短劍,合해서六對와그

기에다 飾帶、劍鉤라고하는附帶品。 그中에도 鉤懸機三個는 優美한製作으로第

一 칼자루와調和가 잘되여서 風流의極致가雅優를盡善한細工이 랍니다。

하물。 鉤懸機라고하는것은?

호레。 (하물래드에게만) 아모래도仔細이아실야면 亦是註釋書가들출압니다。

오스。 鉤懸機라고하는것은 칼을거는고리를말슴한것이올시다。

하물。 허리에大砲라도 차고단이는것가트면 그러할말도 合當할년지 모르지만은 아직

제까지는 칼거는고리라고하였으면쫓치 그래서 六頭의 싸아싸리가馬의對해서六

對의佛蘭西劍과그附屬品, 또雅致를極盡한鉤懸이라지。 이것이복丁抹對佛蘭西의

내기다。 옛재서 이런 일을 그대가 말하는 것과 가티 『불무한다』는 것인가?

오스。 國王陛下께서는 殿下께서와 그사람과 十二合을 試戰하면 그사람은 세 번에 더이기지 못할 것인 줄 생각 하셔서 九의 對한 十二의 내기를 거렸음이다。 萬一에 殿下께서 해보시겠다는 許諾만 하시면 速히 御前 試合을 開催한다고 하심니다。

하물。 서로서기가?

오스。 제가 말씀한 것은 서로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武藝의 試合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물。 이방안이라도 거러 단이지。 그것을 좃타고 하시면 俗내가 遊技의 時刻도 되잇스니 試合할 칼을 가져오는 것이 조켓지。 그사람도 異意가 업고 國王의 意響도 變치안하면 될수잇으면 이겨도 보지。 萬一에 失手를 하면 羞耻를 暴露할뿐이다。

오스。 그대로 復命하오릿가?

하물。 아아 潤色은네 任意로。

오스。 오래동안 臣의 微衷을 殿下가 薦奪함내다。

하물。 過分、過分。.....

(스스밧으들어간다)

自己가自己를推薦하는것도當然한일이다。그밖에는 누구도그者を爲해서임을설 사람이업스니까。

호례。

그솔개갓튼놈이 아직덜도벗지안이한대다 다라나기는잘함나이다그리。

하물。

그자는 젖을빨기前에 젖통에다걸을하음이다。그러케 그놈들^우總이滲薄한世上에阿諛하는 새색기가타리 겨우時代의節調를엇어 巧言令色으로 다맛皮相만 맛추는대 지나지 안이한것이다。泡沫과가타리 似而非學問으로 부채나기로 혼들어난 호운 여러가지世評을 써져단일뿐이다。그러나 그것도 오직한번풀어만보지 외 비누방을가타리 사라지고말것이다。

(한紳士가츄들어온다)

紳士。

殿下 陛下계옵서 아싸오스립크로써 놉흐신뜻을 勸薦하신바 그사람이도라와殿下계서 넓은房에서 기다리신다는뜻을 復命하신대對해서 그 레에야치이스와高會하시는것에異意가계시지안이하는지 또는延期라도하시지아니하시는지 그處分

을 무루어 오라고 하옵습니다。

하물。

나의 마음은變하지안이한다。國王의 뜻대로 그쌍形便만 조흐면 이쌍은언제던지

라。只수도 좃코 쓰언제라도 좃타 나의境遇에變動이업스면。

紳士。

兩陛下로브터 모던一同이 只수도엿습니다。

하물。

썩 좃타。

紳士。

后陛下에서 殿下가 바라시는 것은 立會하실적에 아도썩록 때에야 아치이스氏에게

對하셔서 和睦하신 마음으로 人事를하시라고。

하물。

御訓은 살가이 맞들것다。

(紳士마름들여간다)

호례。

이번勝負는 좃치 못할것가름니다。

하물。

안이 그러케는 생각지안이한다。그사날이 佛蘭西에 간以後로 나도은 傭傭서 工夫

를 하엿다。오직 數가를 일뿐이니 이기겠지。……그러나 이가슴이 엇전지전대지

못하게 煩거가련다。그대는 그러케 생각들지안는가。그러나 그싸짓것은 關係

할것업다。

호례。

그것이엇진일업닛가。

하물。

좌담업는일이다。압아도婦人들가트면 마음에꺼림즉하겠지。

호례。

마음에快를지못하시거던 그말停止하십시오。兩陛下님추시는것은 停止케하시고

故障잇는事然을 알외음겝읍니다。

하물。

안이 안이。前兆어엇던것을 마음에꺼리기일것는업다。새한머리잡는는대도 特

별한 하들의놈음이잇서야하는것이다。只수오지안이하면 뒤에는오지안는것이요

只수오지안이하면 뒤에라도오는것이다。무엇이던지 決心이萬全이다。남겨두고

가는世上에 價値가업스면 일즉이죽기르 무는恨이잇겝나。이양내여버려두지。

(國王、皇后、례야야치이스、紳士、오스립크及從者들試合劍을가치고들여온다)

國王。

자아하를레트 이리외셔 이손을잡아라。(王은하를레트와 레야치이스의들이握手

하도록한다。)

하물。

容恕해다고。나는그대에게 좃치못한일을했다。그러나 그대가 紳士일것가트면

容恕해주게, 여기에 있는 여러 사람도 다 알거니와 그대도 임의風說로 들릿들줄 안다。 나는 초려 狂症으로 苦生을 했다。 그대의 感情을 사게 하고 名譽心을 해롭게 하고 奮激을 이르게 한 모든 나의 行動은 모도다 狂症인 까닭이다。 하물레트는 레에 야아치이스에게 無禮한 짓을 했겠나。 안이한 일이 업지。 萬一에 하물레트가 本心을 익겨서 제가 제안일 때에는 레에 야아치이스에게 無禮를 加할지라도 그것은 決코 하물레트의 行動이 안이다。 萬一에 그러케 될 地境이면 하물레트도 그 毒을 밟는 한 사람이다。 그 狂症은 可憐한 하물레트의 仇敵이다。 이와 가리 여러 사람의 面前에 背意일 시 盟誓한 以上에는 그대가 寬大한 마음에서 나 나의 前日罪는 지봉 넘어 쓰으실 살 이 意外에 同胞을 傷하게 할 것인 줄 알고 容恕해 줄 것이다。

레에。

그 말씀으로 只今까지 復讎하려는 쓰거운 마음의 感情까지는 풀었읍니다。 그러나 나의 名譽에 對해서는 그들만한 長老의 和解에 依하여 나의 羞耻가 돌아오지 안이 할 前例를 보여 주지 안이 한 以上에는 一步도 辭讓치 안이 할 것이 을시다。 아직 그 때까지는 당신이 말씀하신 友愛를 말씀 그대로 밟아 두겠습니다。

하물。

나도 그것을疑心치는 안이 한다。 그러면서도胸襟을 열어서 兄弟가 하는 것과 같은 試
습을 하세。 試습하는 것을 가져오너라。 자아 여기세。

레에。

자아 내게도。

하물。

레에야 치이스。 나는 그대에게 試습하는 같이 안이라 銀箔을 입힌 것 같은 것이다。 나의
변々치 못한 技術에 化해서 그대에 技量이 들어나 暗夜의 별과 가리 변색 거릴 것이다。

레에。

그른 弄談의 말씀은 마십시오。

하물。

안이 盟誓코 그를 것이다。

國王。

오스릭크 兩人에게 試습하는 칼을 주어라 하물레트야 너는 내 기전 것을 알고 있나。

하물。

잘 압니다。 陛下께서는 弱한 便에 만은 내기를 거셨다지요。

國王。

나는 그른 것을 마음에 두지는 안이 한다。 두사람의 技藝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레에
야치이스가 熟達한 줄 알아서 數달은 기는 하여 두었다。

레에。

이것은 넘어 무겁다 다른 것을 보여주고。

하물。

이것이 마음에 든다。 칼의 길이에 눈을 임이 없다。

오스。
예에 를임이업습니다。

(兩人이 試合할 準備을 한다)

國王。

그卓上에는酒瓶을인쳐두어라。萬一에하,믈,에,트,가第一擊、第二擊、第三擊까지겨수로相對를할것가트면 모든壘壁으로부터祝砲를뚫게하여라 王은하믈레트의未事를祝賀하기爲하야 술잔을들것이다。그리고그술잔中에는四代에덴,마,야,크,왕이寶冠에단 品質보다도 더조흔眞珠를섞질것이다。자아술잔을다고。그래서『只今國王이하,믈,레,트,를爲하야祝盃를든다』고鍾鼓를울여셔喇臥手에게傳하고囉臥手로써戶外에잇는砲手에게알게하며 大砲를노와하늘에들이게하고 하늘에서쌍으로傳하게하여라。자아始作이되엿다。여보게審判官들。精神들차리게。

하믈。
자아오나라。

데에。
자아시작。

(兩人이싸운다)

하믈。
한個。

레에○ 무엇이○

하물○ 審判○

오스○ 마작다○ 바로마작다○

레에○ 을타○ 또한번○

國王○ 기달나라○ 술을부어라하물레트 이眞珠는 너의것이다○ 자아이러케祝盃를는다○

(囉叭을불고안에서祝盃를는다 王이盃中에眞珠를던진다)

하물레트에게이盃를주어라○

하물○ 이한번을다합시다○ 아직그씩에○ 자아오나라 (激烈이싸운다)

또한번더○

레에○ 失手했다○ 싹쳤다○

國王○ 하물레트가이겼다○

王妃○ 물이굴거니 숨이찰터이지자야○ 하물레트야 이手巾으로임아에 싹을싹쳐라○ 너

의祝盃는 내가마시겠다○

하물。 어머니고 말씀니다。

國王。 카아쑤루우드, 먹어서는 안이 된다。

皇后。 안이요 먹지요。 容恕하십시오。

國王。 (엙홀보고) 그것은毒蟲다。 인제는 느졌다。

하물。 아직먹을것잔습니다。 어머니。 인제먹지요。

皇后。 이리오너라。 너의얼골을씻쳐라。

래에。 陛下 인제는 한번채추를내여보이겠읍니다。

國王。 그를것잔지도안이하다。

래에。 (엙홀보고) 그러치만은 잊친지良心이許諾지안이해서。

하물。 자아오나라。 세번째다。 자내는정말힘을안쓰지 안이하지。 잇는대로힘을다해서

달여들게。 나를嘲弄하지안는가?

어래。 그러케말씀하시면。 한번합시다。

(兩人이싸운다)

오스。 아직 도 시작이다。

레에。 아!

(레에야, 치이스, 한 번 하틀레트를 썰는다. 激烈한 接戰이 되어서 서로 칼을 맞구었다. 하틀레트 한 번 레에야, 치이스를 썰었다.)

國王。 저것! 쓰더 딸여라。 다 上氣가 되었다。

하틀。 안이요, 안이요, 한번 더。 자야 오나라。(이를 썬에 王妃中毒이 되어서 넘어진다)

오스。 國母陛下께서 옛 전일이시야 하야。

호레。 雙方이다 傷하셨지 엇더케 되여 습니자。 殿下。

하틀。 母后께서 게 되셨나。

國王。 두 사람의 피를 보고 失神을 한 것이지。

皇后。 안이 안이 그술이요 그술로, 오오 하틀레트야 그술쌌은이다, 그술나는 毒害를 바

닷다。

(皇后絶息)

하물。야야奸하다。야야야아, 門을장가라。叛逆者가있다。速히차자나여라。

레에。 그것은여기에잇습니다。하물레드殿下인제는당신의 목숨도다되였읍니다。

어셔한世界的의靈藥이라도당신을못킬수는업습니다。인제는半時間동안목숨을拔
攆치 못할것입니다。이惡計의그릇이라고하는것은 손에가지신칼, 突데毒藥을뭇
첫습니다。邪惡의設計가 내몸에도라와서, 보십시오。나도다시이러나지 못할몸
이 되였읍니다。從后게서도毒殺을입으셨읍니다。발셔말을못하십니다。王……………
王이야말로 罪人이을시다。

하물。 설으기조케똥을똥똥하게하여……………毒藥을뭇쳤지, 을치 그러면毒藥아 効驗이잇

게하여라。

(고王을전우어달겨들어그가슴을썰는다)

모다。 叛逆! 叛逆!

國王。 오호살여다고 여러사람들아아직도傷處가 크지안타。

하물。 이非倫, 無慚, 殘虐, 非道한 덴마야, 크王아……………이毒藥을먹으라! 그眞珠라고하는

것이 이것인가。 죽어서 母后의 뒤를 썩라라。

(國王이 죽는다)

레에。

그것이 正當한 待遇입니다。 自己가 담은 毒藥이니 차。 하물레트 殿下 당신도 나를怨
罔하지 마시오。

(레에야 치이스 죽는다)

하물。

하늘도 罪를 容恕하여 줄 것이다。 나도 뒤로 가겠다。 호오레에시오, 인제이뿐이다。
불쌍하신 母后, 그러면 인제는。 이 慘劇을 보고 失色戰慄하는 모든 사람을 無言의 倣
出갓거나 求景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 이 慘酷한 죽음의 使者가 捕繩을 조금만
더 늦추면…… 아아 나는 할말이만이 있다。 그러나 아무말도 못하겠다。 호레에시오,
나는 이뿐이다。 자내는 뒤에 남이 있어서 나의 뜻을 물으는 사람에게 나의 正當한 理
由를 傳해 다고。

호레。

안이요 그 말씀은 뜻을 수가 없습니다。 덴마아크에나슬지라도 이 뜻은 옛날로 따사
람에게 지지안이 하는 나슬시다。 다행이여기에 남아있는 毒酒가……

하물。

男子이면 이러내라 노와라。 이것은 내가 먹겠다……오 오 오……호래에시오
이러케仔細한理由를물으고는 내가 측은 뒤에 엇다한惡名이 남이 잇을지도 모른
다。 나를생각하는참뜻이잇거든한참동안 幸福을멀니하고 浮世에피로운목숨을늘
여석나외이약을하여다고(멀니進軍의驪吟소리。 안에서大砲소리)저勇猛스러운
소리。

오스。

젊은포오린플라스가 폴난드로브터凱旋하고도라는것입니다 英國으로브터使
臣이오기쌈으내 歡迎하는祝砲를놓는것이올시나。

하물。

오오 호래에시오, 측은은吟迫하였다。 激烈한毒氣는발서精神을痲痺해버렸다。 英
國에서은節使의報告를들겨를짜지도견대지못하겠다。 그러나나는 遺言으로써
포오린플라스, 포왕嗣를定해라。 그에게最後의말을傳해라고 그리고이事件이생진
顛末을仔細이가라쳐주게。 오오 그뒤는沈默뿐이다。

(하물래트氣絶한다)

호래。

高貴한그마음도。 이제는부서졌다。 그러면穩준이갈가십시요。 사망하는皇子。 天

使의 노래로 보내서 天國의 安息을 얻게 하도록. 워적복소리가 여기 에 오나.

(안에서 行進曲. 포오린, 콜라스, 英國節使其他多數人이 들어 온다.)

포오. 어디 있나.

호레. 무엇을 보시라고 하십니까. 慘憺한 物件을 날만 한 그것을 보시라면 차지실 것도 없습니

다.

포오. 大破壞를 부러지지는 屍體의 山. 아야 자랑할 만 죽음의 神아. 네가 永却의 廚房에서 어

려 한 癡癡을 할야고 準備을 하느냐. 이와 가티多數의 貴人들을 한 彈子로 無慘하게 쓰

죽인 것은?

節使.

慘憺한 求誌. 그러면 내가 英國으로 보러 가지는 報告도 硃가 임의 느졌다. 포오, 뜻크

란쓰, 킬, 덴스, 다, 안, 의, 두, 사, 람, 을, 버, 이, (誅) 서, 始, 終, 이, 如, 一, 하, 게, 大, 命, 을, 맞, 친, 事, 由, 를, 申, 達, 하

라고 하여도 임의들을 귀가 먹었다. 어데로써 感謝하다는 말을 들을가.

호레.

國王의 목숨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感謝하다는 말을 들을수가 없겠지. 두사람을 죽

이라는 命令은 決主國王의 命令이 아니라. 그것은 언더 캐 되었던지. 이터한 大慘事

가이러한이때에君王은。플란드의戰場에서 西卿은英吉利에서 이와가러朝廷에도
인을機會로하여 命令으로써 이屍體를능한壇上에되시고、그래서날로하여여곰
말등안아모일도몰으는 世人에게아러캐된 仔細한事然을 말하게하여주십시오
그러캐되는 당신내들도 아시게될터이지요。奸惡殘虐非道の行動、따라서突然한
裁判、생각지못한殺人、하는수업는苦悶의計畧、거기에서뜻가는이러한大慘事、
自己의計劃이齟齬를생기게하여、計劃한者의머리우에應報가왔다自初至終의前後
事然을말할수가있읍니다、

포오。

速히그것을듯도록합시다。國內의도덕賞人을불너모으기하지。나의自身の對해서
는「愁傷에싸인색이지만는 나의運命을안아맞지(抱迎)」。이나라와는 적지안이한
緣故로잇는것답에 이를機會를하여 내뜻을達하도록 旋力하지。

호레。

거기에對해서는 말씀할일이잇읍니다。即多數의同意를쓰을만한 그양반의口에서
은 遺言이잇읍니다。그러나只속내가말씀한것을 實行하도록하여주십시오。人
心이恟々한오늘이니사。그러치안이면陰謀와誤解라고하는 이우에더한不幸이이

러나지도 안이 할는지 모른다。

포오。

하틀레트殿下의 遺骸는 武將의 禮를 다 해서 四人의 隊長으로 하여 禮壇上에 올려 되서
게하지。機會만 잘타스면 이어든도 또 한 훌륭한 英主의 실어든이다。軍樂을 아뢰고
禮砲를 노와서 薨去하신 것을 四方에 告하게 하지。遺骸를 띄워라。이러한 光景이 戰
場에는 相當하지 않은 여귀에는 넘어도 慘酷하다。자아가서 兵士들에게 弔砲를 쏘
게 하여라。

(苑送의 曲、屍體배고 모도들나 간다。따라서 안으로 大砲의 소리)

하틀레트 全篇完了

大正十二年四月二十五日 印刷
大正十二年四月三十日 發行

하물 卍

實價金一圓

著者

作行

兼者

玄

億

運

京城府雲泥洞八十七番地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者

印刷者

沈

禹

澤

不許
複製

印刷所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蓬萊町二丁目八八番地

發行所

博文館

博文館

書

館

馬替口座京城二〇二三番

